신유복전 [申遺腹傳]

신 ○ 산 풀이

화설(話說) 해동(海東) 조선국(朝鮮國) 명종대왕(明宗大王) 시절이라.

전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에 일위(一位)[1] 명사(名士) 있으되, 성(姓)은 신(申)이요, 명(名)은 영이니, 장절공(壯節公)[2] 팔세 손(孫)이요, 사대(四代) 진사(進士) 신담의 아들이라.

어려서부터 총명이 과인(過人)[3]하며 학업을 힘써 학력(學力)이 출중(出衆)[4]하여 작문(作文)에 항심잠의(恒心潛意)[5]하다가, 경과(京科)[6] 초시(初試)[7]로 회시(會試)[8] 장원하여 진사(進士)에 뽑히는지라.

왕상(王上)이 기특히 여기사 신래(新來)[9]를 진퇴(進退)[10]하시더라.

신영이 사은숙배(謝恩肅拜)[11]하고 물러나와 고향에 돌아와 가묘(家廟)[12]에 배현(拜見)[13]하고 선산(先山)에 영분(榮墳)[14]한 후에 부인 최씨와 더불어 농사를 힘써 가산(家産)은 섬부(贍富)[15]하나 다만 슬하(膝下)[16]에 일점혈육(一點血肉)[17]이 없으매 매양 슬퍼하더니,

일일(一日)은 진사(進士)[18]가 부인으로 작반(作伴)[19]하여 울울(鬱鬱)[20]한 비회(悲懷)[21]를 풀고자 하여, 후원 동산에 올라가 일변(一邊)[22] 풍경도 완상(玩賞)[23]하며, 일변 산보(散步)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춘흥(春興)을 못 이기여 인간 삼생사(三生事)[24]를 담화할 새,

이때는 마침 춘삼월(春三月) 망간(望間)[25]이라. 동산(東山) 서원(西園)에 백화(百花)[26]는 만발하여 울긋불긋하며 전천후당(前川後塘)[27]에 양류(楊柳)[28]는 의의(依依)[29]하여 파릇파릇하여 원근(遠近) 산천(山川)을 단청(丹靑)[30]하였는데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31]이요,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32]이며, 비금주수(飛禽走獸)[33]는 쌍거쌍래(雙去雙來)[34]라

물색(物色)[35]이 정여차(正與此)[36]함에 차처차경(此處此景)[37]을 가지고도 즐거운 사람으

---

1) 한 사람
2) 평산(平山) 신씨의 시조 신숭겸(申崇謙)
3)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
4)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짐.
5) 늘 뜻을 두고 깊이 생각함.
6) 서울에서 보던 과거.
7) 과거의 첫 시험에서 급제한 사람.
8) 진사를 뽑던 시험
9)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
10) 내리심.
11)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림.
12) 집안의 사당
13)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얼굴을 뵘.
14) 새로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한 사람이 고향의 조상 묘를 찾아 풍악을 울리며 영예를 아뢰던 일.
15) 넉넉하고 풍부함.
16)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부모의 곁.
17) 자기가 낳은 단 하나의 자녀.
18) **신영**
19) 길동무로 삼음.
20)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아주 답답함.
21) 슬픈 생각.
22) 한편.
23) 즐겨 구경함.
24)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일.
25) 음력 보름께.
26) 온갖 꽃.
27) 앞 여울과 뒤 연못에
28) 버드나무.
29) 풀이 무성하여 싱싱하게 푸르름.
30) 곱게 물들임.
31) 나비가 꽃 사이를 춤추며 날아다니는 것이 풀풀 눈이 날리는 듯함.
32) 버드나무 위를 꾀꼬리가 금 조각처럼 날아다님.
33) 날짐승 길짐승이 뛰어다님.
34) 쌍쌍이 오고 감.
35) 자연의 경치.
36) 바로 이와 같음.
37) 이곳의 이 경치

로 하여금 보게 되면 환환희희(歡歡喜喜)하여 흥치(興致)[1] 일층(一層) 도도(陶陶)[2]할 것이고, 슬픈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되면 우우탄탄(吁吁嘆嘆)[3]하여 수회(愁懷)[4] 일층 증가(增加)할러라.

마침 일락서산(日落西山)[5]하고 월출동령(月出東嶺)[6]일 새, 명랑한 월색(月色)을 띠고 돌아오다가 진사가 부인을 대하여 추연(惆然)[7] 탄왈(嘆曰)[8],

"우리 현인(賢人)의 자손으로 내게 이르러, 오대(五代) 공명(功名)이 부족한 것은 없으되, 다만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없기로 만년(萬年) 향화(香火)[9]를 끊게 되니 수원수구(誰怨誰咎)[10]하리오. 사후 백골이라도 조선(祖先)[11]에 큰 죄인을 면치 못하리로다. 이러므로 이 같은 화조월석(花朝月夕)[12]을 매양 당하면 비회를 억제치 못하겠도다."

하거늘, 부인이 함루(含淚)[13] 대왈(對曰)[14],

"우리 문중(門中)에 무자(無子)함은 다 첩(妾)의 죄악이라. 오형지속(五刑之屬)[15]에 무후막대(無後莫代)[16]라 하오니 마땅히 그 죄 만 번 죽음 직 하오되, 도리어 군자의 넓으신 덕을 입사와 존문(尊門)에 의탁(依託)하여 영화로이 지내오니, 그 은혜 백골난망(白骨難忘)[17]이로소이다. 다른 명문대가(名門大家)에 요조숙녀(窈窕淑女)[18]를 구하시어 취처(娶妻)[19]하여 귀자(貴子)를 보시면 칠거지악(七去之惡)[20]을 면할까 하나이다."

진사 미소 답왈(答曰)[21],

"부인에게 없는 자식이 타인에게 취처한들 어찌 생남(生男)[22]하오리까. 이는 다 나의 팔자이오니 부인은 안심하옵소서."

하오며, 시동(侍童)[23]을 사용(使用)하여 주효(酒肴)[24]를 내와, 진사 부인으로 더불어 권하거니 마시거니 일배일배 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25]로 서로 위로하며 마신 후에, 진사와 부인이 취흥(醉興)을 못 이기여 각기 침소(寢所)로 돌아오더라.

이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전전반측(輾轉反側)[26]하다가 적막한 빈방 안에 올연(兀然)[27] 독좌(獨坐)[28]하여 비회를 등촉(燈燭)[29]에 부치어 이리저리 곰곰 생각하다가,

'옛적에도 자식 없는 사람이 천지(天地) 일월성신(日月星辰)[30]에게 정성 드려 득남(得男)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자식을 빌어보리라.'

하더니, 마침 진사 내당(內堂)으로 들어오시거늘 부인이 진사를 대하여 여쭈오되,

"옛적에 자식을 빌어 득남한 사람이 많사오나, 처도 고인(古人)[31]의 일을 행할까 하나이

---

1) 흥과 운치.
2) 매우 화락함.
3) 한숨 쉬며 탄식함.
4)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근심.
5) 해가 서산으로 떨어짐.
6) 동쪽 언덕에 달이 떠오름
7) 처량하고 슬픔.
8) 탄식하며 말하기를,
9) 제사.
10)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11) 선조
12)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
13) 눈물을 머금음.
14) 대답하기를,
15) 옛날 중국의 다섯 가지 형벌.
16) 후손이 없어 대가 끊어짐.
17) 죽어 백골이 되어도 은덕을 잊을 수 없음.
18)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
19) 아내를 얻음.
20)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곧,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21) 대답하기를,
22) 아들을 낳음.
23) 심부름하던 아이.
24) 술과 안주.
25) 한 잔 한 잔 또 한 잔
26) 누워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27) 홀로 우뚝이.
28) 홀로 앉음.
29) 등불과 촛불.
30) 해와 달과 별
31) 옛사람.

다."

진사 청파(聽罷)[1]에

"부인 말씀 같으면 세상에 무자(無子)할 사람이 없으오리까. 그러한 허탄(虛誕)[2]의 말씀을 다시 하시지 마옵소서."

부인이 또 여쭈오되,

"고언(古言)에 왈(曰),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至誠)이 감천(感天)이라 하였으니,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가서 지성으로 정성 드리어 득남 발원(發願)이나 하여 보면, 천지신명(天地神明)이 혹시 감동하사 일개(一介)[3] 동자(童子)를 점지하여 후사(後嗣)를 이어 조선(祖先)에 죄를 면할까 하나이다."

진사가 부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감응(感應)[4]하여 즉시 행장(行裝)[5]을 수습하여 남방으로 향하더라.

떠난 지 여러 날 만에 제주 한라산을 당도하여, 수십 명 역정(驛丁)[6]을 사용하여 불일성지(不日成之)[7]로 제단을 건축하고, 진사 부처(夫妻)[8]가 목욕재계하여 일심 성력(誠力)으로 백일기도를 마치고 본제(本第)[9]로 돌아오더라.

그 부인의 정성이 이 같으니 천도(天道) 어찌 무심하시리오. 그날 밤에 부인이 자연 곤뇌(困惱)[10]하여 안식(案息)[11]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非夢似夢)[12] 간에 한라산 선관(仙官)이 일개 선동(仙童)을 데리고 와 부인을 대하여 왈,

"부인의 정성을 감사히 여기어 이 아이를 드리니, 잘 교육시켜 문호(門戶)를 빛나게 하시되, 이 아이는 범상(凡常)[13]한 사람이 아니라. 천강(天降) 규성(奎星)[14] 선동(仙童)으로서 하느님께 득죄(得罪)하여 진세(塵世)[15]에 적강(謫降)[16]함을 당하였으니 일후(日後)[17] 영귀(榮貴)하려니와, 그러나 그대 부부 전생에 죄 중(重)하여 수한(壽限)[18]이 길지 못하매, 이 아이가 초년(初年) 고생을 면치 못하겠기로, 그대 부부는 아들의 낙(樂)을 보지 못할 것이니 가장 슬프고 불쌍하도다."

하고 문득 간 곳을 알지 못할러라.

마침 계명성(鷄鳴聲)[19]에 최씨 놀라 깨보니 일장춘몽(一場春夢)[20]이라. 몽사(夢事)[21]가 이상하여 서운하기로 즉시 진사를 청하여 몽사를 여쭈오니, 진사 왈,

"나의 몽사도 이 같으니 참 이상하고 서운하외다."

하며, 일변(一邊) 내념(內念)에 귀자(貴子)나 둘까 옹망(顒望)[22]하여 하며, 일변 득남할지라도 아들의 낙을 보지 못할까 서운하여 하나, 진사 부인 최씨로 더불어 과연 그 달부터 태기(胎氣) 있으매 진사 생각하되 생남함을 바라고 바라더니,

슬프고, 슬프도다. 조물(造物)이 시기하고 귀신이 작희(作戲)[23]함인지 잉태(孕胎) 육 삭(朔)에 진사 우연 득병(得病)하여 병세 침중(沈重)[24]하니 백약(百藥)이 무효일 새, 진사 살지 못할 줄 알고 부인 최씨를 청하여 집수

1) 듣기를 마침.
2) 미덥지 아니함.
3) 보잘것없는 한 낱.
4)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5)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6) 역에서 부역하던 장정.
7) 어떤 일을 며칠 안으로 이룸
8) 부부.
9) 고향에 있는 본집
10) 고달프고 피곤함.
11) 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
12) 깊이 잠들지도 깨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13) 평범.
14)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다섯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
15) 티끌 세상.
16)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남.
17) 뒷날.
18) 타고난 수명.
19) 닭 울음소리.
20) 한바탕의 봄날의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일.
21) 꿈에 나타난 일.
22) 크게 우러러 바람.
23) 남의 일에 훼방을 놓음.
24) 위중함.

(執手)[1] 체읍[2](涕泣)하며 유어(遺語)[3] 왈,

"지금 부인이 잉태하였음에 몽사를 생각하면 응당 귀자를 낳을 것이나, 영귀함과 재미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러하려니와 옛적 현인(賢人) 군자(君子)의 교육하던 법을 효칙(效則)[4]하여 슬하에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해복(解腹)[5]하는 것도 못 보고 속절없이 황천객(黃泉客)[6]이 되겠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사람 수요장단(壽夭長短)[7]은 천명(天命)이온즉 차장래(嗟將來)[8]하오. 그러나 나 죽은 후라도 부인은 삼가 조심하여 사시다가, 만일 여자를 낳으시면 할 말 없거니와, 요행히 남자를 낳으시거든 학문이나 잘 가르쳐서 문호를 빛나게 하고 요조숙녀를 광구(廣求)[9]하여 배필을 정하여 재미를 보옵소서."

말을 마침에 명(命)이 진(盡)[10]하니 일가(一家)가 망극(罔極)[11]하여 곡성(哭聲)이 진동하는지라.

이때 부인이 또한 기절하거늘. 비복(婢僕) 등이 구하여 겨우 인사(人事)[12]를 차리시매 관곽(棺槨)[13]을 갖추어 예로써 선영하(先塋下)[14]에 안장(安葬)하고 조석(朝夕)으로 애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세월이 유수(流水) 같아서 잉태한 지 십사삭이 되매, 일일은 오색(五色) 채운(彩雲)[15]이 집을 둘러 향기 만실(滿室)[16]일새, 부인이 좋은 징조 있음을 보고 만심(滿心) 환희(歡喜)하여 옥로(玉爐)에 향을 사르며 소학(小學) 내직(內職) 편을 열람(閱覽)하다가 혼미(昏迷) 중, 일개 옥동(玉童)을 탄생하니 용모장대하며 표범이 머리와 용의 얼굴이요, 곰의 등이며 잔나비[17] 팔이요, 이리의 허리며 겸하여 소리가 뇌성(雷聲) 같으매 사람이 이목(耳目)을 놀래는지라.

최씨 부인이 슬픈 중에 대희(大喜)하며 기쁜 중에 비감(悲感)하여 탄식 왈,

'슬프다, 네 부친이 살아 계셨다면 오직 즐거워하셨을 게야.'

하며, 못내 설워하여 왈,

'아름다운 배필(配匹)을 택하여 봉황의 짝을 지어 녹수(綠樹)에 노는 양을 보고자 하더니, 슬프고 가련하도다. 고진감래(苦盡甘來)[18]요, 흥진비래(興盡悲來)[19]는 천연공리(天然公理)[20]라.

또한, 부인이 우연 득병(得病)하여 병세 가장 위중하매, 의약(醫藥)을 쓴들 일분(一分)[21]이나 효험이 있으리오. 병의 증세 점점 위중하여 가니, 부인이 살지 못할 줄 알고 유복(遺腹)의 손을 잡고 낯을 대며 애통 왈,

"슬프다 유복아. 전생(前生)에 무슨 죄로 차생(此生)에 모자(母子) 되어 나서 어미 복중(腹中)[22]을 떠난 지 불과 오 세에 모자 이별이 무슨 일인고. 네 부친이 살아 계시거나, 우리 집의 내외간 친척이 있었던들 설움이 그다지 아니 되련마는, 내 몸이 죽은 후에 고독 단신(單身)[23]된 어린 것이 어디 가 의탁하며 누구를 믿고 살리오."

---

1) 손을 잡음.
2) 눈물을 흘리며 슬피 옮.
3) 말을 남김.
4) 본받아 법으로 삼음.
5) 해산.
6) 죽은 사람.
7) 오래 삶과 일찍 죽음.
8) 장래를 탄식함.
9) 널리 구함.
10) 목숨이 다함.
11) 한이 없는 슬픔.
12) 사람이 하는 일.
13) 관, 장례를 의미함.
14) 선산 아래.
15) 여러 가지 빛깔로 아롱진 고운 구름.
16) 방 안에 가득함.
17) 원숭이.
18)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
19)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옴.
20) 자연스러운 이치.
21) 아주 적은 양.
22) 뱃속.
23) 홀몸.

하며,

"네 신세를 생각하면 목이 메고 눈이 컴컴하며 정신이 아득하여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도다. 너를 낳아 기를 적에 마른자리에 너를 뉘이고 젖은 자리에는 내가 누우며 일시도 못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울음소리를 들으면 신혼(神魂)[1]이 산란(散亂)하며 주야로 떠나지 못하고, 불면 날까 쥐면 깨질까 하며, 금자동(金子童)아, 은자동(銀子童)아[2], 만첩청산(萬疊靑山) 옥포동(玉布童)[3]아. 너를 금지옥엽(金枝玉葉)[4]으로 역(力)게[5] 양육(養育)하였더니, 네 팔자 기박(奇薄)[6]하여 이 지경을 당하니, 사고무친(四顧無親)[7]한 어린 아이 촌촌걸식(村村乞食)[8]하여 유리개걸(流離丐乞)[9]할 것이니, 얻어먹는 거러지[10]를 뉘 알아서 불쌍히 여기리오. 내 혼백이라도 지하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하며, 시비(侍婢) 춘매를 불러 유탁(遺託)[11]하여 왈,

"너의 충절(忠節)를 이미 알았거니와, 나 죽은 후라도 유복 아기를 잘 보호하여 길러서 신씨(申氏) 후사(後嗣)[12]를 잇게 하면, 구천(九泉)[13]에 돌아가 만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것이니, 부디 내 유탁을 깊이 생각하라."

하니, 춘매 통곡하며 여쭈오되,

"복원(伏願)[14] 부인께옵서는 심려 말으시고 귀체(貴體)[15] 안보(安保)하옵소서. 만일 불행하실지라도 소비(小婢) 죽기로써 공자(公子)[16]를 극진 보호하리이다."

하니, 최 부인이 유복의 손을 잡고 잠깐 흐느끼다가 인하여 명(命)이 진(盡)[17]하매, 남노여비(男奴女婢)[18] 등이 망극하여 통곡할새, 유복이 더욱 방성대곡(放聲大哭)[19]하여 기절하였다가 모친의 젖을 어루만지며 애통하여 왈,

"어머니는 어찌 나를 보고 반기실 줄 모르나이까."

하며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때 춘매 더욱 망극하여 유복을 안고 달래어 왈,

"공자는 울지 말고 나의 등에 업히소서."

하며,

"부인께옵서 잠을 깨시면 어찌 사랑 아니하시리까?"

하며, 유복을 업고 제 처소로 돌아와 극진 위로하며, 노복(奴僕)으로 하여금 금의(錦衣) 금관(錦冠)[20]을 차려 선령(先靈)[21]에 합폄(合窆)[22]한 후에, 유복을 진심탈력(盡心脫力)[23]으로 사랑하여 보호하며 조석(朝夕) 제전(祭奠)[24]을 정성껏 봉행(奉行)[25]하니 근동(近洞) 인리(鄰里)[26] 사람 처 놓고 칭찬 아니하는 이 없더라.

그러나 부인 돌아간 후로 주장무인(主張無人)[27]하매 노복 등이 거취를 임의로 하여 가

1) 정신과 넋.
2) 금과 같고 은과 같은 아이.
3) 깊은 산속에 옥처럼 맑은 폭포와 같은 아이.
4) 금 가지와 옥 이파리처럼 귀한 자손.
5) 힘들게.
6) 팔자, 운수 따위가 사납고 복이 없음.
7)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
8) 마을마다 빌어먹음.
9)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음.
10) 거지. 거렁뱅이.
11) 죽은 사람이 남긴 부탁.
12) 대를 잇는 자식.
13)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간다는 곳.
14) 웃어른에게 엎드려 공손히 원함.
15) 상대자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16)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아들.
17) 죽게 되니
18) 남녀 노비.
19) 큰소리로 곡을 함.
20) 비단옷과 비단 모자.
21) 선조의 영혼.
22) 합장(合葬).
23) 마음이 다하고 힘이 빠지도록
24)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5) 웃어른이 시키는 대로 좇아 행함.
26) 가까운 이웃.

정이 문란하매, 가산(家産)이 자연 탕패(蕩敗)[1]하니 그 참혹함을 어찌 성언(聲明)[2]하리오.

부인의 삼 년 초토(草土)[3]를 다 받들도록 춘매 정성으로 유복을 공경 보호하며 글을 힘써 가르치더니, 애재(哀哉)라 통재(痛哉)[4]로다. 춘매 또한 병을 얻어 기지사경(幾至死境)[5]에 당한지라.

유복이 손을 잡고 탄왈(嘆曰),

"세상에 도망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명이라. 첩이 또한 죽게 되었으니, 명지수요장단(命之壽夭長短)[6]을 어찌하오리까? 이왕에는 공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춘매의 염려더니, 지금은 공자 장성하여 비전(比前)[7]하오면 염려 적으나, 다만 성취(成娶)[8]함을 보지 못하고 이런 중병을 얻었으니, 죽어 지하에 돌아가도 부인 뵈올 낯이 없을지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첩이 죽은 후면 공자의 의탁할 곳이 없사오니, 부디 귀체를 안보하소서."

하며, 다수(多數)한 문적(文蹟)[9]을 내어 놓고 동리 사람을 청하여 부탁하여 왈,

"다른 사람은 이 문적을 가져가도 무익(無益)할 것이오. 우리 공자는 나이 유치(幼稚)[10]하여 간수할 수 없으니 동리에서 괴로웁다 마시고 이 문적을 대동사고(大洞私庫)[11]에 잘 장치(藏置)[12]하였다가, 일후 공자에게 도로 환송(還送)[13]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중(其中)[14]에 호적(戶籍)과 세계(世系)[15] 한 장을 내어 공자를 주며 왈,

"이는 양반의 근본이라. 조선(祖先) 세계오니, 잘 간수하였다가 후일 조상의 근본을 잃지 마옵소서."

하며 말을 마치고 명(命)이 진(盡)하니 유복의 참혹한 정경을 어찌 입으로 형언(形言)하리오.

유복이 모친의 상을 당한 후에 춘매의 지극한 정성을 힘입어 모친의 정을 잊었더니 불의(不意) 몽매(夢寐)[16]에 춘매 또한 죽으매 슬프기 비할 데 없어 애통하여 왈,

"모친 하세(下世)[17]할 때보다 더 섧다."

하더라.

이때 유복의 나이 겨우 초(初)[18] 구 세라. 동리 사람을 사용하여 선산 하(下)에 장사 지내고, 의탁할 곳이 없어 집을 떠나 모친 묘소에 나아가 방성대곡하니 청천백일(靑天白日)[19]이 무광(無光)[20]하고 가는 구름이 위로하여 머무는 듯하고, 산중 두견새는 슬피 울어 사람의 수심(愁心)을 돕는 듯하더라.

유복이 모친 묘소를 하직하고 정처 없이 길을 행할 새, 춘매 주던 호적과 세계를 옷깃 속에 간수하고, 마을을 찾아 밥을 빌어먹고 날이 저물면 방앗간에 들어가 밤을 지내고, 매일 도문걸식(到門乞食)[21]하니 그 참혹한 경상(景狀)[22]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날이 점점 갈수록 기갈(飢渴)[23]이 자심(滋

---

27) 주장하여 맡는 사람이 없음.
1) 탕진함.
2) 말로 나타냄.
3)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喪中)임을 이르는 말.
4) 슬프고 아프구나.
5)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름.
6) 목숨의 길고 짧음.
7) 앞선 것이나 앞선 시기와 비교함.
8) 장가들어 아내를 맞음.
9) 문서와 장부.
10) 나이가 어림.
11) 마을의 곳간.
12) 간직함.
13) 돌려보냄.
14) 그 가운데.
15)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
16) 잠을 자면서 꿈을 꿈.
17) 세상을 버림.
18) 갓.
19) 맑게 갠 대낮.
20) 빛이 없음.
21) 문 앞에서 빌어먹음.
22) 모습.
23)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름.

甚)[1]하여 촌보(寸步)[2]를 행치 못하여 할 수 없어 남의 소를 먹여주고 잔명(殘命)[3]을 보전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一日)은 목동과 함께 초장(草場)[4]에 나가 소를 먹이더니, 유복이 홀연 강개(慷慨)[5]한 마음을 발하여 울적함을 억제치 못하여 장탄(長歎)으로 한 노래를 지어 희롱하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옛말에 성인(聖人)이 나심에 기린(麒麟)[6]이 나고, 현인(賢人)이 나매 봉황이 나고, 장사(壯士)가 나매 용마(龍馬)[7] 난다더니, 고금 물론하고 영웅호걸이 불우시(不遇時)[8]함은 무슨 일인고. 슬프고 슬프다. 창창(蒼蒼)[9]한 저 하늘은 아비처럼 높아 있고, 회회(恢恢)[10]한 땅은 어미처럼 넓어 있네. 어찌하여 이내 몸은 복중(腹中) 유자(遺子) 되었으니, 아비 도(道)를 어찌 알까. 호천망극(昊天罔極[11]) 내 아니며, 마찬가지로 조실지모(早失之母)[12]하였으니, 어미 도를 어찌 알까. 무호무시(無呼無視)[13] 내 아닌가. 광활한 천지 간에 혈혈단신(孑孑單身)[14] 이내 몸이 태창제미(太倉稊米)[15] 아득하고, 창해일속(滄海一粟)[16] 묘연(渺然)[17]하다.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은왕(殷王) 성탕(成湯) 때 이윤(伊尹)은 신야(莘野)에 밭을 갈고[18], 고종 때 부열(傅說)은 부암(傅巖)에 담을 쌓고[19], 문왕(文王) 때 강태공(姜太公)은 위수변(渭水邊)에 고기 낚고[20],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은 표모(漂母)에게 밥을 빌고[21], 당태종(唐太宗) 때 울지경덕(蔚遲敬德)은 야점에 고용되어 천신만고하다가 하늘 운수 돌아와서 성군(聖君) 현신(賢臣)이 서로 만나 억조창생(億兆蒼生)[22] 건져내고 영귀(榮貴)함이 지극하였는데[23], 슬프다. 이내 몸은 바람에 쑥대같이 물결에 뜬 부평초(浮萍草)[24]라. 만리전전(萬里轉轉)[25]이 망연(茫然)[26]하다. 하늘이 영웅 낼 때는 신고기지(辛苦旣知)[27] 하시는 게라. 옛사람 생각하여 만고충신(萬古忠臣)[28] 나아가면 하늘 운수 돌아와서 요순우탕(堯舜禹湯)[29] 다시 만나 천하 창생(蒼生) 건져내고 금의환향(錦衣還鄕)[30] 후 희호세계(熙皞世界)[31] 세계 다시 보

1) 점점 더 심하게 됨.
2) 몇 발짝 안 되는 걸음.
3) 얼마 남지 않은 쇠잔한 목숨.
4) 풀을 베어서 쓰는 빈 땅.
5)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복받치어 원통하고 슬픔.
6) 성인(聖人)이 세상에 나올 전조로 나타난다는 상상의 상서로운 동물.
7) 매우 잘 달리는 훌륭한 말.
8) 때를 만나지 못함.
9) 매우 푸름.
10) 넓고 넓다.
11) 어버이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처럼 다함이 없음.
12) 어려서 어머니를 잃음.
13) 부를 이 없고 볼 이 없음.
14)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홀몸.
15) 큰 곡식 창고 안에 있는 쭉정이 피처럼 아주 큰 물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물건을 이르는 말.
16) 넓고 큰 바다 가운데 한 알의 좁쌀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속의 극히 하찮고 작은 물건을 이르는 말.
17) 아득함.
18) 중국 은(殷)나라 왕 성탕(成湯)이 신(莘) 땅에서 이윤(伊尹)을 초빙하여 걸(桀)을 토벌한 일.
19) 중국 은(殷)나라 왕인 무정(武丁,고종)이 꿈에 본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숨어 전국에 수소문하여 부열을 찾아 제상으로 삼은 일.
20) 중국 주(周)나라 문왕(姬昌)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의 북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이 만나 스승으로 모신 일.
21) 중국 진(秦)나라 때의 대장군 한신은 회음현에서 가난하게 지내면서 표모(漂母)에게 밥을 얻어 먹고 마을 부랑자들 가랑이를 기어 다녔다는 일.
22) 수많은 백성.
23) 울지경덕은 본래 돌궐 유무주(야점)의 사람이었는데, 이세민(훗날 당태종)에게 투항하여 이세민이 황제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당 조정에서 큰 공을 세움.
24) 개구리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
25) 이리저리 돌아다님.
26) 넓고 멀어서 아득함.
27) 어려움을 이미 앎.
28) 오랜 세월 동안 기억에 남을,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신하.
29)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통치자들로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의 우임금, 은나라의 탕왕.
30)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
31) 백성이 화락하고 나라가 태평한 세상.

세. 여보게 초동(樵童)[1]들아. 내 노래 네 알소냐? 화답(和答)하는 사람 없기로 그만저만 그치노라."

노래 그치고 일어나 원산(遠山) 바라보니 나는 새는 수풀로 오고 푸른 연기는 원촌(遠村)에 일어나더라.

이때 유복이 더욱 비감하여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거늘, 목동들이 듣기를 다하고 수상히 여기더라.

이날 유복이 소를 이끌고 돌아와 종시(終是)[2] 울적한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헤아리되,

"남의 고용(雇傭)이 되어 천대(賤待)가 자심滋甚)하니, 장부 어찌 남의 휘하(麾下)에 속절없이 초목(草木)과 같이 썩으리오. 차라리 사해팔방(四海八方)[3]으로 주류(駐留)[4]하여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완상함이 옳도다.'

하고 주인께 하직하고 길을 떠나 전전걸식(轉轉乞食)[5]하여 가는지라.

각설(却說)[6], 이때 경상도 상주읍에 다다르니 이곳이 역(力)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명은 이섬이라.

본래 향인(鄕人)[7]의 자손으로 근고(勤苦)있어 호장(戶長)[8]을 하였더니 일찍 취처(娶妻)[9]하여 남자는 없고 다만 여식(女息) 삼형제를 두었으니, 장녀의 명은 경옥이요, 차녀의 명은 경란이요, 삼녀의 명은 경패라.

경패를 잉태할 때에 천상(天上)에서 선관이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월궁(月宮) 선녀로서 옥황상제께 득죄(得罪)[10]하고, 인간에 적강(謫降)하였기로 전세(前世)에 연분을 찾아와 댁에 의탁하고 왔사오니, 십삼 년만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고 품에 들거늘 깨어나니 남가일몽(南柯一夢)[11]이라.

이상히 여겼더니, 그 후 십 삭 만에 일개 옥녀(玉女)[12]를 낳으니, 용모 아름답고 범인(凡人)[13]과 다른지라.

십 세에 이르러는 월태화용(月態花容)[14]이 요요정정(夭夭貞靜)[15]하여 모란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하매, 호장 부처 못내 사랑하며 어진 배필(配匹)을 얻어 슬하에 재미를 볼까 하더라.

이때 유복이 전전걸식하여 두루 다니며 산천을 완상하다가, 경상도에 다다라 낙동강을 건너 상주성에 이르러 물색을 구경하며 곤곤(困困)[16]히 다니더라.

이때는 춘삼월 망간이라.

홍살문(紅箭門)[17] 거리에서 이슥하도록 두루 다니다가 마침 종각 앞에서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픔으로 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기탄(忌憚)[18] 없이 돌을 베개하고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이때 상주 목사(牧使) 덕이 있는 사람이라. 마침 창고(倉庫)에 행차하여 환자(還子)[19]를 분급(分給)[20]하고 돌아올 새, 수배(隨陪)[21] 사령(使令)[22]이 유복의 횡와(橫臥)[23]함을 호령

1) 땔나무를 하는 아이.
2) 끝내.
3) 온 세상.
4) 어떤 곳에 한때 머무름.
5)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음.
6) 화제를 돌림.
7) 시골 사람.
8) 호방(戶房). 지방 관아에 속한 육방(六房) 가운데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
9) 아내를 얻음.
10) 죄를 얻음.
11)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12) 남의 딸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13) 평범한 사람.
14) 달과 꽃과 같은 모습.
15) 나이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마음이 올바르고 침착함.
16) 몹시 곤란하거나 빈곤함.
17) 붉은 칠을 한 문.
18) 어렵게 여기어 꺼림.
19)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다시 받아들이던 일.
20) 각각의 몫에 따라 나누어 줌.
21) 수령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구실아치.

하며 능장(稜杖)[1]으로 찔러 깨우니, 유복이 잠을 깨어 일어 앉으며 아무런 줄 모르고 울기만 하거늘, 목사 잠시 살펴보니 아이의 의복이 남루(襤褸)하여 몸을 감추지 못하고 머리 터럭이 흩어져 낯을 가렸는지라. 눈물 줄이 매쳤으니 그 추비(醜鄙)[2]한 것을 바로 보지 못할러라.

그런 가운데 은은한 골격과 늠름한 풍채는 때 속에 비취거늘, 목사 동헌(東軒)에 좌정(坐定)하시고 그 아이를 불러오라 하시니, 사령이 즉시 유복을 불러왔거늘, 목사 유복을 대상(臺上)[3]에 올려 앉히고 문(問) 왈,

"네 거주(居住)와 성명은 무엇이며, 부친의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었느냐?"

유복이 재배(再拜)[4]하여 울며 왈,

"천생(賤生)[5]의 거주(居住)는 무주 고비촌이옵고, 부친의 함자(銜字)는 신 진사 우영이옵고, 생의 이름은 유복이옵고, 나이는 십사 세로소이다."

목사 우(又)[6] 문(問) 왈,

"그런 양반의 자손으로 어찌하여 유리개걸(流離丐乞)하느뇨?"

유복이 여쭈오되,

"사또께옵서 지극히 하문(下問)하시니 비록 미천하오나, 어찌 진적(陳迹)[7]을 은휘(隱諱)[8]하오리까? 천생은 과연 장절공의 구세손이옵고, 오대 진사 신우영의 아들이옵더니, 부친는 천생을 잉태한 지 육 삭(朔) 만에 하세(下世)하옵고, 모친은 천생 낳은 지 오 년 만에 기세(棄世)[9]하옵시니, 혈혈단신으로 의탁할 곳이 없사와 시비 춘매에게 의탁하였사옵더니 불행하여 춘매 또한 죽사오니, 가산이 자연 탕패(蕩敗)하매 생계 난처하옵기로 전전걸식하나이다."

하고 행장에서 호적 한 장을 내어 드리니, 목사 보시고 탄식 왈,

"네 얼굴을 본즉 상인(常人)[10]의 자손 아닌 줄 알았거니와 장절공의 자손인 줄 어찌 알았으리오. 옛적부터 현인과 군자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일시 고생은 장부의 상사(常事)[11]이거니와 참 불쌍하도다."

하고, 즉시 이방(吏房)[12]을 불러 왈,

"너희 관속(官屬)[13] 중에 어진 여식 둔 이가 있느냐?"

이방이 여쭈오되,

"지금 호장으로 있는 이섬이 여식 삼 형제를 두었으니 재질(才質)과 용모 과인하나이다."

하거늘, 목사 대희하여 이섬을 불러다 분부하여 왈,

"내 저 아이를 보니 장내에 귀히 될 아이라. 들으니 네 여식 있다 하니, 네 저 아이를 데려가 사위를 삼으면, 장래에 저 아이 덕을 입으리라."

하거늘, 이섬이 뜻밖에 이 분부를 듣고, 대경(大驚)[14]하여 눈을 들어 그 아이를 살펴보니 흉악하고 망측하여 바로 보지 못할러라.

눈을 찡그리고 여쭈오되,

"소인(小人)이 아무리 하천(下賤)한 상놈인들 저 같은 거렁뱅이를 사위 삼사오리까? 죽을지언정 이 분부는 봉행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목사 대로(大努)하여 꾸짖어 왈,

"네 일읍(一邑)에 호장이 되어 어찌 저토록 무식한가. 자고로 영웅호걸이 초년 곤궁(困

---

22)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23) 가로로 또는 모로 누움.
1) 밤에 순찰을 돌 때 쓰던 기구
2) 누추하고 비루함.
3) 높은 대의 위.
4) 두 번 절함.
5) 주로 남자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6) 다시
7) 지난날의 묵은 자취.
8) 꺼리어 감추거나 숨김.
9) 웃어른이 돌아가심.
10) 상사람.
11) 일상사.
12) 인사·비서 따위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의 아전
13) 지방 관아의 아전과 하인.
14) 크게 놀람.

窮) 아니 한 사람이 몇이 되느냐? 어찌 그런 말을 하리오. 저 아이가 비록 의탁할 곳이 없어 유리개걸하되 명현(名賢)의 후손이요, 오대 진사 자손이라. 만일 의지할 곳이 있을 양이면 네게 혼인을 바라리오. 내가 저 아이가 의탁할 곳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분부하였거든, 네 종시 깨닫지 못하니 상놈일시 분명하다. 금일은 저 아이를 천히 여기나 타일(他日)에 반드시 우러러 볼 것이니 잔말 말고 데려다가 사위를 삼으라."

호장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여 아뢰오되,

"혼인은 인륜대사(人倫大事)오니 나아가 가족을 모으고 결단(決斷)하리이다."

하니, 목사 칭탁(稱託)[1]함을 더욱 분히 여기어 고성(高聲) 대로하여 왈,

"네가 가장(家長)이 되어 가내지사(家內之事)[2]를 임의로 못 하고 뉘에게 물어본다 하니, 저 아이를 종시 천히 알 것이니와, 백옥(白玉)이 지토(地土)에 묻혔으니 뉘 알리오. 네 잔말 말고 바삐 데려다가 사위를 삼으라. 만일 거역하면 장하(杖下)[3]에 죽기를 결코 면하지 못하리라."

하고 즉시 사령을 명하여 유복을 데려다 맡기라 하니, 호장이 하릴없어[4] 유복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 절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도 내설(內說)[5]치 못하고 두 손으로 문턱만 두드리며 포원지심(抱冤之心)[6]을 억제치 못하거늘, 호장의 처가 이 거동을 보고 대경하여 붙들고 문 왈,

"무슨 변(變)이 있기에 관가(官家)에서 나오며 이토록 하시나이까?"

호장이 마지 못하여 이르되,

"사또께서 나를 불러다가 저 거지로 사위를 삼으라 하시며, 만일 거역하면 우리 가족을 다 잡아다가 죽이리라 하시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호장의 처가 이 말 듣고 상(相)을 찡그리고 고개를 외로 꼬며 유복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흉악하고 망측하다. 저 같은 흉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 더러운 말을 다시 마옵소서."

호장이 더욱 소리를 크게 하여

"애달프고 가통(可痛)[7]하다. 흉악한 인물이 세상에 나와서 내 집을 망하게 하는 도다."

하고, 처를 불러 왈,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불러 저것을 보이고 취맥(取脈)[8]이나 하여 봅시다."

즉시 딸 삼 형제를 부르니, 삼 형제 부명(父命)을 듣고 일시에 나오거늘, 호장이 저 거지를 가리키며 목사의 분부를 절절(節節)[9]히 이르니, 경옥과 경란이 이 말 듣고 유복을 바라보다가 콧살을 찡그리며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자식이 밉거든 약을 먹여 죽이옵소서. 저러한 인물을 우리 배(輩)[10] 같은 몸에 비하나이까? 영천수(潁川水)[11]가 가까우면 귀를 씻고자 하나이다. 금시로 집안이 망할지언정 거렁뱅이를 근처에도 두지 말고 멀리 내어 쫓으옵소서."

호장 부처 이 말 듣고 대희하여 두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왈,

"네 말이 옳다."

하고 못내 칭찬하더니, 경패 곁에 모셨다가 변색(變色)[12] 대(對) 왈,

---

1) 어떠하다고 핑계를 댐.
2) 집안의 일.
3) 장형(杖刑)을 행하는 그 자리.
4) 어쩔 수 없어
5) 속 생각을 말하지 못함.
6) 원한을 품는 마음.
7) 통탄할 만함.
8) 동정을 더듬어 살핌.
9) 매우 간절히.
10) 무리
11) 요(堯)임금이 보위를 물려주려 하자, 허유(許由)가 귀가 더럽혀졌다고 귀를 씻은 물.
12) 화가 나거나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짐.

"금일은 형님의 말이 가장 무식하도다. 천지간에 오륜(五倫)이 귀중한 중 부자(父子) 최중(最重)[1]하거늘, 이제 부모가 사경에 이르렀는데 자식이 되어 제 몸만 생각하고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이러하므로 옛날 창공(倉公)의 순우의(淳于意)라 하는 사람도 실화(失和)[2]된 죄를 당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 딸 제영(緹縈)이 글을 올려 제 몸을 관비(官婢)[3] 삼고 그 아비 죄를 대속(代贖)[4]하였더니, 한나라 문제(文帝)께옵서 기특이 여기사 제영을 사(赦)하여 주셨으니[5], 우리도 이제 부모를 위하자면 거지 아니라 반신불수(半身不遂) 병신인들 어찌 사양하리오. 저 아이의 용모를 보니 비범(非凡)[6]하기로 비할 데 없으며, 상이 비록 때 속에 묻혔으나 반드시 후일에 귀히 될 사람이라. 어찌 일시 빈천(貧賤)한 것을 흉보며 어찌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리오."

경옥, 경란이 이 말 듣고 대로하여 왈,

"네가 우리를 책망하는 체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네가 저 거러지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도다."

하니, 경패 대 왈,

"무슨 어려울 것이 있으리오. 제일은 부모를 위하려 함이요, 둘째는 몸을 위함이요, 저 거러지인들 한 때가 없으리오."

경옥, 경란이 이 말을 듣고 왈,

"이 더러운 년아. 저 거지에게 눈이 어두워 음양(陰陽)[7]을 탐하니 저 거지를 데리고 나아가라."

하며 구박이 자심하는지라. 또한 호장 부처가 대로하여 경패를 꾸짖어 왈,

"너희 삼 형제 중 너를 그 중 사랑하였더니, 능지(陵遲)하고 처참(處斬)[8]할 년아. 음란(淫亂)한 마음으로 저 거렁뱅이를 생각하여 부모를 염려하는 체하고 사람을 빙자(憑藉)[9]하나, 요망(妖妄)하고 방정맞은 년아. 저 거지를 데리고 너 갈 때로 가거라."

하며 손으로 등을 밀어 문밖에 내쫓으니, 경패 하릴없어 유복과 함께 정처(定處) 없이 나오니 그 참혹한 경(景)[10]을 어찌 측량(測量)[11]하리오.

소저(小姐)가 규중처녀로 문밖을 나지 못하다가 일조(一朝)에 의식을 다 버리고 거지되니 어찌 비감치 아니하리오.

이때에 소저의 연(年)[12]이 십삼 세라. 유복이 머리에 이가 많은 고로, 이가 주루루 기어 나오는지라. 소저가 이가 기어 나옴을 보고 동리 사람의 집에 들어가 두 개 빗을 얻어다가 냇가에 앉히고 머리를 감아 빗기며 수다(數多)[13]한 이를 잡아 주기고 머리를 빗기며 다정히 말하더니, 해가 서산에 달렸거늘 소저가 저녁연기를 좇아 밥을 빌러 갈 새, 유복이 소저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가 거적을 얻어다 깔고 둘이 마주 누워 팔을 베고 동침(同寢)하니 신세 가긍(可矜)[14]한지라.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소저도 여중(女中) 군자라. 고어(古語)에 하였으되, 흥진비래(興盡悲來)요,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니,

---

1) 가장 귀하고 중요함.
2) 사이가 서로 좋지 않게 됨.
3) 관가에서 부리던 여자 종.
4)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함.
5) 순우리는 중국 한나라 때의 사람이고 제영은 그의 다섯째 딸. 순우리는 처음에는 정부의 창고를 지키는 이였으나 의술을 공부해 의원이 되었는데, 다른 의원들이 모함하여 육형(肉刑)의 벌을 받게 되자, 제영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을 관비로 삼고 아비를 풀어달라고 하여, 황제가 효성에 감동하여 순우리를 풀어 주었다고 함.
6) 매우 뛰어남.
7) 남녀의 성(性)에 관한 이치.
8) 대역죄를 지은 죄인을 머리, 몸뚱이, 팔, 다리를 토막 쳐서 죽이는 극형.
9)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움.
10) 모습.
11) 생각해 헤아림.
12) 나이.
13) 수많은.
14) 불쌍하고 가엾다.

하느님이 어찌 어진 사람을 한없이 곤궁(困窮)케 하시리오.

소저 또한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관옥(冠玉)[1] 같은 용모를 상대하니 정이 점점 가깝더라. 그러므로 고생함을 어찌 한탄하리오.

그 이튿날 밥을 빌어다 먹고 소저가 유복에게 왈,

"슬프다. 천지만물지중(天地萬物之中)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라 하였거든, 사람만 못한 짐승도 구멍[2] 있거늘 우리는 어찌하여 의지가 없는고. 생각하면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오. 저 건너 북편 돌각정이 임자가 없는 것이니 돌각정을 헐고 움이나 한 칸 묻어 봅시다."

동리(洞里)로 재목과 이엉을 구걸할 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다투어 주거늘, 소저가 유복으로 더불어 수운(輸運)[3]하여 움을 묻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빌어다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매, 고루거각(高樓巨閣)[4]에 옥식(玉食)[5]을 얻은 것 같이 여기더라.

그러나 깊고 깊은 정이야 어찌 비할 데 있으리오. 일전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근처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형(情形)[6]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어여삐 여겨 음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며, 호장 부처를 욕 아니하는 이 없더라.

유복이 남의 집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기갈은 면하나 의복이 없으매 의표(儀表)[7]가 가장 추비(麤鄙)[8]하더라.

소저가 일일은 유복에게 왈,

"옛글에 일렀으되, 장부 세상에 처함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문호(門戶)를 혁혁(赫赫)[9]하게 하며 조선향화(祖先香火)[10]를 빛나게 하라 하였으니 문필(文筆)를 배우지 못하면 공명(功名)을 어찌 바라리오. 이러므로 옛사람도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글 읽어 성공하여 천추만년(千秋萬年)[11]를 유전(遺傳)하여 이름이 기린각(麒麟閣)[12]에 영정(影幀)[13]하여 일후(日後)에 유전하는 일이 장부에 당당한 일이오. 무식한 가운데 영웅호걸이 있단 말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유복이 소저의 말을 듣고 감응하여 왈,

"내 어려서 글자나 읽었으니 어찌 그런 마음이 없으리오마는 글을 배우려 한들 어디가 배우며, 또한 책 한 권도 없으니 일로 염려요, 장차 저 외로운 몸이 뉘를 의지하리오."

하거늘, 낭자 대 왈,

"그는 염려 마옵소서. 나는 혼자라도 이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양식을 당할 것이매 아무 염려 마옵소서. 내가 듣사오니 뒷절에 있는 원강대사라 하는 중이 도승(道僧)이옵고 또한 천하 문장이라 하니, 거기 가서 간절히 말씀하면 글을 가르쳐 줄 듯하오니 올라가 보옵소서."

하고 바로 나아가 책 한 권을 얻어다가 주며 왈,

"공자의 나이 십삼 세라. 팔 년을 공부하여 이십이 되거든 내려와 반기려니와 만일 그 전에 내려오면 결단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리다."

하고 가기를 재촉하거늘, 유복이 낭자의 정성을 위하여 책을 옆에 끼고 절에 올라가서

---

1)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한 말.
2) 지낼 만한 곳.
3) 물건을 운반하는 일.
4) 높고 큰 다락집.
5) 맛있는 음식.
6) 딱한 형편.
7) 차린 모습.
8) 거칠고 더러움.
9) 공로나 업적 따위가 뚜렷함.
10) 조상 제사.
11) 아주 긴 세월.
12)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가 장안의 궁중에 세운 전각으로 공신 11명의 초상을 그려 걸었다고 함.
13)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

대사를 보고자 하여 초지정(草地亭)에 이르오매 대사 유복을 보고 놀라 위로 왈,

"십삼 년 전에 규성(奎星)이 무주 땅에 떨어졌기로 일정 영웅이 난 줄은 알았으나, 다시 광명이 없기로 분명한 곤란이 있음을 짐작하였더니 금일에야 만나도다."

위로하여 왈,

"장부의 초년(初年) 고생은 영웅호걸의 사업재료가 되는 법이니, 사람이 고초(苦楚)를 지내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리로다."

하고, 그날부터 글을 가르칠 새, 유복은 본래 천상 선동이라 한 자를 가르치면 백 자를 능통하니 선생이 기이 여겨 칭찬 왈,

"이제는 글에 당하여서는 더 가르칠 것이 없는지라. 문무(文武) 겸비(兼備)함은 영웅의 재료라. 대장부 어찌 성훈(聖訓)[1]과 역사만 배우리오."

다시 사마양저(司馬穰苴)[2]의 군율(軍律)[3]이며 손오병서(孫吳兵書)[4]를 가르쳐 육도삼략(六韜三略)[5]과 구궁팔쾌(九宮八卦)[6] 버리는 법을 가르치며 창검 쓰는 법을 가르치매, 검술이 비상함이 당시 동서양에 무쌍(無雙)[7]하고 무등(無等)[8]한 영웅호걸의 재목이 되었더라.

이때 경패 남의 고용도 하여 주어 찬밥이며 쌀되를 얻어다가 찬밥은 제가 먹고 주소(晝宵)[9]로 품팔기를 일삼으매 곤궁함은 비하여 측량하지 못할러라.

각설, 이때 호장 부처 딸들이 과년(過年)[10]하여 가매 사위를 구하되, 호가(豪家)[11] 자제를 구하니 맏사위는 류형의 맏아들 소현이요 둘째 사위는 김형의 아들 평이매 두 사람일러라.

그 사람이 요망(妖妄) 방탕(放蕩)하여 호주(好酒) 탐색(耽色)으로 세월을 보내되, 호장 부처 두 사위를 세상에 없는 듯이 알고 극히 사랑하며 경옥과 경란이 행여나 제 서방의 눈에 날까 두려워하여 연연(娟娟)[12]한 영색(令色)[13]으로 마음을 아름다이 하여 아리따운 교태를 부려 세월을 지내더라.

각설 신 공자(申公子) 팔 년 공부를 마쳤는지라.

신 공자 사문(寺門)[14]에 내려와 이 낭자를 찾아 이성지합(二姓之合)[15]에 길례(吉禮)[16]를 마치고 그날부터 금슬지락(琴瑟之樂)[17]이 생기어 여러 해 그리던 회포를 담화(談話)하며 공부를 특별히 함을 알고자 하여 신생(申生)을 대하여 왈,

"글을 대여섯 장을 주시와 써서 주시면 쓸데가 있사오니, 써서 주옵소서."

하거늘, 신생은 활달한 남자이라. 낭자의

---

1) 성인이나 임금의 교훈.
2)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장군으로 "사마병법"을 지음.
3) 군대 내의 규율.
4) 손무(孫武)와 오기(吳起)의 병법서. 손무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지은 춘추시대의 군략가이며, 오기는 "오자(吳子)"를 지은 전국시대의 군사가.
5) 주(周)의 강태공(姜太公)이 지었다는 "육도"와 황석공(黃石公)이 지어 장량(張良)에게 주었다는 상중하 3권의 병서.
6) "주역(周易)"의 해설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팔괘' 즉 이(離,☲), 간(艮,☶), 태(兌,☱), 건(乾,☰), 곤(坤,☷), 감(坎,☵), 진(震,☳), 손(巽,☴)을 8개의 방위에 대응시키고, 여기에 중앙을 포함시켜 '구궁'이라 함.
7) 서로 견줄 만한 짝이 없을 정도로 뛰어남.
8) 더 할 수 없는 정도로.
9) 밤낮.
10)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
11) 재산이 많고 권세가 당당한 가문.
12) 아름답고 어여쁨.
13)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첨하기 위해 얼굴빛을 꾸밈.
14) 절문.
15) 성이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뜻으로, 혼인을 뜻하는 말.
16) 관례나 혼례 등의 경사스러운 예식.
17) 거문고와 비파가 서로 어울리는 모양처럼 잘 어울리는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뜻을 알고 잠시간 글을 지어 써서 주니 낭자 받아다 품에 간수하고 마을에 내려와 글 잘 하는 사람을 찾아가 글장을 내어 보여 왈,

"내가 오는 길에서 글씨 쓴 종이를 얻었으니 혹 무엇에 소용될 글인가 보아 주옵소서."

하니, 그 선비가 자세히 보다가 대희 왈,

"이 글은 옛날 이태백(李太白)과 두목지(杜牧之)가 갱생(更生)[1]하여 지을지라도 이 글에 미치지 못하겠도다. 만일 지금 세상에 이런 재조가 있으면 금번 과거에 장원랑(壯元郎)[2]이 갈 데가 없으리로다."

하며 크게 칭찬(稱讚) 불이(不二)[3]하더라

낭자 그 말을 듣고 왈,

"그 글장을 도로 주옵소서. 갖다가 창호(窓戶)[4]나 바르겠나이다."

하니, 그 선비가 글장을 사모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왈,

"이 글장을 두시고 볼 만한 글장이오니 창호를 바르려 하거든 다른 종이를 주마."

하고 다른 종이 한 장을 주거늘, 받아가지고 움집으로 돌아와 그 기쁨을 측량치 못하여 하더라.

이때 인조대왕께옵서 세자(世子)를 탄생하시고 태평 경과(京科)[5]를 배설(排設)[6]하여 경향(京鄕)[7] 선비를 부르실 새, 팔도 선비 과거 소식을 듣고 과행(科行)[8]을 차리려 하더라.

각설 이때 호장 부처가 두 사위를 과행으로 보낼 새, 행장 범백(凡百)[9]이 가장 굉장하더라.

이때 신생이 과거 소식을 듣고 대사께 고하여 왈,

"소자가 전일(前日)에 듣사오매 과일(科日)[10]이 불원(不遠)하다 하오니, 장부 세상에 처하여 공부는 잘못하였으나, 이때를 당하여 집에 내려가서 과거 볼 기구를 차릴까 하나이다."

하고 대사께 하직하고 내려와 집으로 돌아와 낭자를 대하여 과거 소식을 전하니, 낭자 대 왈,

"장부 세상에 처하여 과거를 보아 이름을 후세에 유전(遺傳)함이 장부의 떳떳한 일이온즉 과거 노수(路需)[11]를 준비하여 봅시다."

하고,

"듣사오니 형님 남편들은 처가에서 인마(人馬)를 차려 보낸다 하오되, 낭군이야 푼전인들 어찌 주리오."

하니, 신생이 대 왈,

"동서(同壻)[12]들은 생면(生面)[13]치 못하였으나, 만일 인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동접(同接)[14]과거 무리같이 보련만은 남의 심지(心志)를 알지 못하니 난처하도다."

소저 왈,

"첩이 듣사오니 그 사람들을 지목(指目)하되 교만 방탕하고 괴상하다 하니 어찌 인정이 있으리오,"

하거늘, 신생이 탄왈(嘆曰),

"팔자 가련한들 이같이 심할까."

하며 탄식함을 사람의 심장(心腸)으로 보지 못하는 듯하더라.

각설, 류형과 김형 두 사위가 과행을 차려 떠날 새, 이때 호장 부처와 경옥 경란이 쫓아나와 전별(餞別)[15]하며 참방(參榜)[16]하기를

1) 다시 태어나
2)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
3) 둘이 아님. 곧 하나임.
4) 창과 문.
5) 서울에서 보는 과거
6) 펼침.
7) 서울과 시골
8) 과거를 보러 감.
9) 여러 가지의 사물.
10) 과거를 보는 날.
11) 노잣돈.
12) 자매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의 호칭.
13) 이미 얼굴을 마주함.
14) 같은 곳에서 학업을 닦음.

천만 축수(祝手)[1]하더라.

이날 신생이 두 사람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여 가는 길가에 주저(躊躇)하다가 두 사람 옴을 보고 말머리로 마주 나가 가로되

"공등(公等)은 말을 머무르고 통성명하옵시다."

하며,

"우리 동서 간으로 금일 상봉은 진실로 늦었도다."

하니, 류 김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 헌 옷 입은 상거지라. 일전 부모의 말을 들은 고로 말대답도 아니 하고 말을 재촉하여 몰아가거늘 신생이 내념(內念)에 무료(無聊)[2]하여 말도 못하고 움으로 돌아오니 낭자 문 왈,

"그 사람들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이까?"

하니, 신생이 대 왈,

"그 사람들이 귀먹은 체, 병신인 체하여 묻는 말도 대답지 아니하고 가더라."

하니, 낭자 그 파측(叵測)[3]한 인정을 책망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부모님도 야속하다. 한 번도 어찌 사는 양을 묻는 일도 없고, 겨 한 줌도 주지 아니하니 무슨 일인고. 내가 슬하에서 실행(失行)[4]한 일이 있나. 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거늘 어찌 두 사위는 중히 알아 노수 인마를 차려 보내면서 우리는 박대(薄待) 자심(滋甚)하니 애달프고 통분하다. 내 체면을 생각하면 무엇하리오. 금일은 내 저녁에 집에 돌아가 쌀말이나 도적하여 낭군의 과거 노비를 보태리라.'

하고 밤을 기다려 가만히 건너가며 생각하되,

'요행으로 쌀말이나 도적하여 과거 노수나 보태고 만일 잡히면 도적이나 아니 될까?'

하고 주저하다가 친정에 다다라 쌀고(庫)로 들어가 쌀을 푸다가 어미에게 잡히니, 그 어미 급히 호장을 불러 경패가 쌀 도적질 하려던 말을 하려 할 즈음에, 경옥과 경란이 큰 죄나 잡은 듯이 제 아비 앞으로 왈칵 나오며 제 아우 경패의 허물을 몇 갑절을 보태어 이르니, 그 호장이 와락 내달으며 대질(大叱)[5] 왈,

"이 도적년을 죽여 후환이 없게 하리라."

하고 무수히 난타(亂打)[6]하니, 낭자 평생 힘을 다하여 겨우 몸을 빼내어 움에 돌아와서 살펴보니 몸에 유혈(流血)이 낭자하고 의복이 열파(裂破)[7]되었거늘, 낭자가 그 부모와 그 형들의 악함을 생각하니 섧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신을 덜덜 떨며 울기만 하는지라.

유복이 낭자의 그 모양과 거동을 보고 악연(愕然)[8] 대경(大驚)하여 그 연고를 물은즉, 낭자가 체읍(涕泣)[9]하다가 마지 못하여 사연을 고하니, 유복이 더욱 강개하여 낭자를 위로하며 탄식 왈,

"구차한 사람이 무슨 일을 아니 보리오. 우린들 좋은 때가 없으리오. 옛글에 하였으되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으니 낭자는 너무 서러워 말라."

하더라.

이때 낭자 백계무책(百計無策)[10]하여 한 길 되는 제 머리를 베어 행장에 넣고 과수(科需)[11]를 차릴 새, 얻어온 쌀되며 전량(錢糧)[12]

---

15) 떠나는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작별함.
16)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榜目)에 이름이 오르던 일.
1) 두 손을 모아 빎.
2)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있음.
3) 괘씸하고 엉큼하다.
4) 좋지 못한 행동을 함.
5) 크게 꾸짖음.
6) 마구 침.
7) 찢어져 결딴남.
8) 크게 놀람.
9)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욺.
10) 있는 꾀를 다 써도 소용이 없음.
11) 과거를 보러 가는 노자.
12) 돈과 곡식.

을 갖추어 간수하여 주며 왈,

"이것을 가지고 문전걸식(門前乞食)하여 올라가 머리를 팔아 지필묵 값이나 보태어 쓰시고 과거 구경이나 하옵소서."

유복이 감사하여 눈물을 머금고 길을 떠날새 도처걸식하며 경성에 올라가니, 각처 선비 구름 모이듯 하였는지라.

유복이 명지(名紙)[1]를 사려 하고 명지전(名紙廛)[2]에 가서 돈이 적은 고로 파명지(破名紙)[3]를 구하더라.

이날 명지 장사 홀연 졸더니 난데없는 청룡이 소리를 지르며 파명지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거늘 놀라 깨어나니 헌옷 입은 선비 파명지를 들고 사자 하매, 장사 이상히 여겨 답 왈,

"좋은 명지 많거늘 어찌 파명지를 사시려 하나이까?"

유복이 답 왈,

"나는 본래 빈한(貧寒)한 사람이라. 돈이 적은 고로 파명지를 사 가지고 과거 구경이나 하려 하노라."

그 장사 가로되,

"금방 장원급제 하올 것이니 천불생무록자인(天不生無祿之人)[4]이라 하였사오니 어찌 파명지 값을 받으리오."

유복이 답 왈,

"남의 것을 어찌 거저 가지리오. 값을 말하라."

하매, 장사 답 왈,

"과거를 보아 성공하거든 갚으소서,"

하고 사양하거늘, 유복이 하릴없이 받아 가지고, 또 필묵점(筆墨店)[5]에 들어가니 필묵 장사 또한 졸더니 파필(破筆)[6] 끝에 계화만발(桂花滿發)[7]하고, 부러진 먹이 변하여 금두꺼비 되어 계화를 물고 궐내로 들어가거늘, 장사 놀라 깨어보니 헌옷 입은 선비 와서 부러진 필묵을 잡고 팔라 하거늘, 필묵 장사 답 왈,

"좋은 필묵이 많거늘 구태여 부러진 필묵을 사다가 무엇에 쓰리오."

유복 왈,

"나는 빈한한 선비라. 값 적은 것을 사려 하나이다."

하니, 장사 공경 왈,

"상공(上公)은 금방에 장원할 것이니 어찌 파필묵(破筆墨) 값을 받으리오. 결단코 받지 아니한다."

하거늘, 유복이 마지못하여 받아 가지고 주인(主人)[8]을 정하려 하고 돌아가다가 문득 바라보니 두부집이 있거늘, 비지를 사려 할 즈음에, 이때 두부 장사 마침 방문을 베고 잠이 들었더니 청룡이 구름을 타고 계화를 물고 가려 하거늘, 놀라 깨니 헌옷 입은 선비 비지를 사자 하거늘, 장사가 활인(活人)[9] 두 자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문 왈,

"잠깐 보아도 선비 양반이신데, 비지를 사서 무엇 하시렵니까?"

유복 왈,

"본래 빈한한 고로 객중(客中)[10]에 푼전도 귀하매 비지나 사서 요기(療飢)코자 하나이다."

할미 불쌍히 여겨 왈,

"상공은 주인을 어디 정하셨나이까?"

하며 왈,

"상공이 이렇듯이 구차하시니 첩의 집이 비록 가난하오나, 조석(朝夕) 진지를 감당하올 것이니 과거나 잘 보옵소서."

하고 정성으로 대접하거늘, 유복이 사례하

1)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2) 종이를 파는 가게.
3) 찢어진 종이.
4)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지 않게 함.
5) 붓과 먹을 파는 가게.
6) 부러진 붓.
7) 계수나무꽃이 활짝 핌.
8) 묵을 곳.
9)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림.
10) 여행 중.

며 감사하여 왈,

"내 형세에 푼전이라도 어려우니 잠시 고용(雇傭)[1]이나 생애 삼아 지내다가 과거 구경이나 보고 내려가겠노라."

하니, 할미 지성으로 강권(强勸)[2]하여 선반(宣飯)[3]을 상상(上上)[4]으로 드리거늘, 유복이 마지못하여 받아먹고 도리어 편치 못하여 하며, 그렁저렁 과일(科日)이 당하니 과장 기구를 차려 과장에 들어가 자리를 얻지 못하여 민망하여 하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류형 김형이 자리를 광활(廣闊)이 점령하고 앉았으나, 저이들이 제 글을 짓지 못하여 남의 손을 빌어 과거를 보려 하고, 주안을 많이 차려 동접(同接)을 관대(寬待)하거늘, 유복이 마음에 반겨 그 접(接)에 들어가니, 천지간에 용납지 못할 놈이 유복을 보고 대로하여 꾸짖어 왈,

"요 거지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저놈을 어서 잡아내어라. 사람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쫓아 왔으나 저놈을 바삐 잡아내어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왔으나 눈앞에 보이지 말라."

연차(連次)[5] 호령하니 유복이 분한 마음을 머금고 다른 곳에 가서 헌 거적을 얻어 깔고 앉았더니, 이윽고 글제 내어 걸거늘, 유복이 한번 보고 일필휘지(一筆揮之)[6]하여 일천(一天)[7]에 선장(先場)[8]으로 바치고, 여관에 돌아와 방목(榜目)[9]을 기다리고 있더라.

각설, 류형 김형 두 놈이 겨우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 보고 대방(代房)[10]할 염치가 없어 즉시 발행(發行)[11]하여 내려 가더라.

이때 호장 부처와 경옥 경란이 반겨 나와 영접하여 집에 들어가 술을 권하니 그 두 놈이 인리(鄰里) 친구를 청하여 즐기더라.

이때 경패 그 두 사람이 과거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옴을 알고 행여 낭군을 과장(科場)[12]에서 만나 보았는가 소식을 들으러 갔더니, 류형 김형이 바깥 사랑에서 호장에게 왈,

"유복을 장중(場中)[13]에서 만나 끌어 쫓아내었다."

말을 한즉 호장이 듣고 고성(高聲)하여 왈,

"그놈을 잘 박대하였다."

하고 박장대소(拍掌大笑)[14]하더라.

이때 낭자 마침 그 지껄이는 말을 듣고 낭군이 장중에 무사히 들어감을 알고 기뻐하나, 그 두 놈의 소위(所爲)[15]를 생각하여 심히 통분히 여기어 움집으로 돌아와 탄식하여 왈,

"세상에 몹쓸 놈도 있도다. 낭군이 타인과 달라 찾아갔거든 함께 과거를 보았으면 좋을 것인데, 도리어 만모(慢侮)[16] 중에 무료[17]를 주었으니 낭군인들 오직 통분하였으리오."

하며, 개죽을 쑤어 놓고 먹고자 하되, 목이 메어 못 먹고 하늘을 우러러 축수하여 왈,

"유유청천(幽幽靑天)[18] 일월(日月)은 굽어 살피소서. 낭군의 몸이나 무사 태평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못내 슬퍼하더라.

각설, 유복이 궐문 밖에서 방(傍)을 기다리더니, 이날 전하께옵서 시관(試官)[19]을 데리

1)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
2) 억지로 권함.
3) 식사를 제공하던 일. 또는 그 식사.
4) 더없이 좋음.
5) 여러 차례.
6) 글씨를 단숨에 써 내림.
7) 과거 때나 여럿이 한시(漢詩) 따위를 지을 때, 첫째로 글을 지어 바치던 일.
8) 과거를 볼 때, 문과 과거장에서 가장 먼저 글장을 바치던 일.
9)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적던 책.
10)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11) 길을 떠나감.
12) 과거를 보던 곳.
13) 과거 시험을 보던 곳.
14)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15) 하는 짓.
16) 거만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김.
17) 무안
18) 깊고 깊은 하늘.

시고 글을 고르시더니 홀연 유복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사 왈,

"이 글은 만고(萬古) 충효를 겸하여 만장중 제일이라."

하시고, 급히 비봉(祕封)[1]을 개탁(開坼)[2]하시니, 전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 신유복이라 하였거늘,

"장원랑(壯元郎)의 신유복을 입시(入侍)[3]시키라."

전명(傳命) 사알(司謁)[4]에게 하교하시매, 사알이 예방(禮房)[5] 승지(承旨)[6]에게 인차(人次)[7]로 전하니 승지가 사령으로 하여금 장원랑의 신유복을 등대(等待)[8]하는 호명(呼名)을 시키었는지라.

정원 사령이 크게 불러 호명할 새, 금방 장원랑은 전라도 무주 땅에 사는 진사 신영의 아들 신유복이라. 넓은 장중으로 다니며 고성하여 여러 번 부르는지라.

신유복이 마침 궐문 밖에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일경일희(一驚一喜)하여 궐내로 들어가 복대(伏臺)[9] 사은(謝恩)하오니, 전하 기뻐하사 유복의 손을 잡고 왈,

"네가 신유복이라 하니, 세대 손의 후손이냐?"

하시니, 유복이 복지(伏地)[10] 주(奏)[11] 왈,

"장절공의 구세 손이로소이다."

전하 대희하사 칭찬하여 가라사대.

"그러하면 일등 명현(明賢)의 자손이라.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오."

하시고, 즉시 한림(翰林)[12]을 제수(除授)[13]하시고 청삼(靑衫)[14] 옥패(玉佩)[15]에 금안(金鞍)[16] 준마(駿馬)[17]를 사급(賜給)[18]하시고, 실내를 진퇴(進退)[19]하신 후에 무동(舞童)[20] 창부(唱夫)[21]를 앞세우고 청기(靑旗) 홍기(紅旗)를 받들며 옥저[22]를 불고, 장안 넓고 넓은 대로로 할미집에 돌아오니, 할미 창황(蒼黃)[23]히 나와 맞으며 못내 반기더라.

이러므로 삼일 만에 탑전(榻前)[24]에 하직숙배(肅拜)[25]하니, 상이 사랑하사 출무(出務) 일당상(一堂上)[26]을 제수하시고 즉시 이조 판서를 초대(招待)[27]하사 웅주거읍(雄州巨邑)[28] 유무궐(有無闕)[29]을 물으시니, 판서 아뢰오되,

"수원이 유궐(有闕)[30]하였나이다."

상(上)이 즉시 유복으로 수원 부사(府使)를 제수하시고 가라사대,

"너의 신세 고단하고 가긍(可矜)하기로 외임(外任)[31]을 주나니 즉시 도임(到任)[32]하여 애민(愛民) 선정(善政)하라."

하시거늘, 신유복이 복지 사배(四拜)[33] 왈,

---

19) 과거 시험에 관계되는 모든 관원의 총칭.
1) 남이 보지 못하게 단단히 봉함. 또는 그렇게 봉한 것.
2) 봉한 편지나 서류 따위를 뜯어보라는 뜻.
3) 대궐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던 일.
4)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잡직.
5) 승정원·지방 관아에 딸린 육방(六房)의 하나
6)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정원의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의 총칭.
7) 인편.
8)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9) 대 아래에 엎드림.
10) 땅에 엎드림.
11) 아룀.
12) '예문관(藝文館) 검열'의 별칭.
13)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림.
14) 조복(朝服) 안에 받쳐 입던 옷. 남색 바탕에 검은 빛깔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큰 소매를 달았음.
15) 옥으로 만든 패물.
16) 금으로 만든 안장.
17) 썩 잘 달리는 말.
18) 나라에서 내려줌.
19) 물리침.
20) 나라 잔치 때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
21) 남자 광대.
22) 옥 피리.
23) 어찌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함.
24) 임금의 자리 앞.
25) 왕이나 왕족에게 하던 절.
26) 외직(外職)에서 근무하는 당상관(?).
27) 임금의 명으로 불러서 오게 함.
28) 땅이 넓고 산물이 많은 큰 고을.
29) 비어있는지 아닌지
30) 비어 있음.
31) 외직(外職).
32) 지방의 관리가 근무지에 도착함.

"소신(小臣)이 하향(遐鄕)[1] 천생(賤生)으로 외임 중직(重職)을 감히 받사와 감당치 못할까 하나이다."

상이 가라사대,

"너의 용모를 보니 만고 영웅이라. 이만 벼슬을 자랑하리오. 오래지 아니하여 나이 고굉지신(股肱之臣)[2]이 될 것이니 바삐 고향에 내려가 조선(祖先)에 영화(榮華)를 뵈이고 수원에 도임하여 민정을 안찰(按察)[3]하라."

하시거늘, 부사 하직하고 여관에 돌아와 할미를 보고 치사(致謝)[4] 왈,

"나는 할미 덕으로 내 몸이 귀히 되었으니 어찌 감사치 아니하리오."

행장(行裝)으로부터 월자(月子)[5]를 내어주며 왈,

"이것이 내 부인의 머리털이니 아직 일로써 정성을 표하라."

하고,

"은혜는 후일(後日)에 만분지일(萬分之一)이라도 갚을 것이나 아직 약소(略少)한 표를 하노라."

할미 사양 왈,

"그만 일로 어찌 은혜라 하리오. 하물며 부인의 털을 어찌 가지리오."

하고 종시 받지 아니하거늘, 부사 하릴없어 도로 행장에 넣고, 수원 저이를 불러 분부하되,

"신연(新延)[6] 하인은 경상도 상주 본댁으로 대령하라."

하고 즉시 속포낭(贖布囊)[7]을 만들어 홍패(紅牌)[8] 품대(品帶)[9] 계화 청삼(靑衫)을 섬[10]에 넣어 질방[11] 걸어지고, 주인 할미를 이별하고, 상주 본가로 내려온지라.

경패 낭군을 과거 장중에 보내고 날로 기다리더니 일일은 몽사를 얻어 낭군이 청룡을 타고 한림원(翰林院)[12]으로 들어감을 보고 놀라 깨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가장 수상히 여겨 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더라.

이날 청조(靑鳥)가 날아와 울며 낭자를 향하여 반기며 자주 울거늘, 낭자 마음에 불안하여 낭군을 고대(苦待)하다가, 문득 노상(路上)을 바라보니 낭군이 오는지라.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전도(前途)[13]에 나아가 낭군을 붙들고 낙루(落淚)[14]하여 왈,

"낭군은 어찌하여 오늘에야 오시나이까?"

유복이 반겨 대 왈,

"이 섬을 가지고 들어갑시다."

부인 왈,

"그런 것이야 밖에 둔들 누가 가져가오리까? 추후(追後)[15] 들여갑시다."

부사 왈,

"비록 섬일망정 일신(一身) 행장 의복이 그 속에 들었으니 어찌 허수히 두리오."

하고 움 안에 들여놓고, 낭자에게 왈,

"시장하온데 먹을 것이 없나이까?"

낭자 대 왈,

"오늘 아침 얻어온 밥이 있사오나 차서 먹지 못하겠나이다."

---

33) 네 번 절함.
1)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2) 임금이 가장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
3) 자세히 조사하여 살핌.
4) 고맙다는 뜻을 나타냄.
5) 여자들이 머리숱이 많아 보이도록 머리 속에 땋아서 덧넣었던 가짜 머리.
6) 도(道)나 군(郡)의 장교(將校)·이속(吏屬)들이 새로 부임하는 감사나 사령을 그 집에 가서 맞아오던 일.
7) 베로 만든 주머니.
8) 과거에서 급제한 사람에게 그의 성적·등급 및 성명을 기록하여 주던 붉은 종이의 증서.
9) 벼슬아치의 공복(公服)에 갖추던 띠.
10) 곡식을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멱서리.
11) 멜빵.
12)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13) 앞으로 나아갈 길.
14) 눈물을 흘림.
15) 일이 지나간 얼마 뒤.

하고 내려놓으니, 부사 손으로 쥐어 먹으며 이르되,

"집에 쌀되나 있소이까?"

하니, 낭자 대 왈,

"쌀되나 있나이다."

부사 왈,

"쌀을 정(淨)히 씻어 밥을 지라."

하니, 낭자 내념(內念)에 헤오되,

'오죽 배가 고파야 그리하는고.'

하며 밥을 지었거늘, 부사 그제서야 당상(堂上) 교지(敎旨)[1]와 한림학사 수원 부사 교지와 홍패 계화며 청삼 품대 백옥홀(白玉笏)[2]을 내어놓고 낭자에게 가로되,

"부인의 정성으로 구은(舊恩)이 망극하여 금방 장원급제를 하였사오며 전하께옵서 사랑하사 한림학사 출무 일당상에 수원 부사를 제수하신 고로 신연(新延) 하인은 이곳으로 오라 하고 내려왔나이다."

낭자 이 말씀을 듣고 만심(滿心) 황홀하여 치하하여 왈,

"이는 하늘이 감동하심이요, 선조의 도우심이로소이다."

하며 못내 즐기더라.

유복이 또 낭자의 머리털을 내어주니 낭자 문 왈,

"명지와 필묵 값을 어찌 감당했사오며 어찌 이것을 남겨 왔나이까?"

하니, 유복이 전후 수말[3](首末)을 낱낱이 말하니, 낭자 소(笑) 왈,

"사람 살 곳은 곳곳마다 있단 말이 옳도다."

하며, 낭자 다시 문 왈,

"전일 과장에서 류형 김형 두 놈에게 욕을 보셨으니 오직 통분하셨으리오,"

분연(奮然)[4] 탄왈(嘆曰),

"그 두 놈은 소만도 못한 놈이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못하련마는 만모(慢侮) 중에 무안(無顔)을 주었으니 어찌 통분치 아니하오리까?"

부사 낭자의 분하여 함을 보시고,

"시속(時俗)[5] 사람이 부귀하면 빈천한 사람을 업수이 여기지 않는 법이거늘, 도시 이 팔자라."

하며, 낭자에게 왈,

"그릇을 정히 부시고 밥을 담아다가 이리 올리라."

하니, 낭자 나아가 이지러진 바가지와 깨진 사발에 밥을 담아 왔거늘, 부사 부인에게 돈을 주어 그 앞에 놓게 하고, 한림과 당상 교지와 수원 부사 교지를 벌려 놓고 홍패를 세우고 부사 머리에 오금(烏錦)[6] 사모(紗帽)[7]를 쓰고 그 위에 계화를 꽂고 몸에 유록(柳綠)[8] 관대(冠帶)[9]에 품대를 띠며, 손에 백옥홀을 쥐고 그 앞에서 국궁(鞠躬)[10] 사배할새, 낭자 부사의 동작함을 바라본즉 천상 선관이 양계(陽界)[11]에 하강(下降)한 것 같은지라.

지금이야 어찌 방앗간에 있든 거렁뱅이로 알리오. 깊고 깊은 정과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낭군과 함께 사배하고 그 옆에 엎드렸는지라.

이때 마침 경옥과 경란이 각기 서방을 위로하다가 함께 문밖에 나와 산보도 하며 사면으로 방황하다가 건너편에서 난데없는 화광(火光)이 조요(照耀)[12]한지라.

두 년이 서로 돌아보며 왈,

---

1) 임금이 사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사령장.
2) 흰 옥으로 만든 홀. 홀(笏)은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3) 머리와 끝.
4) 떨쳐 일어서는 기운이 세찬 모양.
5) 그 당시의 풍속.
6) 검은 비단
7) 벼슬아치들이 쓰던 예모.
8) 봄철 버들잎 같은, 푸른빛과 누른빛의 중간 빛깔.
9) 벼슬아치들의 공복(公服).
10) 윗사람이나 위패 앞에서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힘.
11) 사람이 사는 세상
12) 밝게 비쳐서 빛남.

"저 건너편에 불빛이 조요한즉 저 거지 연놈이 무슨 작란(作亂)하는가 싶으니 우리가 가만히 건너가서 보고 오자."

하며 도랑방자(跳踉放恣)[1]한 두 년이 건너가서 문틈으로 엿보매 붉은 뭉치와 흰 뭉치를 좌우로 갈라 세워 놓고, 유복은 몸에 수박빛 같은 옷을 입고, 관 같은 이상한 것을 쓴 머리 위에 무슨 꽃을 꽂고 두 거지가 함께 엎드렸는지라.

두 년이 그 거동을 보고 마음에 놀랍고 두려워 얼른 도로 건너와 호장 부처를 보고 왈,

"우연히 문밖에 나가본즉 건너편에서 화광이 조요하였기로 그 거지 연놈이 무슨 작란을 하는가 의심이 촉발(觸發)[2]하여 그 움문 앞으로 가서 엿보온즉, 붉은 뭉치와 흰 뭉치를 좌우에 세워 놓았으며 밥 여섯 그릇을 벌려 놓고 그 앞에 엎드렸으니 반드시 우리 집을 망하게 하기로 방자하는가[3] 봅디다."

하매, 무장공자(無腸公子)[4] 같은 호장 부처 이 말을 듣고 그러이 여겨 노기등등(怒氣騰騰)[5]하여 왈,

"이 연놈의 심통[6]을 보라. 일전에 쌀 도적질하려다가 매만 맞고 갔더니, 제 용통한[7] 마음에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느라고 방자함이 분명하도다. 오늘은 건너가서 이 연놈을 죽여 후환이 없게 하리라."

하며, 호장 부처 두 딸을 데리고 달음박질로 건너가 그 움문을 박차고 썩 들어가려 하다가 생각하되, 인지위덕(忍之爲德)[8]이라는 문자를 홀연 생각하고, 상전벽해 수유개(桑田碧海須臾改)[9]라 하였으니, 근본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저의 조상에게 고유(告由)[10]하는 다례(茶禮)[11]를 설행(設行)[12]하는 거동을 보고, 그릇 방자함으로 지목(指目)된가 하여 저의 하는 동작을 보아 조처하리라 하고, 그 잡것들을 문틈으로 엿본즉, 좌우 벽상에 붉은 뭉텅이와 흰 뭉텅이를 갈라 세워 놓고 유복의 부부가 정성껏 엎드렸는지라.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한 뭉치는 장원랑(壯元郎)의 홍패요, 한 뭉치는 수원 부사와 출무 당상 교지일 새, 유복이 몸에 유록 관대에 품대를 띠고 머리에 계화를 꽂고 손에 백옥홀을 쥐고 엎드렸거늘, 호장이 그 거동을 한번 보매 삼혼칠백(三魂七魄)[13]이 산란하여 쥐죽은 듯이 숨을 조금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진정치 못하며 말도 이루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는지라.

악독한 두 딸년이 악연(惡緣)[14] 경황하여 왈,

"거지 연놈이 무슨 방자하였는지 이런 변이 났다."

하며 요란케 하는지라.

호장이 두 딸년의 소동(騷動)함을 민망히 여기어 정신을 겨우 차리어 꾸짖어 왈,

"이년들아. 정신이 없이 잔말 말고 국으로 가만히 있거라. 큰 탈이 났으니 미구(未久)[15]에 경들 치리라."

하는지라.

사위와 딸년들이 그 호장의 걱정하는 말을 들으매 아무런 줄 모르고 길 가리키는 장승같이 우뚝하니 섰을 따름이라.

---

1) 말이나 행동 등이 거리낌이 없고 제멋대로임.
2) 충동·감정 따위가 일어남.
3) 남이 못 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함.
4) 창자가 없는 공자(公子)라는 뜻으로, 담력(膽力)이나 기개(氣槪)가 없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5) 노하거나 성난 기운이 얼굴에 가득함.
6)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7)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함.
8) 참는 것이 덕이 됨.
9) 뽕나무밭은 잠깐 사이 푸른 바다로 바뀐다네. – 盧照隣(노조린)의 시 '長安古意(장안고의)'
10) 사삿집이나 나라에서 큰일이 있을 때, 사당이나 신령에게 고함.
11) 차례.
12) 베풀어 행함.
13) 사람들의 혼백을 통틀어 일컫는 말.
14) 깜짝 놀라 정신이 아찔함.
15) 오래지 않아.

호장이 딸과 사위들을 제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제 처를 대하여 왈,

"이제는 크고 큰 변이 낫다."

하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자는 말이오. 저 건너편 움에 계신 사위님이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하신 후 한림학사로 출무 당상까지 하사 수원 부사를 하여 계시니, 이제 이 일을 두고 생각건대 본읍(本邑) 사또님은 선견지명(先見之明)[1]이 계신 양반이시라. 연전에 혼인 중매하시든 말씀을 들어 저 건너 사위님을 호의(好意)로 후대(厚待)하였으면 오늘 이런 큰 걱정이 없었으련마는, 내가 귀도 먹고 눈이 어두웠던 것이 아니요, 다만 교만하고 무식함으로 저리 영귀한 사위님을 몰라보고 혹독한 박대를 하였으니, 이제는 딸과 사위님을 무슨 면목으로 상대하리오. 만일 사위님이 나의 허물을 생각하실진대 나의 죄를 다 살리실지라."

하며 후회막급(後悔莫及)[2]하여 한탄(恨歎)불이(不二)하여 지내더라.

차시(此時) 류형 김형 등이 신 부사(申府使)의 소식을 듣고 향자(向者)[3] 과장에서 박대하던 일을 생각하매 혼불부신(魂不附身)[4]하여 덜덜 떨리고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 말도 못하며 머리를 매여 푹 숙이고 전당(典當) 잡아논 촛대와 같이 앉았더라.

각설 이때 경기도 수원 이방이 경저리(京邸吏)[5]의 통기(通寄)[6]한 신관 사또의 전령을 받아 보고 신연 절차를 준비하여 육방(六房)[7] 관속과 관노(官奴)[8] 사령을 다수 영솔(領率)[9]하여 경상도 상주읍에 내도(來到)하여 신관 사또댁을 사면(四面)으로 찾아다니되,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방이 민망하여 모든 관속을 사면으로 파송(派送)[10]하여 가가호호(家家戶戶)[11]로 다니며 남녀노소 없이 여러 사람에게 널리 물어 찾아다니더니, 마침 한 여인이 가리켜 이르되,

"저 건너편 움집에 사는 이가 신유복의 성명 가진 이밖에 없다."

하거늘, 이방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움집으로 건너가 문밖에서 별감(別監)[12]을 불러 수원 신관(新官)[13] 댁을 물으려 하더라.

이때 마침 신 부사 움집에 있다가 문밖에서 훤화(喧譁)[14]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신연 관속을 살펴보다가, 도로 들어가서 무지 터진 관을 쓰고, 깃만 남은 도포를 입고 살만 남은 부채를 쥐고 나오며 관속들을 보고 왈,

"너희들이 수원 관속이냐? 신관 사또를 뫼시러 왔거든, 저 건너편 이 호장 집에 건너가서 물으면 자연 알리라."

하고 움으로 도로 들어가는지라.

수원 신연 관속들이 할 일 없어 상주 호장의 집으로 찾아가 주인을 청하여 수원 신관 댁을 물으매 호장이 마지못하여 묻는 대로 대답하는지라.

수원 이방이 상주 호장을 대하여 왈,

"우리는 경기 수원 신연 이방이로다. 신관 사또께옵서 이곳 양반 신유복씨라 하옵는데,

---

1)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2) 잘못된 뒤에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음.
3) 지난 번.
4)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
5) 벼슬아치나 서민으로 서울에 머물러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던 사람.
6) 통지.
7) 승정원 및 각 지방 관아에 두었던 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의 총칭.
8) 관가의 사내종.
9) 부하·식구·제자 따위를 거느림.
10)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일정한 곳에 보냄.
11) 한 집 한 집.
12) 향청의 좌수에 버금가던 자리.
13) 새로 임명된 관리.
14)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듦.

그 사또께옵서 본댁으로 대령하라 전령하옵셨기로, 여러 하인을 데리고 와서 그 댁을 여러 날 널리 찾으되, 알 수 없사와 민망하옵더니 어느 여인이 가리켜 말하되, '저 건너 움에 있는 이가 신유복씨라 하며 그밖에 다른 이는 없다.' 하옵기로 찾아가서 묻사온즉 그 움에 계신 양반이 말씀하시되, '여기 와서 물으면 자연 알리라.' 하시기에 찾아 왔사오니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 호장이 황공 변색(變色)하여 왈,

"과연 그 양반이 금방 장원 급제하사 수원 부사 하셨나이다."

수원 이방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여러 하인을 데리고 움집으로 대령하는지라.

이날 신 부사 머리에 오금 사모를 쓰고 몸에 유록 관대를 입고 허리에 품대를 띠고 손에 백옥홀을 들었음에 위풍(威風)이 늠름하고 용모는 옥골(玉骨)[1] 선관이 진세(塵世)에 하강한 것 같은지라.

이때 신 부사 움집 앞에 좌정하고 육방(六房) 관속과 사령 관노를 차례로 문안 현신[2](現身) 받는 절차를 거행하더라.

이때 상주 목사 신 부사의 소식을 듣고 대희하여, 즉시 본읍 이방에게 분부하여, 움 앞에 차일(遮日)[3]을 널리 치고, 갖은 보진(寶珍)[4]을 화려히 설비(設備)하며, 산진해미(山珍海味)[5]로 갖은 요리를 다수 준비하여 다담상(茶啖床)[6]을 올리게 하며, 악공과 기생을 다수이 보내어 부사의 부인과 본관의 부인을 모시게 한 후에, 본관이 위의(威儀)[7]를 차리고 나와 신 부사를 대하여 과거하고 외임함을 치하하여 서로 즐길 새, 두 고을 관속이 좌우에 옹위(擁衛)[8]하여 잡인(雜人)과 훤화(喧譁)를 금절(禁絶)[9]하더라.

이때 수원 부사, 상주 목사에게 청하여 왈,

"이제 내 고향에 올라가 선영에 영분(榮墳)코자 하오나, 보진 가행(家行)[10]이며 위의(威儀) 절차 차리올 예방(禮房)[11] 공방(工房)[12] 아전(衙前)이 부족하온지라. 귀읍 관속 중에 류형 김형은 세대 아전의 후손이온즉, 시배(侍陪)[13] 거행(擧行)[14]을 잘할 듯하오니, 그 두 아전은 잠시 빌리시면 영분(榮墳)시에 사용하겠으니 빌리시기 바라나이다."

하매, 목사 대답하여 왈,

"그는 염려 마옵소서."

하며, 류형과 김형을 등대(等待)시키라 하시매, 방자(幇子)[15]가 이 호장의 집에 건너가서 두 사람에게 분부를 전하여 등대시키는지라.

목사 류, 김 양인에게 분부하여 왈,

"수원 사또께옵서 영분(榮墳)시에 너의 둘을 예방 공방의 소임을 정하여 빌리시라 하시기로 너희 등을 별도(別途)히 정하여 보내나니 너희 등은 각별 조심하여 영리하게 잘 거행하여라."

하시고, 류형으로 예방을 정하시고, 김형을 공방으로 정하여 보내며 목사, 부사를 대하여 왈,

"예방 공방의 거행 선부(善否)[16] 간에 상벌을 노형(老兄)[17]이 자량 조처하옵소서."

---

1) 살빛이 희고 고결한 풍채.
2) 지체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뵘.
3)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4) 보배(?).
5) 산해진미.
6) 손님 대접을 위하여 음식을 차린 상.
7)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몸가짐.
8) 좌우에서 부축하여 보호함.
9) 엄중히 금함.
10) 재물을 갖추어 집으로 돌아감(?).
11) 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학교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아전.
12) 공예·건축·토목 공사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아전.
13)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하인. 또는 그 일.
14) 명령대로 시행함.
15) 지방 관아에 딸린 남자 하인.
16) 좋음과 좋지 않음.
17) 처음 만났거나 그다지 가깝지 않은 남자 어른들 사이에서, 상대편을 대접하여 부르는 말.

하시는지라.

류, 김 두 사람은 본시 아전 소임을 띠었으매 어찌 목사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그 분부를 청령(聽令)[1]하고 물러 나와 부사에게 문안 현신하더라.

이때 부사, 목사를 대하여 전후 감사함을 못내 치하하며 종일 즐기다가 날이 저물매 목사 관저(官邸)[2]로 들어가라 하거늘, 부사와 부인이 목사와 부인을 각기 서로 분수(分手)[3] 이별하더라.

각설 부사 모든 관속을 이 호장의 집으로 보내어 숙식하게 하고 죽장망혜(竹杖芒鞋)[4]로 뒤 암자에 올라가니 대사 마주 나와 손을 잡고 치하하여 왈,

"상공(上公)이 영귀하였단 말은 풍편(風便)[5]에 들었으나, 본래 이 몸이 산승(山僧)이 되옵기로 산문(山門)[6]을 떠나 치하함을 고하지 못하였사오니 죄송만만[7]이로소이다."

부사 몸을 굽히어 답례하여 왈,

"소생(小生)이 이렇듯이 영귀함이 선생의 넓으신 덕으로 문호를 빛냈사오니 어찌 감사치 아니하오리까? 소생이 금번(今番) 수원에 도임한 후에 선생의 은덕을 만분지일(萬分之一)이라도 갚을까 바라나이다."

하며, 석일(昔日)[8] 회포를 말씀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밤을 지낸 후 이튿날 영분차(榮墳次)로 전라도 무주로 올라갈 새 무동(舞童) 창부(唱夫) 한 쌍과 옥저 한 쌍을 불리우매 풍악(風樂)이 낭자한지라.

이때 경옥과 경란이 신 부사의 행차를 구경하다가 류형과 김형이 시퍼런 장성 모시 직령(直領)[9]을 몸에 붙였으며, 안성 죽갓을 푹 숙여 쓰고 설설 기어 앞으로 급급(急急)히 지나가거늘, 그 두 년이 서방의 거행하는 거동을 보고 마음에 부끄럽고 분히 여기어 왈,

"당초에 이렇게 귀히 될 줄 알았다면 우리가 부사로 인연(因緣)을 맺었다면 저와 같이 호강스러울 것이라. 어찌 극통(極痛)[10]치 아니 하리오."

하며, 후회막심(後悔莫甚)하더라.

각설 신 부사 무주 고향에 올라가 본즉, 가옥이 동퇴서붕(東頹西崩)[11]되어 인적이 없고 그 앞에 다만 주점(酒店)만 두어 집이 남았는지라.

부사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그 주점에 나아가서 밤을 지닐 새, 슬픈 마음이 비할 데 없어 은연중(隱然中)[12]이 울며 석일(昔日)을 생각하고, 두어 창부를 데리고 길로 행하여 옥저를 불리우매, 창부 제 흥을 못 이기여 흥취 있게 잘 부니 기성(其聲)[13]이 처량하여 슬픈 회포를 일층(一層)[14] 감동케 하는지라.

부사 옛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더욱 감창(感愴)[15]하여 흘리나니 눈물이라.

곁에 늙은 여인이 저 부는 소리를 듣고 구경하다가 그 노인 마음이 자연 비감하여 눈물을 흘리는 줄 모르게 흘리거늘, 신 부사 수상이 여기어 문 왈,

"그대는 무슨 연고로 비회(悲懷) 안색에 나타나느뇨?"

그 사람이 여쭈오되,

---

1) 명령을 주의 깊게 들음.
2) 고관들이 살도록 나라에서 마련한 집
3) 서로 작별함.
4) 대지팡이와 짚신의 뜻으로, 먼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를 이르는 말.
5) 바람결.
6) 절 문.
7) 더할 수 없이 죄송함.
8) 지난날.
9) 무관(武官)이 입던 웃옷의 하나.
10) 뼈에 사무치게 고통스러움.
11) 동쪽은 기울고 서쪽은 무너짐.
12) 남이 모르는 가운데.
13) 그 소리.
14) 한층
15) 어떤 느낌이 가슴에 사무쳐 슬픔.

"소인은 이 동리에 사옵더니 금일 영감마님 행차 중에서 저 소리를 들으매 자연 마음이 비감하여 낙루(落淚)함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고하니, 부사가 그 말을 듣고 노색(怒色)을 띠어 가까이 청하여 물어 왈,

"그대가 이 동리에 오래 살았으면 신 진사님 댁 묘소와 가택(家宅)[1]을 자세히 알 것이니, 나를 위하여 바로 가리키라. 내가 타인이 아니라 신 진사댁 자제로다."

한즉, 그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유복씨오니까?"

부사 대(對) 왈,

"내 과연 그러하노라."

하며,

"나의 이름을 어찌 아느뇨?"

노인이 여쭈오되,

"상공이 구 세에 이곳을 떠나신 후로 소식 존망(存亡)[2]을 몰랐삽더니 이렇듯 영귀하여 돌아오심을 어찌 알았으리오. 상공 댁 문서까지 있나이다."

하고 가져오거늘, 받아 보니 자기 전대(前代) 문서가 분명한지라.

부사 더욱 망극하여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탄식하더니, 도방(道傍)[3]이 장차 밝으려 하거늘, 부사 모든 관속에게 분부하여 영분(榮墳) 절차를 차려 가지고 그 노인을 앞세우고 선산에 올라가 살펴본즉, 분묘 다 퇴붕(退崩)[4]하여 형용만 남아 있고, 좌우 석물(石物)[5]이 다 쓰러져 누웠는지라.

부사, 정신이 아득하여 일장(一場) 통곡에 기절하거늘, 좌우 하인들이 황망히 구원하더니 이윽고 부사 정신을 차리어 예로써 제물(祭物)[6]을 갖추어 올리고 글을 지어 제(祭) 지낼 시

그 제문(祭文)에 하였으되,

"유세차(維歲次)[7] 모년 모월 모일에 고애자(孤哀子)[8] 신유복은 감소고우(敢昭告于) 현고(顯考) 진사(進士) 부군(府君) 현비(顯妣) 의인 임씨 양위(兩位) 영혼지하(靈魂之下) 하옵나이다.[9] 불초자(不肖子)[10] 명(命)도 기박(奇薄)[11]하여 잉태 육 삭에 부친을 여의고, 또한 오 세에 모친을 여의고 혈혈단신뿐이옵더니, 시비 춘매에게 의탁하였삽다가 하느님이 밉게 여기사 시비 춘매 또한 죽사오니, 의지할 곳이 없사와 유리개걸하여 다니옵다가, 남의 고용이 되어 하천(下賤)한 사역(使役)[12]을 하옵는 중에 마음이 울적하여 그 집에서 도로 나와 개걸(丐乞)하다가, 경상도 상주에 이르니 마침 지도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을 정하여 주옵는데, 그 처덕(妻德)을 힘입사와 몸이 영귀히 되어서 선조 신령을 다시 뵈옵고 일배주(一杯酒)[13]를 드리어 아버님 어머님 영혼을 위로하오니, 선령(先靈)[14]은 흠향(歆饗)[15]하옵소서."

고축(告祝)[16]함을 필(畢)[17]한 후에 방성통곡(放聲痛哭)하다가 기절하니, 좌우 하인이며 묘하(墓下) 친구 남녀노소 없이 설워 아니하는 이 없으며, 초목 금수(禽獸)[18]라도 수색(愁色)[19]을 머금은 것 같더라.

---

1) 살고 있는 집.
2) 생존과 사망.
3) 길 가.
4) 무너짐.
5)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
6) 제사에 쓰는 음식.
7) '이 해의 차례는'의 뜻으로, 제문(祭文)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8) 부모를 모두 여읜 사람이, 상중에 자기를 일컫는 말.
9) 축문임. "감히 고하나이다. 진사 아버님과 의인 임씨 어머님 두 분 영혼 아래서 아뢰나이다."
10) 부모에게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
11)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12) 남을 부려서 일을 시킴.
13) 한 잔 술.
14) 선조의 영혼.
15) 신령이 제물을 받음.
16) 신명에게 고하여 빎.
17) 마침.
18) 날짐승과 길짐승.
19) 근심스러운 기색.

제사를 파한 후에 다시 제물을 가지고 춘매 분묘에 나아가 술을 부어놓고 제문 지어 제사 지낼 새, 그 제문에 하였으되,

"복(僕)[1]은 유모 죽은 후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풍찬노숙(風餐露宿)[2]하여 가며 유리개걸하여 다니다가, 경상도 상주 땅에 이르러더니, 그 고을 원님께옵서 내 형용과 정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친성(親姓)[3] 같이 사랑하사 이 호장의 셋째딸을 억지로 혼인 중매되시어, 천행(天幸)[4]으로 처의 덕을 입어 일신이 이에 영귀하여 유모의 분묘에 찾아왔나니, 유모의 혼령이 신명(神明)[5]할 것 같을 지경이면 이런 줄 알련마는, 유명(幽明)[6]이 현수(懸殊)[7]함으로 면목(面目)을 상대하여 언어를 통(通)치 못하니[8], 심회를 펴지 못하매 슬픈 마음을 억제치 못할지라. 복은 일후(日後) 황천(黃泉)에 가 유모를 만나면 은덕을 만분지일이라도 갚음을 천만 번 바라노라."

하고, 방성대곡하여 기절 혼도(昏倒)[9]하니 좌우에 보는 자 뉘 아니 불쌍히 여기며 그 덕성을 뉘 칭찬치 아니하리오.

제사를 파한 후에 부사, 이방을 불러 명령하여,

"일 내[10] 선조의 분묘와 유모 산소에 개사초(改莎草)[11] 치산(治山)[12]과 석물(石物) 건축(建築)과 사당(祠堂)집[13] 건축 절차를 등분(等分)[14]없이 일체로 하여라."

하더라.

이때 이방이 여쭈오되,

"사초(莎草)와 석물은 건축하려니와, 사당집 건축은 일자가 촉급(促急)[15]하와 산력(散力)[16]할 일이 아득하여이다."

하매, 부사 도임할 일자를 생각하고 다시 분부하여 석물부터 세우라 하고, 묘하 백성을 불러 이르되,

"내가 도임 일자가 가까워 오래 있지 못할지라. 황금 수천 냥을 내어주나니, 여등(汝等)[17]은 힘을 다하여 당집 두 좌(座)[18]를 건축하되, 하나는 내 선조의 사당집이요, 또 하나는 유모의 사당집이니 각각 건축하여 사당집과 분묘를 성심(誠心) 수호(守護)하면 일후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하여 너희 은혜를 후히 갚으리라."

하니, 묘하 모든 하인이 그 심덕(心德)을 일제히 칭찬하며,

"영감마님 분부대로 거행하오리다."

하더라.

부사 선조 분묘에 사배 하직하고, 유모 분묘에 장읍(長揖)[19] 고별한 후에 묘하 백성을 불러 돈 수백 냥을 행하(行下)[20]로 사급(賜給)하고 즉시 상주로 돌아올 새, 예방 류형과 공방 김형을 불러 분부하여 왈,

"너희 등은 먼저 이 호장의 집으로 가서 사처(私處)[21]를 정하라."

하시니 류형 김형 등이 사또의 분부를 청령하고 급히 떠나 호장의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과 보진 절차를 성비(盛備)[22]히 준비하여

1)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2)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에서 먹고 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겪는 모진 고생을 이르는 말.
3) 일가붙이.
4) 하늘이 준 큰 행운.
5) 하늘과 땅의 신령.
6) 저승.
7) 거리가 멀어 동떨어져 있음.
8) 말을 나눌 수 없음.
9) 정신이 아뜩하여 쓰러짐.
10) 가까운 시일 내.
11) 잔디를 다시 심음.
12) 산소를 매만져 다듬음.
13)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14) 나눔.
15) 촉박하여 매우 급함.
16) 일을 나누어 함.
17) 너희들.
18) 집의 단위.
19) 두 손을 마주 잡고 눈높이만큼 들어 올리며 허리를 굽힘.
20) 주인이 하인에게 주는 금품.
21) 점잖은 손님이 길을 가다가 묵는 집.
22) 성대하게 준비함.

부사 행차를 기다리더라.

부사, 상주에 내도(來到)[1]하여 호장의 중당(中堂)[2]에 좌정(坐定)한 후에 호장 부처를 청하매, 호장 부처 황겁하고 전매(全昧)[3]하여 감히 들어가지 못하다가, 그 영(令)을 거역지 못하여 그 앞에 나아가 복지 사배하고 머리를 숙여 복걸(伏乞)[4] 사죄하거늘, 부사, 사람으로 하여 중당에 올려 앉히고 화평한 말로 위로하여 왈,

"그대는 나에게 장인이 되시니 장인에 허물을 어찌 혐피(嫌避)[5]로 알리오. 허물치 마옵시고 마음을 안심하옵소서."

하며, 그 부인을 청하여,

"그 부모께 뵈옵소서."

하시니, 부인이 부모를 여러 해 걸리던 마음이 간절하나 부모가 찾지 아니하시고 겸하여 부사의 영(令) 없이 출입함이 부도(夫道)에 미안하여 정성(精誠) 지절(至切)[6]을 오래하였으나, 부모를 날로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기회를 만나매 일월(日月)을 다시 보는 듯하여 여취여광(如醉如狂)[7]으로 만심환희(滿心歡喜)[8]하여 새로 단장(丹粧)[9]을 차리되, 큰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몸에 수포(繡布) 금상(錦上)[10]에 명월패(明月佩)[11]를 차고 손에 봉미선(鳳尾扇)[12]을 쥐고 사인교(四人轎)[13]에 들어앉으매, 기생 수십 명이 좌우로 옹위(擁衛)하였으니, 그 거동이 옛날 서왕모(西王母)와 요지연(瑤池宴)[14]에 가는 듯하며, 월궁항아(月宮姮娥)[15] 광한전(廣寒殿)[16]을 올라가는 것 같으매, 관광자(觀光者)[17]가 누가 칭찬 아니하며 누가 움 속에 있던 낭자로 알아보리오.

이렇듯이 호장 부처께 재배하여 왈,

"소녀 불초(不肖)하여 부모를 모시지 못하였사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금일에 자안(慈顔)[18]을 다시 뵈오니, 죄송만만이로소이다. 어찌 다시 부모의 자안을 뵈올 줄 알았사오리까?"

하거늘, 호장 부처 그 딸의 사죄하는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럽고 황공 전매하여 머리를 푹 수그려 감히 입을 열어 회답(回答)지 못하더라.

부인이 또한 다시 두 형을 청하니, 경옥과 경란이 무안하고 황겁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여취여광(如醉如狂)하여 비슥비슥 모퉁이 걸음으로 겨우 자리에 나아가 앉았으나 감히 거두(擧頭)[19] 대면치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용 토소[20]같이 꼼짝없이 앉았더라.

부인이 두 형을 향하여 위로 왈,

"지나온 일은 도시(都是)[21] 다 내 팔자라. 이제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소용무처(所用無處)[22]이오니 형님들은 안심하고 괘념(掛念)[23]치 마옵시고, 동생 간에 정의(情意)[24]를 펴사이다."

하며 술을 부어 부모 두 분께 드리고 크게 즐겨 지낼 새, 이때 부사, 류형 김형을 불러 분부하여 왈,

"너희는 각별 조심하여 예방 공방의 거행

1) 어떤 지점에 와서 닿음.
2) 가운데 건물.
3) 몹시 어리석음. 원문에는 '전뢰'로 되어 있음.
4) 엎드려 빎.
5) 꺼리고 싫어서 서로 피함.
6) 더없이 간절함.
7) 취한 듯이 미친 듯이.
8) 만족하여 한껏 기뻐함.
9) 얼굴·머리·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
10) 수를 놓은 비단 위
11) 둥근달처럼 생긴 패물.
12) 봉황의 꽁지 모양으로 만든 부채.
13) 앞뒤로 모두 네 사람이 메는 가마.
14) 요지연에 살고 있는 중국 신화의 여신.
15) 달 속에 살고 있는 선녀.
16) 항아가 산다는 궁전.
17) 구경하는 자.
18) 어머니 얼굴.
19) 머리를 듦.
20) ?
21) 도무지.
22) 쓸 곳이 없음.
23) 마음에 걸려 잊지 아니함.
24) 따뜻한 마음과 참된 의사.

(擧行)을 소홀치 말며, 한만(閑漫)[1]치 말고 착실히 거행하되, 만일 잘못 거행하면 장하(杖下)에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하니, 류 김 양한(兩閑)[2]이 황공 전매하여 아무리 할 줄 모르더라.

이때 호장이 대연(大宴)[3]을 배설하고 산진해미로 제조한 진수성찬을 올리오매, 부사 부처와 호장 부처며, 경옥 경란이 각각 차례로 다담상을 받을 새, 부사 부처는 위엄이 단산(丹山) 맹호(猛虎)가 밥을 차고 앉았던 듯하며, 호장 부처와 경옥 경란이는 매 본 까투리 수풀 속에 엎드렸는 것 같으며, 류형 김형 등은 고양이 본 쥐 독 틈으로 기어가는 것 같더라.

이때 부사 좌중(座中) 경황을 살펴본즉, 호장 부처는 겨우 음식에 하저(下箸)[4]하나, 경옥 경란은 각기 제 서방의 참혹한 정형(情形)[5]을 봄에 일변 수참(愁慘)[6]하고 일변 황공하여, 능히 저(箸)를 들지 못하거늘, 부사 그 거동을 보고 대로하여 나졸(邏卒)[7]을 명하여 류형과 김형을 나입(拿入)[8]하여 마당에 꿇리고 꾸짖어 왈,

"내 여등(汝等)[9]에게 먼저 분부하여 신칙(申飭)[10]하였거늘, 어찌 음식과 자리를 이렇듯이 부정하게 하여, 좌중 부인의 마음에 합당(合當)치 못하게 하여, 상을 받으시되 저를 들지 못하시니, 이러한 무안한 일이 없도다. 무엄(無嚴)한 너의 두 놈은 장하(杖下)에 죽이리라."

하며 사령을 명하여 분부하여 왈,

"류형과 김형 두 놈을 차례로 형틀에 올려 매고 매를 치라."

하시니, 사령들이 일제히 청령하고 가서 절차(節次)로 거행하며 매를 들고 달려들어 벼락치듯 한 개를 딱 붙이니 몸에 혼(魂)이 없고 정신이 산란하여 두 손으로 싹싹 빌어 왈,

"용서하여 잔명(殘命)[11]을 살려 주옵소서."

애걸하는지라.

부사 애걸하는 소리는 들은 체 아니하고, 수십 도씩 맹타(猛打)[12]하고 다시 분부하여 왈,

"너의 놈들을 죽여 타인을 징계(懲戒)[13]코자 하였더니 십분 용서하여 주거니와, 차후에는 각별 조심하여 잘 거행하여라."

하고 물리치매 그 두 놈이 머리를 푹 숙이어 사례하며 물러 가더라.

이때 호장 부처는 두 사위 형벌 당함을 보고 넋이 없이 땅만 내려다보며, 경옥 경란은 저의 서방 맞는 양을 보고 더욱 혼불부처(魏不府體)[14]하여 정신을 수습지 못하여 지내더라.

이때 부인이 부사 전(前)에 나아가 종용(慫慂)[15]이 말씀하여 가로되,

"상공은 금일 두 사람을 치죄(治罪)[16]하옵시기는 전일에 박대한 혐피(嫌避)로 처벌하신가 하나이다. 옛적에 한국(漢國) 한신(韓信)[17]이는 도중(島中) 소년에게 욕을 보았으되, 왕후(王侯)[18] 된 후에 그 소년을 청하여 벼슬을 시켰으니, 바라건데 상공은 고인(古人)의 행적을 효칙(效則)[19]하사 그러한 마음

1) 아주 한가하고 느긋함.
2) 두 한량.
3) 큰 잔치
4) 젓가락을 댄다는 뜻으로, 음식을 먹음을 이르는 말.
5) 딱한 형편.
6) 매우 처참하고 슬프다.
7) 군아(郡衙)에 딸렸던 군뢰(軍牢)와 사령의 총칭.
8) 죄인을 법정으로 잡아들이는 일.
9) 너희들.
10) 단단히 타일러서 조심함.
11) 얼마 남지 않은 쇠잔한 목숨.
12) 몹시 세차게 때림.
13)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람.
14) 영혼이 육체에서 떠남.
15) 잘 설명하고 달래어 권함.
16) 허물을 가려내어 벌을 줌.
17) 중국 한나라 초의 무장으로 처음 초나라의 항량, 항우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아 한왕 유방의 수하가 되어 대장군이 됨.
18) 제후.
19) 본받아 법으로 삼음.

을 풀어 버리시며, 또 겸하여 첩의 낯을 보아 특별히 용서하사 형제간에 윤기(倫紀)[1]를 화목하게 하여 주옵심을 천만 바라나이다."

하는지라.

부사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왈,

"내 어찌 이과지사(已過之事)[2]를 생각하여 혐피하리오. 부인은 다시 염려치 마옵소서."

하고, 이튿날 수원으로 올라갈 새, 상주 목사 멀리 나와 전별하매 부사, 목사를 향하여 청하여 왈,

"호장과 류형과 김형은 나하고 처족(妻族)이 되니 이안(吏案)[3]에 제명(除名)[4]하여 주옵소서."

하거늘, 부사 왈,

"그 일은 부탁하신 대로 시행하오리이다."

하고 창연(愴然)히 전별(餞別)하고 직소(職所)로 돌아와 그 세 사람을 이안에서 제명하더라.

각설 부사 호장 부처와 류형 김형을 청하여 가로되,

"내가 수원부에 도임한 후 인마(人馬)를 보낼 것이니 그대 등은 마음을 불안히 먹지 말고 인마가 이르는 대로 즉시 올라오라."

한 후, 또한 부인이 부모와 두 형을 이별할 새 못내 결연히 분수 이별하더라.

부사는 금안준마(金鞍駿馬)에 높이 앉아 청기(靑旗) 받고 오륙십 명 관속을 좌우로 벌려 세우고 부인은 쌍교(雙轎)[5]에 앉았는데, 기생 수십 명이 쌍쌍이 시위하여 가매, 금교 유전[6]과 풍악 소리는 운소(雲霄)[7]에 사무치매 도로에 관광자(觀光者)가 여산여해(如山如海)[8]하여 그 영귀함을 보고 누가 칭찬하고 흠선(欽羨)[9]치 아니하리오.

부사 여러 날 만에 수원에 도달하여 도임하고 민정(民情)[10]을 인의(仁義)로 다스릴 새, 불과 수년에 연년(年年) 풍등(豐登)[11]하매 백성들이 태평하여 거리거리 격양가(擊壤歌)[12]를 부르더라.

이때 부사, 금은을 장수암으로 많이 보내어 법전(法殿)[13]과 초막(草幕)을 일신(一新) 수보(修補)[14]하게 할 차로 원강대사와 제승(諸僧)[15]에게 은혜를 치사하고, 또한 중방(中房)[16]으로 하여금 경성에 보내어 여관 주인 할미와 명지 장사며 필묵 장사 세 사람을 청하여다가 전일 은혜를 치사하고, 금은 천 냥을 나눠 주고 대연(大宴)을 배설(排設)하여 관대(寬待)하니, 그 사람들이 못내 하례(賀禮)[17]하며 그 덕성을 축사(祝辭)하여 도리어 감사히 여기고 각각 돌아가더라.

부사 도임한 지 수년에 선치(善治)[18]하는 예성(譽聲)[19]이 자로하여[20] 국내(國內)에 진동하거늘, 왕상께옵서 기특히 여기사 타읍으로 이직(移職)하게 하시더라.

수원 백성들이 원님이 체등(遞等)[21]됨을 알고 수천 명 백성이 경성에 올라가 원류장(願留狀)[22]을 비국(備局)[23]에 정하였더라.

---

1) 윤리와 기강(紀綱).
2) 이왕 지나간 일.
3) 군아(郡衙)에 갖추어 두던 아전 명부.
4) 명부에서 성명을 빼어 자격을 박탈함.
5) 쌍가마
6) ?
7) 구름 낀 하늘.
8)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을 정도로 매우 많음.
9) 우러러 공경하고 부러워함.
10) 백성의 사정과 형편.
11) 해마다 풍년이 듦.
12)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기려 불렀다는 노래.
13) 불당.
14) 새롭게 고침.
15) 여러 승려.
16) 지방 수령을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사람.
17) 축하하여 예를 차림.
18) 백성을 잘 다스림.
19) 칭찬하는 소리.
20) 자주.
21) 신구(新舊) 관리(官吏)가 갈마듦.
22) 전임되어 가는 관리의 유임을 지방 사람들이 상부에 청원하던 문서.
23) 비변사(備邊司).

이때 왕상께옵서 더욱 기특히 여기사 직품(職品)[1]을 돋우어 부사 신유복으로 하여금 유수(留守)[2]를 제수하시고 수원을 떠나지 말라 하시더라.

이때 신 유수(申留守) 이 전지(傳旨)[3]를 받자와 향탁(香卓)[4]을 배설하고 북향(北向) 사배한 후에 국운(國運)을 축사(祝辭)하여 못내 즐기더라.

각설, 부사 인마(人馬)를 경상도 상주로 보내어 장인 장모와 류형과 김형 등을 청하여 데려올 새, 유수 특별히 처가, 족속을 청하여 다가 부인으로 윤기를 화목케 하시니, 그 유수 신유복의 어진 덕성과 활달한 심지(心志)를 비할 데 없더라.

신 유수와 이 호장 간에 사실 아는 사람은 신유수의 넓은 덕성(德性)과 깊은 후의(厚意)를 칭찬치 아니하는 이 없더라.

신 유수 다시 도임한 후에 백성의 폐막(弊瘼)[5]을 거세(巨細)[6] 없이 십분(十分)[7] 주의하여 사실대로 하후하박(何厚何薄)[8] 없이 공결(公決)[9]하여 주니 백성들이 찬양하여 왈,

"공정하고 인선(仁善)하신 양반은 많이 보았거니와 신명(神明)하시기 귀신 같으시며 인심을 감화하시기 특별하사,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되고, 도적이 변하여 양민(良民)이 되매, 산무도적(山無盜賊)[10]하고 도불습유(道不拾遺)[11]하며 야불폐문(夜不閉門)[12]하고 민우재송(民憂載送)[13]하니 신임 사또의 덕행으로 일읍이 태평 무사하니 공수(龔遂)와 황패(黃霸)[14]의 행적(行蹟)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일컫더라.

이때 왕상께옵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을 택하사 팔도 민정(民情)을 살피실 새, 마침 수원 치적(治績)[15]이 제일이라.

왕상께옵서 더욱 만심환희(滿心歡喜)하사 신유복으로 전라 감사(監司)[16]를 제수하시더니, 반년이 못 되어 다시 경상감사로 이직하시고 가라사대,

"경의 마음과 재조를 누년(累年)[17] 시험하여 보매, 도처(到處)[18] 치적이 석일 공수 황패에게 지내도다. 이번 경상도에 도임하거든 칠십이 주 수령을 임의로 출척(黜陟)[19]하라."

하시더라.

신 감사(申監司)는 본래 총명하고 영매(英邁)[20]하여 매사를 이문목도(耳聞目睹)[21]한 것 같이 공결(公決)하매 왕상께옵서 어찌 범인(凡人)으로 알으시리오.

신 감사 천은(天恩)을 축사(祝辭)하며 경상도에 도임하여 치적이 역연(亦然)[22]하매 다시 병조판서로 부르시어 금위대장(禁衛大將)[23]을 겸하게 하이시며[24], 그 부인의 가자(加資)[25]를 돋우시어 정렬부인(貞烈夫人)[26]을

---

1) 품계.
2) 개성·강화·광주(廣州)·수원·춘천 등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던 정이품 외관직(外官職).
3) 상벌에 관한 임금의 명을 관아에 전달하던 일.
4) 향로를 올려놓는 탁자.
5) 고치기 힘든 폐단.
6) 크고 작음.
7) 넉넉히.
8) 누구에게는 후하고 누구에게는 박하다는 뜻으로, 차별하여 대우함을 이르는 말.
9) 공정하게 결정함.
10) 산에 도적이 없음,
11)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벌이 준엄하여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아니하거나 민심이 순후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 밤에 대문을 닫지 않는다 뜻으로, 세상이 태평하여 인심이 순박함을 뜻하는 말.
13) 백성의 근심을 실어 보냄.(?)
14) 중국 한나라 때의 유명한 관리.
15) 잘 다스린 공적.
16) 관찰사.
17) 매년
18) 곳곳의
19)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려 씀.
20) 영리하고 비범하다.
21)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뜻으로, 실지로 경험함을 이르는 말
22) 또한 그러함.
23) 조선 후기에, 금위영의 주장(主將).
24) 벼슬을 내림.
25) 정삼품 이상의 품계.
26)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봉하시더라.

이때 신유복의 위엄이 조정에 제일일 새, 만조백관(滿朝百官)[1]이 뉘 아니 두려워할 자가 없더라.

각설, 이때는 명나라 무종(武宗) 황제 즉위 삼 년일 새, 조정에 충신이 없고 간신(奸臣)이 병권(秉權)[2]하여 천자의 총명을 가리어 난일(亂日)[3]이 상다(常多)[4]하니 어찌 국가 태평하리오.

이때 마침 서번(西蕃)[5]과 가달(加達)[6]이 강성하여 몽고(蒙古)로 더불어 화친하여 세 나라가 동심합력(同心合力)하여 군사를 일으켜 중원(中原)을 칠 새, 서주(西州) 칠십여 성을 쳐 항복 받고 서평관(西平館)에 이르니, 관 지키는 장수 능히 저당(抵當)[7]치 못하여 장계(狀啓)[8]를 닦아 급히 올리거늘, 황제 대경(大驚)하사 급히 개탁(開坼)[9]하여 보시니, 그 장계에 하였으되,

"서번과 가달이 군사를 거느려 먼저 서주 칠십여 성을 항복 받고서 평관에 이르렀사오니, 그 세가 태산 같사와 소장(小將)의 힘으로는 당치 못하겠사오니 급히 특별한 장수를 보내시어 성지(城址)[10]를 구원하옵소서. 만일 지체하오면 서북은 도적의 땅이 되겠나이다."

하였거늘, 황상(皇上)[11]께옵서 남필(覽畢)[12]에 대경하시어 만조백관을 모시어 그 장계를 보이시고 가라사대,

"도적이 이렇듯이 강성하매 뉘 능히 적병을 당하리오."

하시니, 사마원극이 출반주(出班奏)[13] 왈,

"신이 비록 재조 없사오나 한 번 싸워 도적을 함몰(陷沒)하고 국가에 근심을 덜까 하나이다."

하거늘, 황제, 원극으로 대원수(大元帥)를 봉하시고, 왕균으로 선봉(先鋒)[14]을 삼으시며, 양춘으로 부선봉을 삼으시고, 누관과 서형으로 좌우 익장(翼將)[15]을 삼으시며, 군사 칠십만을 도발(調發)[16]하사 택일(擇日)[17] 발행(發行)하라 하실 새, 기치(旗幟)[18] 창검(槍劍)은 일월을 가리우고, 사람은 천신(天神) 같고 말은 비룡(飛龍) 같더라.

떠난 지 여러 날 만에 서평관에 다다라 적병과 대진(對陣)[19]하고 접전(接戰)[20]할 새, 가달의 장수 통골은 당세(當世)[21] 명장이라. 뉘 능히 당하리오.

명진(明陣)[22] 선봉장 왕균이 통골과 더불어 싸울 새, 십여 합(合)[23]에 왕균의 기운이 쇠진(衰盡)[24]하여 가매 통골이 더욱 승세(勝勢)하여 철퇴를 들어 왕균을 치니 거꾸러지는지라.

통골이 칼을 빼어 목을 갈기매 금광(金光)을 좇아 마하(馬下)[25]에 내려지니 통골의 용

---

1)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2) 권력을 잡음.
3) 소란스러운 날.
4) 항상 많음.
5) 토번(吐蕃). 티벳.
6) 거란(契丹).
7) 맞서서 겨룸.
8)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9) 봉한 편지나 서류 따위를 뜯어보라는 뜻으로, 주로 손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겉봉에 쓰는 말.
10) 성터.
11) 현재 제위에 있는 황제.
12) 읽기를 마침.
13)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맨 먼저 말을 꺼냄.
14) 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15) 중군의 좌우에 있는 군대의 장수.
16) 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17) 어떤 일을 치르거나 길을 떠날 때 좋은 날짜를 고름.
18) 군대에서 쓰던 깃발.
19) 적과 마주 대하여 진을 침.
20) 서로 맞부딪쳐 싸움.
21) 그 시대.
22) 명나라 군대.
23)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횟수를 세는 단위.
24) 점차로 쇠하여 기력이나 세력이 다함.
25) 말 아래

맹은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러라.

통골이 의기양양(意氣揚揚)하여 진전(陣前)[1]에 횡행(橫行)[2]하여 크게 꾸짖어 왈,

"명진에 적수(敵手) 있거든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는지라."

명진 대원수, 선봉장의 죽음을 보고 앙천(仰天)[3] 탄식하며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좌익장 누관과 우익장 서형으로 더불어 대군을 휘동(麾動)[4]하여 일시에 진전으로 나서며 크게 호령하여 왈,

"이 개 같은 오랑캐는 들으라. 네 강포(强暴)[5]만 믿고 외람(猥濫)[6]이 천위(天位)[7]를 범하니 어찌 천도(天道) 무심(無心)하시리오. 이러함으로 하느님이 나를 내사 도적을 함몰하게 하셨으니, 너는 닫지 말고 목을 드리어 내 칼을 받으라."

하며 달려드니, 통골이 크게 웃어 왈,

"너 같은 어린아이들은 무슨 잔말 하느냐."

하며 싸울 새 십여 합에 승부 없더니, 통골이 분노하여 철퇴를 높이 들어 누관과 서형을 치니, 양장(兩將)[8]이 일시에 마하에 내려지매, 사마원극이 황겁하여 본진으로 달아나는지라.

통골이 양장을 베어 들고 급히 원극을 따라 명진을 사살(射殺)[9]하니, 명진 장졸의 머리 추풍낙엽(秋風落葉) 같은지라.

원극이 칠십만 대병을 통골의 손에 다 죽이고 목숨만 보전하여 필마단기(匹馬單騎)[10]로 기주성에 이르러 자사(刺史)[11]를 보고 지난 사실을 이르고, 장수를 발(發)하여 성을 굳게 지키고 즉시 패한 사실을 주달(奏達)[12]하니, 황제 대경하사 조정을 모으시고 도적 파할 의논을 하실 새, 만조백관이 황겁하여 대답하는 자가 없거늘, 황제 창황망조(蒼黃罔措)[13]하사 아무리 할 줄 모르시더니, 좌승상 최철이 주(奏) 왈,

"도적이 이렇듯이 강성하였사오나 조정에 지용(智勇)이 겸비한 장수 없고 다 백면서생(白面書生)[14] 같사오니 가장 망극하온지라. 신의 소견에는 조선이 비록 소국이오나 명장이 많사오니, 폐하는 아무 염려 마옵시고,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어 청병(請兵)[15]하옵소서."

하오니, 황상께서 청병하시기로 윤허(允許)[16]하시더라.

좌승상이 황명(皇命)을 봉승(奉承)[17]하여 사신을 조선으로 보낼 새, 사신을 불러 당부하여 왈,

"국세(國勢) 만분(萬分)[18] 위급하였으니 그대는 급히 다녀오라."

하더라.

사신이 황명을 봉승하고 조선국으로 향하여 가더라.

이때 조선국은 연년 풍등하여 백성이 격양가를 부르고, 조가(朝家)[19]에서는 태평가를 부르니 이러므로 관민이 다 태평성대라 일컫는지라.

이때 왕상께옵서 만심환희 하사 문무백관(文武百官)을 거느리시고 여민락(與民樂)[20]

1) 진 앞에서.
2) 제멋대로 오고 감.
3) 하늘을 우러름.
4) 지휘해 움직이게 하거나 선동함.
5) 우악스럽고 사나움.
6) 분수에 지나침.
7) 천자의 자리.
8) 두 장수
9) 쏘아 죽임.
10) 혼자 한 필의 말을 타고 감.
11) 중국 한나라 때에, 군(郡)·국(國)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에 둔 감찰관.
12) 임금께 아룀.
13)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14) 글만 읽고 세상일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
15) 구원병을 청함.
16)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17) 웃어른의 뜻을 이어받음.
18) 대단히
19) 조정.
20) 임금의 거둥 때나 궁중의 잔치 때 연주하던 아악의 한 가지.

풍류로 매일 연락(宴樂)[1]하시는 시대라.

이때 마침 명나라에서 청병 자문(咨文)[2]을 올리거늘 즉시 개탁하여 보시니, 그 글에 하였으되,

"명국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두어 자 글을 올리나니, 지금 서번과 가달이 강성하여 몽고로 더불어 동심합력하여 서주 칠십여 성을 치고 서평관에 이르렀으니 그 형세 태산 같아서 국가 위태함이 조석(朝夕)에 있기로 구원함을 청하였으니, 한번 장졸을 빌리면 도적을 물리치고 종사(宗嗣)[3]를 안보(安保)하겠나이다."

하였거늘, 왕상께옵서 보시기를 다하시고 만조백관을 모아 명국에 구원병을 청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시니, 만조정(滿朝廷)이 묵묵부답(默默不答)하더니, 그 중 병조판서 신유복이 출반주 왈,

"지금 중국이 위태하여 구원함을 청하였사오니 구원을 보내지 아니하면 인국(隣國)[4] 대접이 아니옵고, 가달이 만일 중국을 멸하오면 조선도 순망치한(脣亡齒寒)[5]으로 어려우니, 바삐 구원병을 보내어 중국을 구원하여 주고 조선의 위엄을 뵈옴이 좋을까 하나이다."

왕상이 가라사대,

"경의 말이 옳으나 구원병을 영솔할 장수를 냄 직한 사람이 없고, 만일 갔다가 패하면 다시 원수를 맺을지라. 가달이 우리나라를 칠지경이면 어찌 방어하리오."

하시매, 병조판서 고쳐 주(奏) 왈,

"전하는 근심치 마옵소서. 신이 비록 재조 없사오나 한번 나아가 가달과 서번과 몽고 세 나라를 쳐 파(破)하고 조선국 위엄을 세계에 떨칠지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하거늘, 왕상이 가라사대

"경은 나의 수족(手足)이요, 국가에 충신이라. 만일 경을 타국에 보내고 일시(一時)인들 어찌 심신이 편하리오. 차라리 다른 신하를 택하여 보냄이 옳다."

하시거늘, 병조판서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오되,

"신이 망극한 천은을 입사와 벼슬이 일품(一品)에 이르렀사오니, 천은이 하해(河海) 같은지라. 서번과 가달과 몽고를 파하옵고 이름을 삼국에 빛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나이다."

하거늘, 왕상께옵서 사세(事勢)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으사, 병조판서 신유복으로 구원병 대도독(大都督)[6]을 삼으시고 정병 삼천명을 조발하사 중국 사신과 함께 발행하게 하시니, 신 도독(申都督)이 왕상께 하직하고 집에 돌아와 부인으로 전별할 새, 부인이 도독의 손을 잡고 가로되,

"만리타국에 구원장(救援將)으로 가시니 가장 망극하고 가련하오나, 대장부가 세상에 처하여 일변(一邊)[7] 국가를 위하옵고, 일변 도탄(塗炭)[8]에 든 불쌍한 백성을 건지어 이름을 죽백(竹帛)[9]에 올리어 천추만세(千秋萬歲)[10]에 유전(遺傳)하여 문호를 빛낼 일이 떳떳하거늘 어찌 수회(愁懷)를 생각하오리까?"

하며, 조금도 슬퍼하는 빛이 없고

"원로(遠路)에 무사히 성공하고 돌아오시기를 천만번 축수하옵나이다."

하거늘, 도독이 부인의 말이 정대(正大)[11]하고 사리에 절당(切當)[12] 함을 탄복하며 분

1) 잔치를 벌여 즐김.
2) 중국과 외교적인 교섭·통보·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 문서.
3) 종묘와 사직.
4) 이웃 나라.
5)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6) 전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던 벼슬.
7) 한편.
8) 몹시 곤궁하거나 고통스러운 지경.
9) 사기(史記), 역사책.
10) 천만년.
11)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옳음.

수 전별하고, 즉시 장졸을 영솔하여 발행할 새, 군율(軍律)[1]이 엄숙하고 행오(行伍)가 정제(整齊)함이 사마양저(司馬穰苴)의 군율과 주아부(周亞夫)[2]의 장략(將略)[3]이며 제갈량(諸葛亮)의 용병함에 지날러라.

신 도독이 장졸을 영솔하고 행군하여 임진강을 건너 동파역에 숙소(宿所)하였더니, 이날 밤 삼사 경에 월색(月色)은 조요(照耀)[4]하고 금풍(金風)[5]이 소슬(蕭瑟)하여 사람의 객회(客懷)를 돕는지라.

도독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군중으로 다니며 배회하더니, 문득 일위(一位)[6] 노승(老僧)이 칡베 장삼을 입고 육환장(六環杖)[7]을 짚고 완연(完然)[8]히 오다가 도독을 보고 합장(合掌) 배례(拜禮)하여 왈,

"장군은 작별한 지 수년에 무양(無恙)[9]하시나이까?"

도독이 마음에 의아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원강대사라.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답례하여 왈,

"선생이 어디에서 오시나이까?"

대사 다시 배례 왈,

"빈승(貧僧)[10]이 마침 묘향산을 구경갔다 오는 길에 장군 행차가 이곳에 머무심을 듣고 반가이 뵈옵고자 왔나이다."

하고, 소매에서 일봉(一封) 서간(書簡)[11]을 집어내어 주며 왈,

"이제 장군이 전장으로 가시매 승패를 알지 못하여 가장 어려운지라. 중국에 한 도승(道僧)이 천봉산 봉선암에 있사오니, 이 편지를 전하옵고 전장에 도와달라 간청하옵소서. 봉선암에 계신 일행 대사는 빈승의 선생이시니, 천문지리(天文地理)와 육정육갑(六丁六甲)[12]과 둔갑장신(遁甲藏身)[13]이며 풍운조화(風雲造化)[14]를 모를 것이 없사오니 특별한 정성으로 찾아가서 함께 나아가시면 적병을 어찌 근심하리오. 부디 허수히[15] 알지 말고 성공하시고, 평안히 다녀옵소서."

하거늘, 도독이 감격하여 사례 왈,

"이 도적이 강성하여 중국이 위태하오니 염려 무궁하옵는지라. 선생의 말씀 같을지니 어찌 감격지 아니하리오."

하고, 선생에게 문 왈,

"오늘 밤을 함께 쉬어 정회(情懷)나 말씀하사이다."

선생이 사양하여 왈,

"군중에서 군략(軍略)과 전술에 참모(參謀)[16]함을 문답하려니와 어찌 차외(此外)[17]에 무슨 정회를 담화하리오. 지금 이것이 작별이오니 장군은 성공하고 평안히 돌아옵소서."

하고, 소매를 떨쳐 동편으로 향하여 가거늘, 잠깐 살펴본즉 걸음이 경첩(輕捷)[18]하여 능히 따르지 못할러라.

도독이 하릴없어 선생의 전후 은덕을 생각하고 못내 사모하며 진중에 도로 와서 쉬고, 이튿날 장졸을 재촉하여 여러 날 만에 중국(中國) 지경(地境)에 다다라 천봉산을 물어 찾아갈 새 마침 일위 노승이 지나가는지라.

도독이 마음에 대희하여 그 중을 대하여

---

12) 사리에 곡 들어맞음.
1) 군대 내의 규율.
2) 중국 전한 문제 때의 명장.
3) 장수의 지략
4) 밝게 비쳐서 빛남.
5) 가을바람.
6) 한 사람.
7) 스님들이 짚는 지팡이.
8) 뚜렷함.
9)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10) 가난한 승려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11) 편지 한 통.

12) 육정은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의 여섯 간지를 가리키며, 육갑은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의 여섯 간지.
13) 술법(術法)으로 몸을 숨기거나 동물 혹은 바위나 나무 등 따위로 변신하는 도술.
14) 비바람이나 구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15) 짜임새나 단정함이 없이 느슨하게.
16) 고급 지휘관의 막료로서 인사·정보·작전·군수 등의 계획과 지도를 맡은 장교.
17) 이 외에.
18) 굳세고 날램.

천봉산을 물은즉 대답하여 가리키되,

"저 건너 산이 천봉산이로소이다."

하고 합장(合掌) 배례하고 가는지라.

사신을 먼저 보내어,

"황상께 주달(奏達)하여 근심하심을 위로되시게 하라."

하고, 즉시 행군하여 천봉산에 다다라 산어귀에 유진(留陣)[1]하고 군무사(軍務事)[2]를 아장(亞將)[3]에게 잠깐 위임(委任)하고 죽장망혜로 천봉산을 올라가며 두루 경치를 완상(玩賞)하여 봉선암을 찾아가다가, 한편을 바라본즉, 홀연 한 동자 상상봉(上上峰)에서 약을 캐다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거늘, 도독이 그 노래를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천지 요란하고 시절이 불운하다. 중원(中原)이 광대하여 인생이 많건마는 강포한 서북(西北) 도적 뉘라서 알 소냐? 세상이 번복(飜覆)[4]하여 난세(亂世)가 되었던들 영웅이 바이없어[5] 성덕(聖德)을 받들지 못하니, 옥야(沃野)[6] 천지 넓은 땅이 호지(胡地)[7]가 된단 말인가. 천봉산 구름 속에 대은(大隱)이 있지마는 세상이 무심하니 뉘가 능히 알아보며, 제갈량이 좋은 계교 흉중(胸中)에 묻혔으니 유황숙(劉皇叔)[8] 없으니 찾을 이 바이없다. 산중에서 방황하는 저 장수는 대로(大路)를 잃고 협로(狹路)[9]로 산중에 들어왔나. 일락서산(日落西山)하니 어서 바삐 돌아가소. 깊고 깊은 태산 험로(險路)에 모진 짐승 무서워라."

1)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함.
2) 군대에 관한 일.
3) 무관 계통의 차관급 벼슬. 용호별장(龍虎別將), 도감중군(都監中軍), 금위중군(禁衛中軍), 어영중군(御營中軍)
4) 이리저리 뒤집힘.
5) 전혀 없음.
6) 기름진 들
7) 오랑캐 땅
8) 유비(劉備)
9) 좁은 길

천만 가지로 비양스럽게[10] 조롱하는지라.

도독이 듣기를 다하고 그 동자를 향하여 문 왈,

"이 산중에 봉선암이 어디 있으며 일향대사 산중에 계시뇨?"

동자 답 왈,

"일향대사는 알지 못하거니와 봉선암은 이 위에 있나이다."

하니, 도독이 바로 봉선암을 찾아가니, 아이 우물가에 앉아 약을 씻는지라.

도독이 문 왈,

"일향대사가 이 산중에 계시뇨?"

그 아이 답 왈,

"우리 스승이 약을 캐러 가셨다가 곤(困)하사 잠을 깊이 들으셨나이다. 귀객(貴客)은 부득이 보시려 하시거든 잠깐 머무소서."

하고, 약을 씻어 가지고 암자로 들어가더니 이윽하도록 나아오지 아니하거늘, 도독이 하릴없어 암상(巖上)에 앉아 날이 저물도록 기다리되 아무 종적이 없거늘, 도독이 이유를 알 수 없어 민망히 지내다가 유황숙이 공명선생의 잠 깨기를 고대(苦待)하던 일을 생각하여 태연히 안심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더니, 이윽고 동자 나와 문 왈,

"귀객(貴客)이 어디 계시며 무슨 일로 대사님을 보려 하시나이까? 지금이야 잠을 깨셨으니 들어가 뵈옵소서."

하는지라.

도독이 그 동자를 따라 사중(寺中)[11]에 들어가보니 일향 노승이 서안(書案)[12]을 의지하고 언연(偃然)[13]히 앉았거늘, 도독이 대사를 향하여 배례(拜禮)하니

노승이 몸을 굽혀 답례하여 왈,

"존객(尊客)[14]은 어디 계시며 무슨 일로 산

10) 얄미운 태도로 빈정거림.
11) 절 안.
12) 책상.
13)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하다.
14) 귀한 손님.

중에 왕림하셨나이까?"

도독이 공손히 답하여 왈,

"소생은 조선사람으로서 구원장(救援將)이 되어 이 땅에 지나가다가 법사(法師)의 높으신 이름을 듣삽고 한번 뵈옵고자 하여 이와 같은 정결한 산중에 더러운 몸이 들어왔삽더니, 존사(尊師)[1]께옵서 잠을 들어 계시기로 지금까지 기다렸나이다."

노승이 도독의 말을 듣고 놀라는 체하여 동자를 꾸짖어 왈,

"귀객이 오신 지 오래되었으면 어찌 나를 즉시 깨우지 아니 하였느냐."

하며, 동자로 하여금 특설(特設) 하탑(下榻)[2]하여 예필(禮畢)[3] 좌정한 후 석반(夕飯)[4]을 올리거늘, 도독이 식상(食床)[5]을 받아 본 즉 속반(俗飯)[6] 사치가 없고 다만 소담하나, 식미(食味)[7]는 양계(陽界)에는 없는 요리일러라.

식상을 물리고 반과(飯菓)[8]를 먹은 후에 낭중(囊中)[9]으로부터 원강대사의 서찰을 드려 왈,

"소생이 구원 대장으로 나아오나 지략이 부족하옵고 재조 천단(淺短)[10]하여 능히 강포한 도적을 저당(抵當)치 못하겠나이다."

하며,

"원강대사는 소생의 선생이시매 사제(師弟)의 정리(情理)[11]를 생각하사 중로(中路)에 찾아와 일봉 서간을 닦아 주시며, 법사의 높으신 이름을 일러 주시기로 선생님의 도학을 자세히 들었나이다. 복원, 선생은 소생의 사정을 특별히 생각하사 한번 산문(山門)을 떠나 파적(破敵)함을 참모(參謀)[12]하여 주시기를 천만 바라옵나이다."

일향대사 흔연(欣然)[13] 답 왈,

"노승이 산에 내려가지 아니한 지 만 오십 년이라. 무슨 정신이 있으리오. 원강이 잘못 지시하였도다."

도독이 고쳐 간청하여 왈,

"소생이 어찌 그릇 들었으리이까? 지금 도독이 강성하여 중원을 침범하여 위태함으로 천자 대경하사 조선에 구원을 청하였사오니, 만일 도적이 중원을 함몰하면 명나라 사직이 일조(一朝)에 망할지라. 선생이 비록 산중에 계시나 이 산도 명국 땅이매 이용하시는 수토(水土)라도 국가에 관계가 되옵거늘, 어찌 국가를 방조(傍助)[14]하지 아니 하시리이까?"

노승이 탄식하여 왈,

"소신이 어찌 사세(事勢) 그러한 줄 모르리오마는 제일은 내 나라를 사랑하고, 둘째는 원강의 부탁을 저버리지 못할지라. 작야(昨夜)[15]에 천문(天文)을 살펴보니 규성(奎星)이 산문에 비취었기로 귀객이 오실 줄 알았노라."

하고 다과(茶果)를 내 와서 서로 권하며 이슥하도록 담화하여 밤을 지내더라

각설, 일향대사 동자를 대하여 이 절을 잘 지키라 당부하고 산문을 떠날 새, 머리에 갈건(葛巾)을 쓰고 몸에 학창의(鶴氅衣)[16]를 입고 처사(處士)[17]의 모양으로 산하(山下)에 내려오니, 도독이 진문을 크게 열고 환영하여

1) 스승이나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
2) 손님을 맞아 극진히 대접함.
3) 인사를 마침.
4) 저녁밥
5) 밥상
6) 속세에서 먹는 음식.
7) 음식 맛
8) 밥과 과자.
9) 주머니 속
10) 지식이나 생각 따위가 얕고 짧다.
11) 적을 깨뜨림.
12) 윗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참여함.
13)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다.
14) 옆에서 도와줌.
15) 어젯밤.
16) 지체 높은 사람이 입던 웃옷의 한 가지. 소매가 넓고 뒤 솔기가 갈라진 흰 창의의 가를 돌아가며 검은 헝겊으로 넓게 꾸밈.
17)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草野)에 묻혀 조용히 살던 선비.

들어감에 제장(諸將)[1] 군졸(軍卒)이 군사례(軍士禮)[2]로 행하더라.

이때 도독이 일향대사로 더불어 행군하여 떠날 새, 선생은 사륜거(四輪車)에 모시고 도독은 천리대완마(千里大宛馬)[3]를 타고 행군하여 여러 날 만에 황성에 도달하여, 황제께 폐현(陛見)[4]하오니, 황상이 도독을 한번 살펴보신즉 양미(兩眉)간에 천지조화와 일월광채 어렸으니 진실로 만고 명장이요 동서양 영웅이라.

천자 탄식하여 가라사대,

"조선이 소국이로되 저 같은 명장이 있어 내 나라를 구원하러 왔으니 어찌 도적 파하기를 근심하리오."

하시고, 부탁하사 왈,

"짐이 불행하여 난세(亂世)를 당하여 사직이 위태함이 조석에 있으니 경은 충성을 다하여 짐을 도와 빛난 이름을 오국(吾國)에 진동케 하라."

하시고, 황제 친히 장졸들을 조발하실 새, 신유복으로 대원수를 봉하시고, 백모황월(白旄黃鉞)[5]과 청룡유성퇴(靑龍遊星槌)[6]를 주시니 원수 고두사은(叩頭謝恩)[7] 하는지라.

황제 또한 대장 혼연과 사마 도총판 서경필을 명초(命招)[8]하사 왈,

"경등은 대원수와 동심합력(同心合力)하여 도적을 파하라."

하시매 두 장수 청령(聽令)하고 물러나오거늘, 원수 장대(將臺)[9]에 올라 제장 군졸을 점고(點考)[10]한 후에 제장으로 더불어 단속하여 왈,

"황상께옵서 주신 상방검(尙方劍)[11]을 들고, 여등은 만일 나의 영을 거역하는 자 있으면 이 칼로 군법 시행하리라."

하니 장졸이 일시에 청령하거늘,

이튿날 탑전(榻前)에 하직하려 할 새, 황제 친히 잔을 잡으사 술을 부어 원수를 주사 부탁하여 가라사대,

"도적이 강포하니 경적(輕敵)[12]지 말고 수이 성공하여 돌아옴을 바라노라."

하시니 원수 고두 사례하며 하직하고 물러나와 장졸을 영솔하여 서평관으로 행하여 가더라.

이때 가달이 통골과 더불어 서평관을 쳐빼앗고 기주에 다다르니, 기주 자사와 원극이 성문을 굳게 닫고 안병부동(按兵不動)[13] 하거늘, 가달이 통골과 의논하되,

"여차여차(如此如此) 하자."

약속을 정하고 밤 들기를 기다려 대군을 휘동(麾動)하여 사면으로 둘러싸며 성문을 깨치고 짓쳐 들어가니, 자사와 원극이 불의지변(不意之變)[14]을 만난 것 같아 미처 손을 놀릴 새 없이 통골의 칼이 빛나며 자사와 원극의 머리가 떨어지는지라.

이러므로 통골이 양장(兩將)[15]을 베고 성중(城中)을 엄살(掩殺)[16]할 새, 주검이 태산(太山) 같고 피 흘러 강이 되었더라.

가달 등이 한번 싸워 서평관과 기주를 함락시키고 의기양양[17](意氣揚揚)하여 바로 황

1) 여러 장수.
2) 군대에서 하는 인사.
3) 천 리를 달린다는 중국의 명마. 대완은 지금의 타시켄트 지방.
4) 황제나 황후를 만나 뵘.
5) 두 가지 의장(儀仗). 백모는 장대 끝에 얼룩소 꼬리로 장식한 흰색 깃발이고. 황월은 금색을 칠한 도끼.
6) 긴 쇠사슬 양 끝에 쇠뭉치가 달려 있는 무기.
7)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함.
8)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9) 장수의 지휘대.
10)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함.
11) 전권을 위임하면서 임금이 대신이나 장수에게 내려 주는 검.
12) 적을 얕봄.
13) 군사를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음.
14) 뜻밖에 당한 변고.
15) 두 장수.
16) 갑자기 엄습해 죽임.

성으로 행하여 지나는 바에 대적할 자가 없더라.

숙주에 이르니 목사(牧使) 성을 버리고 달아나거늘 또한 숙주를 빼앗고 더욱 승승장구(乘勝長驅)[1]하여 진주에 이르더라.

이때 신 원수(申元帥)의 대병이 진주에 다다르매 진주목사 구원병이 옴을 보고 대희하여 성문 밖에 나와 원수를 환영하여 드리거늘, 원수 진주에 이르러 밤을 지내고 이튿날 성에 올라 적세(敵勢)를 살펴본즉 무수한 도적이 만산편야(滿山遍野)[2]하여 사면에 진을 쳤을 뿐이 아니라 군율이 엄숙하고 항오(行伍)[3]가 정제(整齊)[4]하여 굳음이 철옹(鐵甕)[5] 같더라.

원수 적병 칠 계교를 의논할 새, 일향대사 왈,

"적진 항오가 분명하고 진세(陣勢) 엄숙하니 경적지 말고 접전(接戰)하되, 삼가 조심하옵소서. 적진에 반드시 명장이 있을 것이니, 내 한번 적진에 진위(眞僞)를 살펴본 후에 대적하라."

하고 적세를 시험하여 보더라.

신 원수(申元帥) 갑주(甲冑)[6]를 갖추고 천리대완마를 타고 진전(陳前)에 나서며 크게 꾸짖어 왈,

"무무(貿貿)[7]한 도적아. 천위(天威)[8]를 모르고 대국을 침범하니 하느님이 어찌 무심하시리오. 나는 조선국에서 온 구원장이라. 너희들을 씨 없이 함락시키리라."

하거늘, 적장 통골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내달아 대로 왈,

"소국(小國)에 어린아이거늘 감히 대국을 구원하려 한들 능히 나를 저당(抵當)할 손가. 부질없이 기운만 허비하지 말고 잔명(殘命)을 도모(圖謀)하려 하거든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하거늘, 신 원수 크게 웃으며 말을 내몰아 싸울 새 칠십여 합(合)에 불분승부(不分勝負)[9]라. 통골이 고함하고 달려들거늘 원수 철퇴를 들어 통골의 가슴을 치니 통골이 몸을 날리어 피하고 다시 싸우니 양장의 재조는 서로 상당한 적수라.

검광(劍光)[10]은 일월을 희롱하고, 말굽은 분분(紛紛)[11]하여 능히 자웅(雌雄)을 불변치 못할러라.

진시(辰時)[12]로부터 술시(戌時)[13]까지 싸우니 그 우열(優劣)을 가히 알지 못할러라.

양진(兩陣)[14] 장졸이 서로 바라보매, 뇌정벽력(雷霆霹靂)[15] 같은 가운데에서 쌍룡(雙龍)이 여의주(如意珠)를 다투어 희롱하는 것 같고, 단산(丹山)의 두 범은 밥을 다투어 태산을 움직이는 듯하며 정신이 아득하여 바라보기 엄위(嚴威)[16]한지라.

일향대사 양장의 싸움함을 보다가 쟁(錚)[17]을 울려 군을 거두오니, 양장이 각각 본진(本陣)으로 돌아가더라.

원수 문 왈,

"선생은 무슨 일로 쟁을 치시어 소장을 부르셨나이까?"

선생이 답 왈,

---

17)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1) 싸움에 이긴 여세를 타서 계속 몰아침.
2) 산과 들에 그들먹하게 덮여 있음.
3) 군대를 편성한 행렬.
4)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
5) 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히 둘러싸인 성이라는 뜻으로, 방비나 단결 따위가 견고함을 이르는 말.
6) 갑옷과 투구.
7)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무지하고 서투르다.
8) 제왕의 위엄
9) 승부를 가리지 못함.
10) 칼날의 번쩍거리는 빛.
11) 여러 사물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12) 오전 7시~9시
13) 오후 7시~9시
14) 양쪽 군대.
15) 천둥과 벼락이 격렬하게 침.
16) 엄하고 위풍이 있음.
17) 꽹과리

"원수의 검술도 비상하오나, 적장의 검술도 당시 영웅이라. 힘으로 잡을 것이 없다."

하고,

"묘한 계교 있노라."

하며, 제장 군졸을 불러 계교를 각각 가르쳐,

"번진[1] 사면에 매복하였다가 여차여차하라."

하니 제장 군졸이 장령(將令)을 듣고 각각 신지(信地)[2]로 가더라.

이튿날 적장 통골이 진전에 횡행(橫行)하며 크게 외쳐 왈,

"어제 미결(未決)[3]한 싸움을 결단(決斷)하자."

하거늘, 원수 노기등등(怒氣騰騰)하여 맞아 싸워 오십여 합에 이르러 원수 거짓 패하는 체하고 본진으로 달아나거늘, 통골이 승세(勝勢)하여 급히 따르더니, 통골이 명진(明陳에)[4] 들며 대무(大霧)[5] 일어나고 흑운(黑雲)이 일어나며 천지를 분변(分辨)치 못하는 가운데, 좌우 복병(伏兵)이 일시에 일어나며 원수 급히 말을 몰아 나와 치니, 통골이 비록 영웅인들 어찌 벗어나리오.

통골의 정신 아득하여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여 원수의 칼이 빛나며 통골의 머리 검광을 조차 떨어지는지라.

이윽고 천지 명랑하거늘, 원수 선생의 도술(道術)을 못내 탄복하며 사례하고 통골의 머리를 원문(轅門)[6]에 달고 호령하더라.

가달이 통골의 머리가 원문에 매달림을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앙천(仰天) 탄(嘆) 왈,

"우리가 동병(動兵)[7]하기는 통장군의 지략을 믿고 중원을 정벌하였더니, 우리 운수 불행하여 명장을 잃었으니, 다시 뉘를 믿고 천하를 의논하리오."

하며 탄식하거늘, 서번장 위골대와 몽고국 대장 설만춘이 일시에 여쭈오되,

"대왕은 근심치 마옵소서."

위골대, 말을 내몰아 크게 외쳐 왈,

"너를 잡아 통장군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며 달려들어 싸움을 돋우거늘, 원수 대로하여 맞아 싸워 십여 합에 이르러 원수에 칼이 빛나며 위골대의 머리 마하(馬下)에 떨어지매, 설만춘이 또한 창을 들고 달려들어 싸움을 돋우거늘 원수 일 합에 설만춘을 베어 들고 적진 중에 좌충우돌(左衝右突)[8]하니, 가달 등이 진문을 굳게 닫고 나지 않거늘 원수 본진으로 돌아오니 선생과 제장이 그 용맹을 못내 칭찬하더라.

이때 가달과 서번이 몽고와 더불어 의논을 할 새,

"적진의 재조를 보니 천지조화를 가져는지라. 가벼이 대적지 못할 것이니 오늘 밤에 가만히 잠들기를 기다려 명진을 겁측[9]하여 적진을 사로 잡으라."

하고 계교를 정하더라

이날 마침 명진에서 장졸을 모아 잔치를 배설(排設)하고 즐기더니, 홀연 광풍이 이러나 깃발이 험하게 부치니, 일향대사 고이 여겨 점괘를 버리다가 대소 왈,

"도적이 오늘 밤에 우리 진을 겁칙하리라."

하고 제장을 불러,

"여차여차하라."

단속하였더니, 마침 밤이 삼경(三更)이라 과연 적병이 달려 들거늘, 원수 제장으로 더불어 일시에 나와 엄살(掩殺)하니 적진에 머리 추풍낙엽(秋風落葉) 같더라.

---

1) 서번의 진(陣)
2) 약속된 곳.
3) 아직 결정나지 않음.
4) 명나라 군대 안
5) 짙은 안개.
6) 군영의 문.
7) 군사를 일으킴.
8)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9)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

서번과 가달이 군을 패하고 겨우 잔명만 보전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탄식하여 왈,

"무죄한 장졸만 죽이고 성공치 못하였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하니, 제장이 일시에 여쭈오되,

"적장의 용맹은 경적지 못하리라 하시나 통골의 아들 통각이 비상한 재조를 품었으니 어찌 제 부친의 원수를 생각지 아니하리오. 반드시 힘을 다하여 적장을 잡을 것이리다. 이밖에 다른 계교 없사오니 급히 통각을 청하여 의논함만 같지 못하다."

하거늘, 서번과 가달이 대희하여 즉시 사자(使者)를 보내어 통각을 청한지라.

이때 통각이 제 아비를 전장에 보내고, 주야(晝夜)로 승첩(勝捷)[1]함을 기다리더니 문득 사자 부음(訃音)을 가지고 와 전하고 가달의 글월을 올리거늘, 통각이 대경 망극(罔極)하여 즉시 신위(神位)를 배설하고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하매, 금강도사 통각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왈,

"네 부친의 용맹이 세상에 으뜸이더니 명장 손에 죽었으니 명장은 범상(凡常)한 장수가 아니라."

하고, 또

"스승이 없을 것이요, 겸하여 강력(强力)이 부족하고 별 조화 없을 것이라."

하고,

"내 전세(戰勢)에 나아가기 싫으나 그대를 홀로 보냄이 미안한즉 함께 가리라."

하고 통각의 집으로 돌아와 행장을 차려 작반(作伴)하여 갈 새, 통각 누이 벽옥이 통각으로 더불어 금강도사에게 십년 재조를 배워 검술이 비상하고 조화 무궁하여 풍운을 타고 사해 팔방으로 출입하는지라.

벽옥이 또한 작반(作伴)함을 청하여 왈,

"부모의 원수 갚기는 남녀 간에 분별이 있사오리이까? 함께 나아가 부친 원수를 갚고 적장의 간을 내어 부친의 고혼(孤魂)을 위로하옴이 옳사오니 모친은 만류(挽留)치 마옵소서."

하거늘, 그 어미 기특히 여겨 왈,

"네 충성과 효성이 지극하니 어찌 성공치 못하리오. 속히 보수(報讎)[2]하고 돌아오라."

하매 벽옥이 어미에게 하직하고 통각과 도사로 더불어 작반(作伴)하여 가달의 진에 이른지라.

이때 신 원수 날마다 싸움을 재촉하여 질욕(叱辱)[3]하되,

"가달 등이 진문을 닫고 요동치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선생 왈,

"거야(去夜)에 천문을 살펴본즉, 서방으로서 은은한 자성(觜星)[4]이 적진에 비치었으니 분명히 특별한 명장 있어 적진을 도움이니, 원수는 삼가 조심하라."

하더라.

이때 마침 금강도사와 통각과 벽옥이 사신을 따라옴을 보고 가달과 서번이 대희하여 멀리 나가 금강도사와 통각을 환영하여 진중으로 돌아오더라.

통각이 진중에 들어가 통곡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튿날 진전에 나와 크게 불러 왈,

"적장은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나는 통장군의 아들 통각이라 내 너를 결단코 죽여 우리 부친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며 달려 들거늘, 원수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의 아비가 무도(無道) 불의(不義)하여 천위를 범하다가 목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내 칼은 본래 사정이 없으니 네 또한 죽기를

1) 승전(勝戰).

2) 앙갚음.

3) 꾸짖으며 욕함.

4) 이십팔수(宿)의 하나. 대설(大雪) 무렵 중천에 나타나는 마늘모꼴의 세 별.

재촉하니, 한 칼로 부자 동참(同斬)[1]이 가련하다."

하고 맞아 싸울 새, 팔십여 합에 이르러는데 신 원수 칼을 들어 통각의 말을 찌르니, 말이 소리를 벽력(霹靂)같이 지르고 본진으로 닫거늘 원수 따르려 하거늘, 일향대사 쟁을 쳐 부르는지라.

원수 하릴없어 본진으로 돌아와서, 쟁 치던 이유를 물으니 선생 왈,

"적장이 비록 패하였으나, 적진이 안전하고 항오 분명하여 굳기가 철옹 같거늘 어찌 경적하리오. 원수 적장을 따라감이 해로울 듯하기로 쟁을 쳐 군을 거둠이라."

하더라.

이때 금강도사 왈,

"내 적장의 지략(智略)과 용맹을 보니 당세 영웅이라. 힘으로는 대적지 못할 것이니 내 마땅히 조화로 잡으리라."

하고,

"종이를 나누어 맹호(猛虎) 삼천을 만들어 각각 신장(神將)[2]을 접(接)[3]하여 싸움을 돕게 하리로다."

하고 발기(發起)[4]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때 일향대사 원수를 불러 왈,

"내 적진을 살펴본즉 운무(雲霧)가 적진을 옹위(擁衛)하고 살기(殺氣) 충천(衝天)하니 반드시 도인 있어 계교를 꾸미는 것 같으니, 내일은 부디 경적지 말라."

하고 목룡(木龍) 삼천을 만들어 풍백(風伯)[5]을 호령하여 싸움을 돕게 하더라.

이튿날 통각이 진전에 나서며 싸움을 돕거늘, 원수 나와 싸워 불과 수합(數合)에 광풍이 대작(大作)하며 난데없는 짐승이 맹호 삼천을 몰아 들어오니, 맹호 불덩이를 토하며 달려 들으니 명진 장졸이 황겁하여 감히 대적지 못하고, 원수 또한 수족(手足)을 놀리지 못하거늘, 일향대사 양진(兩陣) 승패를 살펴보다가 급히 풍백(風伯)을 불러 호령하여, 목룡 삼천을 몰아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니, 뇌정벽력(雷霆霹靂)이 천지진동하고 얼음덩어리를 날려오니, 적진 중에 범과 장졸이 얼음 우에서 다리를 벌벌 떨고 무서워 감히 싸우지 못하거늘, 자세히 살펴본즉 범의 몸이 다 종이인 고로 비를 맞아 시신(屍身)도 없더라.

그제야 원수 풍백을 호령하여 통각을 성문 밖에서 베고 승전고(勝戰鼓)[6]를 울리며 크게 즐겨 하더라.

이때 벽옥이 구름을 올라타고 적진에 이르니 오라비 벌써 죽었는지라.

대경 통곡할 새, 차시(此時) 금강도사 벽옥에게 일러 왈,

"그대 검술이 비상하니, 오늘밤에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베혀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7]를 갚으라. 적진에 기이한 장수와 신기한 도사가 있어 조화 무궁하니 인력으로 잡지 못할지라."

하더라.

벽옥의 연(年)이 십팔 세라. 이날 밤 들기를 기다려 비수(匕首)를 몸에 품고 무지개를 타고 적진을 향함에 금강도사도 보검(寶劍)을 들고 풍운(風雲)에 쌓이여 들어 가더라.

이날 일향대사 천문을 살펴본즉, 탐랑성(貪狼星)[8]이 살기 만천(滿天)[9]하여 명진에 비치었거늘 일향대사 원수를 청하여 왈,

"금일 밤에 적진에서 자객(刺客)을 보내어 원수를 해하고자 하리로다."

하고, 즉시 초인(草人)[10]을 만들어 원수의 옷을 입히어 장대(將臺)에 앉히고 좌우에 매

1) 함께 벰.
2) 전략과 전술에 능한 장수.
3) 붙여
4) 군대를 일으킴.
5) 바람의 신.
6)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치는 북.
7)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
8) 북두칠성 또는 구성(九星)의 첫째 별.
9) 온 하늘.
10) 허수아비.

복하여 풍백과 신장에게 하령(下令)[1]하여 때를 기다릴 새,

적진으로부터 흰 무지개 한 줄 뻗치거늘, 일향대사 원수로 더불어 당상(堂上)에 앉아 둔갑술(遁甲術)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살펴보더니 벽옥이 무지개를 타고 공중으로 내려와 동정을 살피되 인적이 없거늘, 바로 장대에 올라와 원수 앉았음을 보고 달려들어 칼을 빼어 가슴을 찌르고, 금강대사 공중에서 내려와 보검을 빼 들고 원수의 목을 치려 할 즈음에,

일향대사 방포일성(放砲一聲)[2]에 풍백을 호령하니, 좌우 복병이며 신장(神將) 신병(神兵)이 일시에 달려들어 금강도사와 벽옥을 결박하여 바치거늘, 일향대사와 원수 장대 높이 앉아 금강도사와 벽옥을 꿇리고 고성 대질(大叱)[3] 왈,

"너는 늙은 놈이 무슨 재조 있기에 전장에 나와 반적(叛賊)[4]을 도와 임자 있는 명국을 요란케 하느냐."

금강도사 애걸 사죄 왈,

"빈도(貧道)는 산중에 묻혀 뫼를 벗을 삼고 세월을 보내더니, 저 계집은 통각의 누이이온데 일찍 빈도를 따라 인간 검술을 배웠삽기로, 저의 남매가 보수(報讎)하기를 간청하오매, 사제 간의 의리를 생각하고 외람(猥濫)히 천위를 범했사오니 죄는 만사무석(萬死無惜)[5]하오나 잔명(殘命)을 살려 주시면, 산중에 묻혀 다시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 하오리다."

하며 손을 묶어 애걸하거늘, 일향대사 왈,

"너를 마땅히 죽일 것이로되 특별 용서하나니 다시 외람한 뜻을 두지 말라."

하고, 맨 것을 끌러 놓으니 도사가 백배사례(百拜謝禮)[6]하고 풍운(風雲)을 타고 바로 애매산을 향하여 가더라.

또한 벽옥을 꾸짖어 왈,

"가달과 네 아비는 무도하여 중국을 침범하다가 명천(明天)[7]이 밉게 여기사 죽었거늘, 천의(天意)를 모르고 죽기를 재촉하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오. 그러하나 너는 살지 못하리니 나를 한(恨)치 말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어,

"후인(後人)을 징계하라."

각설 원수 대군을 거느려 싸움을 재촉할 새, 가달 등이 벽옥의 죽음과 도사의 도망함을 보고 망극하여 서로 의논 왈,

"이제는 별도리 없으니 대적지 못하리라. 사생(死生)이 경각(頃刻)[8]에 달렸으니 차라리 항복하여 목숨을 도모함이 옳다."

하고, 가달과 서번이 몽고와 더불어 목을 매여 진전에 나와 항복하며 잔명을 빌거늘, 원수 대로 왈,

"너희 등이 강포만 믿고 대국을 침범하다가 형세 위급하매 목숨을 도모코자 항복하니, 너희는 신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놈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명이 지중하여 십분 용서하여 살려 보내니 이후는 다시 반심(叛心)[9]을 두지 말라."

하고, 항서(降書)를 받든 후에 각각 놓아 보내니, 가달 등이 천은을 사(謝)하며 원수며 일향대사를 향하여 백배사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철비(鐵碑) 두 좌(坐)[10]를 세워 그 은덕을 기념하게 하며 금은 채단(綵段)[11] 수백 차(車)[12]를 드려 왈,

"원수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잔명을 보전하

1) 명령을 내림.
2) 대포를 쏘는 듯한 큰 소리.
3) 크게 꾸짖음.
4) 역적.
5)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
6) 거듭 절을 하며 고마움의 뜻을 나타냄.
7) 하느님.
8) 눈 깜빡할 사이.
9) 배반하려는 마음
10) 불상을 세는 말.
11) 비단.
12) 수레.

여 돌아왔사오니, 하해(河海)같은 성덕을 어찌 다 측량하여 형언(形言)하오리이까?"

하며,

"머리를 백번 두드리고 사례하나이다."

하였더라.

원수, 가달과 서번과 몽고 삼국에서 보낸 채단을 내어 명국 장졸들과 조선 장졸들에게 나눠 주고 승전고를 울리고, 즉시 황제께 누차 승전 첩서(捷書)[1]를 올린 후에 주육(酒肉)[2]을 많이 준비하여 잔치를 지낼 새, 원수, 제장 군졸을 대하여 왈,

"금번 승전함은 그대 등의 충성을 힘입어 중국의 위엄을 삼국에 진동케 하였으매 한 잔 술로 치하(致賀)하노라."

하니, 모든 장졸이 원수를 향하여 왈,

"장졸 간 상한 자 없이 강포한 도적을 함락시키사 국가의 위엄을 동서양에 진동케 하여 주시고, 도탄(塗炭)에 들었던 백성을 건지시고 위태하였던 중원 종사(宗祀)를 안전케 하여 주셨다."

하며, 제장 군졸이 일시에 백배사례하며 원수를 향하여 천세(千歲)[3] 천세 천천세라 축사(祝辭)하더라.

차설(且說)[4] 이때 잔치를 마치매 다시 승전고를 울리며 황성에 돌아올 새 경향(京鄕) 간 대소 관원이 지경 대후(待候)[5]하매 위엄이 오국(吾國)에 진동하더라

각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호걸이 자고급금(自古及今)[6]하여 많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종말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한 사람이 많건마는, 신 원수의 역사 열람(閱覽)하여 본즉 재조는 천 사람에 지나가고, 지혜는 만 사람에 지나며, 용맹은 고금에 열대(列隊)[7]하고 겸하여 충의가 공전절후(空前絶後)[8]하겠으니, 동서양의 영웅호걸들을 슬하에 꿇릴 만한 인물일러라.

고언(古言)에 하였으되, 인걸지령(人傑地靈)[9]이라 하더니 자고급금(自古及今)하여 조선 동천(東天)에 특별한 영웅이 배출하니 금수강산(錦繡江山)일 새 분명하더라.

각설, 일향대사 원수의 손을 잡고 작별하여 왈,

"노신(老臣)이 산문(山門)을 이별하고 원수와 더불어 전장에 구치(驅馳)[10]하온 지 오래되매 마음이 자연 울울하외이다. 오늘 이 땅에 서로 전별(餞別)이 되오니 가장 창연(愴然)하외이다. 그러나 원수의 지극한 덕성과 성심을 생각하면 결연한 회포를 어찌 다 성언(成言)[11]하오리이까? 원수는 원로(遠路)에 부디 태평이 가시옵소서."

하며 말을 마치매 소매를 떨치고 몸을 솟구쳐 공중에 오르니, 그 간 바를 모르더라.

차설, 원수, 선생을 이별하고 마음을 진정할 수 없으나 하릴없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 후 황성에 도달한즉, 황상께옵서 백관을 거느리시고 이십 리 밖에 동가(動駕)[12]하사 원수를 기다리시는지라.

원수 말에서 내려 용안(龍顔)[13]을 뵈오니 황상께옵서 원수의 손을 잡으시고 승첩(勝捷)함을 못내 칭찬하시더라.

원수, 가달과 서번과 몽고 삼국에 받은 항서를 쌍수(雙手)로 바치며 주달(奏達)하여

1)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던 글.
2) 술과 고기.
3) 천만년 오래 살기를 기원함,
4) 화제를 돌려 말할 때, 그 첫머리에 쓰는 말.
5) 웃어른의 명령을 기다림.
6)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7) 나란히 함.
8)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음.
9) 인물은 걸출하고, 땅의 형세는 신령스러움.
10) 남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함.
11) 말로 이름.
12)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13) 임금의 얼굴.

왈,

"폐하의 넓으신 성덕을 입사와 도적을 파하였사오나 하정(下情)[1]에 기뻐하옵나이다."

황상이 대희하사 왈,

"경의 충심 곧 아니더면 종사에 위태함을 어찌 면하였으리오. 경의 공을 의논하자면 하해(河海)가 얕을지라."

하시며 벼슬을 돋우어 위국공(衛國公)을 봉하시고,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시키시니 원수 황공하여 고사불수(固辭不受)[2]하되, 종시 불윤(不允)하시온즉 하릴없어 사은숙배(謝恩肅拜)하더라.

황상께옵서 원수를 사랑하사 황성 남문 밖에 충렬비를 광장(廣壯)[3]하게 세우고 생사당(生祠堂)[4]을 건축하여 사시(四時) 향촉(香燭)을 풍비(豐備)[5]하게 하사 만세에 유전(遺傳)하게 하시고 금은 채단을 많이 상사(償賜)하시고, 조칙(詔勅)[6]하여 가라사대

"경은 짐과 평생을 같이 누리리라."

하셨는지라.

위국공 겸 병부상서 신유복은 표(表)[7]를 닦아가 천폐(天陛)[8]에 올리니 그 글에 하였으되,

"소신이 본시 조선 국왕을 섬겼사오니, 신의 사정을 깊이 하촉(下觸)[9]하사 소대지임(小大之任)[10]을 갈아 주시면 돌아가 국왕이 주소(晝宵)로 신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여 사군(事君)[11]하는 신자의 도리를 밝혀 주소서."

하였더라.

차설 황상께옵서 위국공의 굳은 마음을 아시고 하릴없어 비답(批答)[12]하여 가라사대,

"경의 소대지임(小大之任) 중에 작위(爵位)[13]는 걷지 않고 다만 병부상서를 갈아주니 경은 안심하라."

하시며 다시 조칙(詔勅)하여 가라사대,

"경은 양국 충신이니 조선에 나아가되, 일년 일차(一次) 조회에 참례(參禮)[14]하여 서로 만나 보아 짐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하시더라.

위국공이 하릴없어 천은을 축사하며 즉일 하직하고 본국으로 돌아 나올 새, 천자(天子) 만조백관을 거느리시고 삼십 리 밖에 동가하사 전별하실 새 전역(全域)에 나갔던 장졸도 나와 전별하더라.

이때 위국공이 전역에 나아갔던 군졸을 대하여 위로 왈,

"그대 등의 충심을 힘입어 도적을 파하고 나라를 태평케 하였으나, 그 고초(苦楚)[15]하든 정형(情形)을 생각하면 정의(情意) 서로 잠시인들 떠날 수 없건마는, 사군(事君)하는 도리에 귀국하지 아니할 수 없어 시세(時勢) 부득 휘루(揮淚)[16] 상별(相別)[17]하노니, 그대 등은 각기 귀가하여 복록(福祿)을 많이 받아 부모 형제 처자로 만세를 잘 누리라."

하더라.

전역에 나아갔던 장졸들이 위국공을 향하여 위로 왈,

"장군의 충심과 지략을 힘입어 장졸간 일명(一名)[18]이라도 피상(被傷)[19]한 자가 없이 도

---

1) '자기의 심정'의 겸칭.
2) 고사하여 받지 아니함.
3) 넓고 크게.
4) 감사나 수령의 선정(善政)을 기리어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부터 받들어 제사 지내던 사당.
5) 풍부하게 갖춤.
6) 조서
7) 마음속의 생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글.
8) 제왕(帝王)이 있는 궁전의 섬돌.
9) 아래로 닿음. 아랫사람을 굽어봄.
10) 크고 작은 임무
11) 임금을 섬김.
12)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대답.
13) 벼슬과 지위.
14) 예식·제사 등에 참여함.
15) 고난
16) 눈물을 뿌림.
17) 서로 이별.

적을 파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 태산 같삽고 애휼(愛恤)[1]하시던 정의 하해 깊사와 서로 잠시라도 떠나지 못하겠거늘, 귀국 근군(覲君)[2]하심으로 말미암아 휘루 상별함을 당하오니 별도리 없거니와 복원 장군은 원로에 안녕히 환국(還國)하사, 만대 영화(榮華)하여 지내옵소서."

하였더라.

이때 위국공이 제장 군졸을 차례로 작별한 후에 천폐(天陛)에 하직하고 황성을 떠나 여러 날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왕상께 문안 입시(入侍)한 후에 가달과 서번과 몽고 삼국을 정벌하여 항복 받고 황상의 근심하심을 덜게 하고 상사 받은 일이며, 명국 정치와 법률이며 인물 선불선(善不善)과 전후 말씀을 주달하오니,

왕상이 위국공의 손을 잡으사 칭찬하사 왈,

"내 경을 타국의 전장에 보내고 주소(晝宵)로 염려 무궁하더니, 이제 다시 만나보니 반갑기 측량 없도다. 그러나 강포한 도적을 처물리치고 벼슬이 공후(公侯)[3]에 이르렀으니 경 같은 이는 고금에 드물지라."

하시거늘, 위공이 천은을 축사하며 하직하고 집에 돌아와 부인을 만나 못내 반기며 만리 타국에 무사 성공하고 돌아옴을 희불자승(喜不自勝)[4]하여 하더라.

신공(申公이) 하향(下鄕) 백성으로서 양국의 인끈[5] 비껴 차니 영귀(榮貴)함이 일국에 제일일러라.

신공이 전하께 여쭈오되,

"신의 징부(聘父)[6]며 류소현과 김평은 신의 처족(妻族)이로소이다. 전하의 넓으신 덕택을 힘입어 명천(明天)[7]하게 하시면 일후(日後) 구천(九泉)에 가더라도 천은을 갚사올까 하나이다."

왕상이 대희하사 이섬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제수하시고, 류소현으로 상주 목사를 제수하시고, 김평으로 밀양 부사를 제수하시매 각기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 천은을 축사하고 신공의 은덕을 못내 사례하고 각기 직소(職所)로 부임하더라.

각설 신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금실지락(琴瑟之樂)[8]으로 세월을 보낼 새 어언간(於焉間)[9]에 삼남 일녀를 두었으니, 총명과 재질이 특이하여 출중(出衆) 과인함에 위공이 사랑하여 장자의 이름은 상길이요, 차자의 이름은 중길이요, 삼자의 이름은 만길로 지었으니 각기 청년 등과(登科)[10]하여 벼슬이 일품에 처하고, 딸의 이름은 소희니 용모와 문학이며 재덕이 비상하매 우승상의 며느리 되어 부귀를 누리더라.

이때 위공의 연광(年光)이 칠십 세에 이르러 기력이 쇠진하매, 상소를 닦아 벼슬을 사직하고 무주 고비촌 고향에 금의환향으로 내려가더라.

독자(讀者)시여, 여차(如此)한 동자(童子)[11]를 보게 되면 인물 우열(優劣)을 가히 알 지라.

고진감래(苦盡甘來)며 흥진비래(興振悲來)는 천연 공리어니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매양 영귀할수록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득롱망촉(得隴望蜀)[12]하는 마음으로 더욱 극

18) 한 사람.
19) 상처 입음.
1)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풂.
2) 임금을 뵘.
3) 제후.
4)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매우 기쁨.
5) 병권을 가진 벼슬아치가 병부(兵符) 주머니를 매어 차던, 길고 넓적한 녹비 끈.
6) 장인.
7) 하늘을 밝게 함.
8) 부부간의 화목한 즐거움.
9)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10) 벼슬에 급제함.
11) 어린아이. 여기서는 신유복과 같은 이.
12) 농(隴)을 얻고서 촉(蜀)까지 취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후한(後漢)의 광무

귀(極貴) 할 양으로 불나비 밝은 빛을 탐하여 등잔불에 달려들고, 소경이 평평함을 취하여 파밭에 들어가듯이 한없이 극귀(極貴)한 지위를 엉뚱 맹랑스럽게 도모하려다가 도리어 신망가폐(申亡家廢)[1]하는 지경을 당하여 노루 배꼽 씹고 사슴뿔을 분지르는 탄식을 한들, 후회막급이요 막가내하(莫可奈何)[2]라

서한(西漢) 적 장량(張良)은 적송자(赤松子)를 따라갔다 하고[3], 월국(越國) 시대에 범려(范蠡)는 오호(五湖)를 건너가서 육축(六畜)[4] 장사하고[5], 부귀(富貴)를 부운(浮雲)같이 여기여 피흉취길(被凶就吉)[6]하던 사람이 있으되, 이같이 달관한 신유복은 부귀공명이 지족(知足)함을 깨달음으로 세상 아자(俄者)[7] 쓸데없다.

공성신퇴지후(功成身退之後)[8] 임천(林泉)[9]에 초당(草堂)지어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여러 자손 교육시키며 부모 위하여 사당집을 정결 건축하고, 공전절후(空前絕後)[10]한 충렬부인 옆에 동좌(同坐)하고 남노여비(男奴女婢)로 더불어 농업과 방적(紡績)으로 힘써 치산(治産)하며 원근 친구를 청요(請邀)[11]하여 음풍영월(吟風詠月)[12]로 세월을 한양(閑養)[13]하여 가며, 여가에 아름다운 풍광이 내도(來到)[14]하면 경치를 취하여 휘주승선(徽州乘船)[15]하여 거문고 줄을 울리며, 강호(江湖)에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소자첨(蘇子瞻)[16]의 지취(志趣)를 밟으니, 세상에 알거나 알지 못한 행려(行旅) 과객(過客)[17]이 되매, 옛날 입신양명(立身揚名)한 후 영귀하던 일을 도리어 생각하여 보면 일장춘몽(一場春夢)일러라.

옛적에 자죽주[18]는 천추(千秋)의 보감(寶鑑)[19]이 되매 뉘라서 흠선(欽羨) 칭찬 아니할 이 없더라.

슬프도다. 인생 수요(壽夭) 장단(長短)은 천연 공리라. 어찌 인력으로 하리오.

이때는 마침 하(夏) 사월 망간(望間)이라. 녹음방초(綠陰芳草) 승화시(勝花時)[20]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오동야월(梧桐夜月)[21] 달 밝은 때를 당한지라.

이때 공이 부인을 대하여 왈,

"우리가 상주에서 움 속에 살림하던 것이 어제 같더니 벌써 우리 연광(年光)이 칠십여 세에 이르러 백발이 성성(星星)[22]하매 다시 젊든 못하리로다."

하매, 부인이 미소 왈,

"조여청사모성설(朝如靑絲暮成雪)[23]이라 하든 옛사람의 말을 망치(忘置)[24]하셨나이까?"

제가 농(隴) 지방을 평정한 후에 다시 촉(蜀) 지방까지 원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망촉·평롱망촉.

1) 몸과 집이 망함.
2) 막무가내.
3) 유방이 황제가 되게 하는데 공을 세운 장량이 부귀공명을 사양하고 적송자(신선)를 찾아 청산으로 들어간 일.
4)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으로 소·말·돼지·양·닭·개.
5) 범려가 구천(勾踐)을 월왕(越王)에 오르게 하고 상장군이 되었으나, 오호에 이르자 벼슬에서 물러났던 일.
6)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일을 취함.
7) 세상의 옛일(?)
8) 공을 이룬 후에 물러남.
9) 자연
10)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음. 전무후무.
11) 남을 청하여 맞이함.
12) 음풍농월.
13) 한가로이 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함.
14) 와 닿음.
15) 휘주에서 뱃놀이 함(?).
16) 소식(蘇軾).
17) 지나다니는 나그네.
18) ?
19) 다른 사람이나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일이나 사물.
20)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나을 때.
21) 오동나무에 달이 뜰 때,
22)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함.
23) 아침에는 푸른 실 같았으나 저녁에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 쉬 늙음을 탄식하는 말.
24) 잊어버림.

신공이 생각하되 전정(前情) 무일(無逸)함을 깨닫고 후원 국내에 보진을 화려히 설배(設排)[1]하고, 잔치를 굉장히 배설(排設)하여 부인과 여러 자녀로 더불어 풍악을 갖추어 날마다 연락(宴樂)하여 즐기더라.

이때는 하(夏) 사월 망간이라. 월색(月色)은 만원(滿園)하고, 화풍은 화창하며 꾀꼬리 벗을 생각하여 부르고, 두견이 고국을 생각하여 슬피 우는데 난데없는 청아(淸雅)[2]한 옥저 소리 은은히 들리거늘, 괴이 여겨 살펴본즉 하늘에서 일위 선관이 내려와 신공을 향하여 길게 읍(揖)하여 왈,

"진세(塵世) 재미가 어떠하시며, 별후(別後)[3] 무양(無恙)하시나이까?"

하니, 공이 답례하여 왈,

"전일(前日)에 한 번도 뵈온 적이 없삽는데, 별후라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생각지 못하겠나이다."

선관이 답하여 왈,

"그대와 부인은 천상 선관 선녀로서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양계(陽界) 인연을 맺어 진세에 적강(謫降) 시키셨더니, 옥황상제께옵서 나를 명하사 그대 부부를 데려오라 하시기로 내려왔사오니 인간 재미를 생각지 마시고 바삐 가사이다."

하거늘, 공과 부인이 여러 자녀를 돌아다보며 자녀들을 대하여 한마디씩 일러 주더라.

이때 마침 천지 진동하고 채운(彩雲)이 일어나며 옥저 소리 다시 나는 듯하더니, 공과 부인이 간 데 없거늘, 비로소 여러 자녀들이며 남녀노소들이 상공이 백일승천(白日昇天)[4]한 줄을 알고 애통하며 그 상공과 부인의 덕성을 사모하여 일희일비(一喜一悲)[5]하여 지내더라.

자손들이 하릴없어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갖추어 선영하에 대장(大葬)[6]으로 허장(虛葬)[7]을 지내고, 예로써 삼년 초토(草土)[8]를 극진히 마친 후에 삼자(三子) 일서(一壻)가 청년 등과하여 벼슬이 일품에 처하여, 자손이 창성(昌盛)[9]하고 금옥(金玉)이 만당(滿堂)[10]하여 세대(世代)로 영귀하고 현달(顯達)[11]한 공명이 면면부절(綿綿不絕)[12]하여 신씨 부부의 사적(事績)[13]이 하도 특별하기로 대강 기록하노라.

신유복전 종(終).

1) 배설(排設).
2) 맑고 아담함.
3) 이별 후
4) 신선이 되어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는 일.
5)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6) 왕족의 장례.
7) 오랫동안 생사를 모르거나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시체 없이 그 사람의 옷가지나 유품으로써 장례를 치름. 또는 그 장례.
8)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喪中)임을 이르는 말.
9) 일이나 기세 따위가 크게 일어나 잘되어 감.
10) 가득함.
11) 벼슬이나 명성·덕망이 높아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남
12)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끊어지지 않음.
13) 일의 실적이나 공적.

(원문)

신류복젼

화셜 히동 조션국 명종대왕 시졀이라

젼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에 일위 명ᄉᆞ 잇스되 셩은 신이오 명은 영이니 장렬공 팔셰손이오 사ᄃᆡ진ᄉᆞ 신담의 아달이라

어려서부터 총명이 괴인ᄒᆞ며 학업을 힘셔 학녁이 출즁ᄒᆞ야 작문에 항심잠의ᄒᆞ다가 경과 초시로 회시 장원ᄒᆞ야 진ᄉᆞ에 쏍혜ᄂᆞᆫ지라

왕상이 긔특이 역이사 실ᄅᆡ를 진퇴ᄒᆞᆫ신이라

신영이 사은숙ᄇᆡᄒᆞ고 물너나와 고향에 도라와 가묘에 ᄇᆡ현ᄒᆞ고 션산에 영분ᄒᆞᆫ 후에 부인 최씨로 더부러 농사를 힘셔 가산은 셤부ᄒᆞ나

다만 슬ᄒᆞ에 일졈혈육이 업스ᄆᆡ ᄆᆡ양 슬퍼하더니

일일은 진ᄉᆞㅣ 부인으로 작반ᄒᆞ야 울울ᄒᆞᆫ 비회를 풀고ᄌᆞ ᄒᆞ야 후원 동산에 올나가 일변 풍경도 완상ᄒᆞ며 일변 산ㅣ쏘로 이리져리 ᄇᆡ회ᄒᆞ다가 인간 삼싱ᄉᆞ를 담화ᄒᆞᆯᄉᆡ

잇ᄊᆡᄂᆞᆫ 맛참 춘삼월 망간이라 동산 겨원에 ᄇᆡᆨ화는 만발ᄒᆞ야 불긋불긋ᄒᆞ며 젼쳔 후당에 량류는 의의ᄒᆞ야 파늣파늣ᄒᆞ야 원근산쳔을 단쳥ᄒᆞ얏는ᄃᆡ 화간접무ᄂᆞᆫ 분분셜이요 류상잉비는 편편금이며 비금주수ᄂᆞᆫ 춘흥을 못 이기여 이리져리 ᄇᆡ회ᄒᆞ다가 인간 삼싱ᄉᆞ를 담화ᄒᆞᆯᄉᆡ

잇ᄊᆡᄂᆞᆫ 마참 춘삼월 망간이라 동산 셔원에 ᄇᆡᆨ화는 만발ᄒᆞ야 불긋불긋ᄒᆞ며 젼쳔 후당에 량류는 의의ᄒᆞ야 파늣파늣ᄒᆞ야 원근 산쳔을 단쳥ᄒᆞ얏ᄂᆞᆫᄃᆡ 화간졉무ᄂᆞᆫ 분분셜이요 류상잉비는 편편금이며 비금주수ᄂᆞᆫ 춘흥을 못 이기여 이리저리 쌍거쌍ᄅᆡ라

물식이 졍여차홈ᄆᆡ 차쳐차경을 가지고도 즐거온 사람으로 ᄒᆞ야금 보게드면 환환희희ᄒᆞ야 흥치일층 도도ᄒᆞ기고 슬푼 사람으로 ᄒᆞ야금 보게드면 우우탄탄ᄒᆞ야 수회 일층 증가ᄒᆞᆯ너라

마참 일락셔산ㅣᄒᆞ고 월출동녕일ᄉᆡ 명랑ᄒᆞᆫ 월식을 ᄭᆡ고 도라오다가

진ᄉᆞㅣ 부인을 ᄃᆡᄒᆞ야 추연 탄 왈

우리 현인의 자손으로 내게 이르러 오ᄃᆡ 공명이 부족한 거슨 업스되 다만 일졈혈육이 업기로 만년향화를 끈케 되니 수원수구ᄒᆞ리요 사후 ᄇᆡᆨ골이라도 조션에 큰 죄인을 면치 못ᄒᆞ리로다 이러므로 이 갓흔 화조월셕을 ᄆᆡ양 당ᄒᆞ면 비회를 억졔치 못ᄒᆞ깃도다 ᄒᆞ거ᄂᆞᆯ

부인이 함누 ᄃᆡ 왈

우리 문중에 무ᄌᆞ홈은 다 쳡의 죄악이라 오형지속에 무후막ᄃᆡ라 ᄒᆞ오니 맛당이 그 죄 만번 죽엄 즉ᄒᆞ오되 도리혀 군ᄌᆞ의 널부신 덕을 입ᄉᆞ와 존문에 의탁ᄒᆞ와 녕화로이 지ᄂᆡ오니 그 은혜 ᄇᆡᆨ골란망이로소이다 다른 법문도가에 요조숙녀를 구ᄒᆞ시와 취쳐ᄒᆞ야 귀ᄌᆞ를 보시면 칠거지악을 면ᄒᆞᆯ가 ᄒᆞ나이다

진ᄉᆞ 미소 답 왈

부인의게 업ᄂᆞᆫ ᄌᆞ식이 타인의게 취쳐ᄒᆞᆫ들 엇지 싱남ᄒᆞ오릿가 이ᄂᆞᆫ 다 나의 팔ᄌᆞ이오니 부인은 안심ᄒᆞ옵소셔 ᄒᆞ오며

시동을 사용ᄒᆞ야 주효를 ᄂᆡ와 진ᄉᆞ 부인으로 더부러 권ᄒᆞ거니 마시거니 일ᄇᆡ일ᄇᆡ 부일ᄇᆡ로 셔로 위로ᄒᆞ며 마신 후에 진ᄉᆞ와 부인이 취흥을 못 이기여 각긔 침소로 도라오니라

이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ᄒᆞ야 젼젼반칙ᄒᆞ다가 젹막ᄒᆞᆫ 빈 방 안에 올연 독좌ᄒᆞ야 비회를 등촉에 붓치여 이리져리 곰곰 싱각다가 옛젹에도 자식 업ᄂᆞᆫ 사람이 텬지 일월 셩신의게 졍셩드려 득남ᄒᆞᆫ 사람이 잇스니 나도 자식을 비러보리라 ᄒᆞ더니

마참 진ᄉᆞ ᄂᆡ당으로 드러오시거ᄂᆞᆯ 부인이 진ᄉᆞ를 ᄃᆡᄒᆞ야 엿ᄌᆞ오되 녯젹에 작식을 비러 득남ᄒᆞᆫ 사람이 만ᄊᆞ오나 쳐도 고인의 일을 힝ᄒᆞᆯ가 ᄒᆞ나이다

진ᄉᆞ 쳥파에 부인 말ᄉᆞᆷ 갓흐면 셰상에 무자ᄒᆞᆯ 사람이 업ᄉᆞ오릿가 그러ᄒᆞᆫ 허탄의 말ᄉᆞᆷ을 다시 ᄒᆞ시지 마옵소셔

부인이 ᄯᅩ 엿ᄌᆞ오되 고언에 왈 졍셩이 지극ᄒᆞ면 지셩이 감텬이라 ᄒᆞ얏스니 명산대쳔에 가셔 지셩으로 졍셩드리여 득남 발원이나 ᄒᆞ야 보면 텬디신명이 혹시 감동ᄒᆞᄉᆞ 일긔 동ᄌᆞ를 졈지ᄒᆞ와 후사를 이어 조션에 죄를 면ᄒᆞᆯ가 ᄒᆞ나이다

진ᄉᆞㅣ 부인의 졍셩스러온 마음을 감응ᄒᆞ야 즉시 힝장을 수습ᄒᆞ야 남방으로 향ᄒᆞ니라

ᄶᅥ난 지 여러 날 만에 제주 한라산을 당도ᄒᆞ야 수십 명 녁졍을 사용ᄒᆞ야 불일셩지로 제단을 건

축ᄒᆞ고 진ᄉᆞ 부쳐ㅣ 목욕지게ᄒᆞ야 일심셩녁으로 빅일 긔도를 맛치고 본졔로 도라오니라

그 부인의 졍셩이 이 갓튼니 텬도 엇지 무심ᄒᆞ시리요 그날 밤에 부인이 자연 곤뇌ᄒᆞ야 안식에 의지ᄒᆞ야 잡간 조흐더니

비몽사몽간에 한라산 션관이 일긔 션동을 다리고 와 부인을 ᄃᆡᄒᆞ야 왈

부인의 졍셩을 감사이 역기여 이 아희를 드리니 잘 교륙시케 문호를 빗ᄂᆡ게 ᄒᆞ시되 이 아희ᄂᆞᆫ 범상ᄒᆞᆫ 사람이 아니라 텬강 규셩 션동으로셔 하ᄂᆞ님씌 득죄ᄒᆞ야 진셰에 젹강홈을 당ᄒᆞ얏스나 일후 령귀하련이와 그러나 그ᄃᆡ 부부 젼싱에 죄 중ᄒᆞ야 수한이 길지 못홈ᄆᆡ 이 아희가 초년 고싱을 면치 못ᄒᆞ깃기로 그ᄃᆡ 부부은 아달의 락을 보지 못ᄒᆞᆯ 거시니 가장 슬푸고 불상ᄒᆞ도다 ᄒᆞ고 문득 간 곳을 아지 못ᄒᆞᆯ너라

만참 게명셩에 최씨 놀나 ᄭᆡ보니 일장춘몽이라

몽ᄉᆞ가 이상ᄒᆞ야 셔ㅣ운ᄒᆞ기로 즉시 진ᄉᆞ를 쳥ᄒᆞ야 몽ᄉᆞ를 엿ᄌᆞ온ᄃᆡ

진ᄉᆞ 왈

나의 몽ᄉᆞ도 이 갓흐니 참 이상ᄒᆞ고 셔운ᄒᆞ외다 ᄒᆞ며 일변 ᄂᆡ렴에 귀ᄌᆞ나 둘가 옹망ᄒᆞ야 ᄒᆞ며 일변 득남ᄒᆞᆯ지라도 아달의 락을 보지 못ᄒᆞᆯ가 셔운ᄒᆞ야 ᄒᆞ나

진ᄉᆞ 부인 최씨로 더부러 과연 그 달부터 ᄐᆡ긔 잇슴ᄆᆡ 진ᄉᆞ 싱각ᄒᆞ되 싱남홈을 바라고 바라더니

슬푸고 슬푸도다 조물이 시긔ᄒᆞ고 귀신이 작희홈인지 잉ᄐᆡ 륙 삭에 진ᄉᆞ 우연 득병ᄒᆞ야 병셰 침중ᄒᆞ니 빅약이 무효일ᄉᆡ

진ᄉᆞ 살지 못ᄒᆞᆯ 줄 알고 부인 최씨를 쳥ᄒᆞ야 집수쳬읍ᄒᆞ며 류어 왈

지금 부인이 잉ᄐᆡᄒᆞ얏슴ᄆᆡ 몽ᄉᆞ를 싱각ᄒᆞ면 응당 귀ᄌᆞ를 나을 거시나 녕귀홈과 자미를 보지 못ᄒᆞ리라 ᄒᆞ얏스니 그은 그런ᄒᆞ련이와 녯젹 현인군ᄌᆞ의 교륙ᄒᆞ던 법을 효칙ᄒᆞ야 슬ᄒᆞ에 잠미를 볼가 ᄒᆞ야더니 히복ᄒᆞᄂᆞᆫ 것도 못 보고 쇽졀업시 황쳔긱이 되깃스니 엇지 슬푸지 아니ᄒᆞ리요 사람 수요장단ᄂᆞᆫ 텬명이온즉 차장ᄂᆡ하오 그러나 나 죽은 후라도 부인은 삼가 조심ᄒᆞ야 가시다가 만일 녀ᄌᆞ를 나흐시면 헐 말 업거니와 요힝이 남ᄌᆞ를 나으시거든 학문이나 잘 가로쳐셔 문호를 빗나게 ᄒᆞ고 요조숙녀를 광구ᄒᆞ야 ᄇᆡ필를 졍ᄒᆞ야 자미를 보옵소셔

말을 맛침ᄆᆡ 명이 진ᄒᆞ니 일긔 망극ᄒᆞ야 곡셩이 진동ᄒᆞᄂᆞᆫ지라

잇ᄯᅢ 부인이 ᄯᅩᄒᆞᆫ 긔졀 ᄒᆞ거ᄂᆞᆯ 비복등이 구ᄒᆞ야 게우 인ᄉᆞ를 차리심ᄆᆡ 관곽을 갓초아 례로써 션녕ᄒᆞ에 안장ᄒᆞ고 조셕으로 익통홈을 마지 아니ᄒᆞ더라

셰월이 류수 갓ᄒᆞ야 잉ᄐᆡᄒᆞᆫ 지 십사 삭이 됨ᄆᆡ 일일은 오싀 치운이 집을 두루며 향긔 만실일ᄉᆡ 부인이 조흔 증조 잇슴을 보고 만심환희ᄒᆞ야 옥노에 향을 사르며 소학 ᄂᆡ직편을 녈남ᄒᆞ다가 혼미 중 일긔 옥동을 탄싱ᄒᆞ니 용모 장ᄃᆡᄒᆞ며 표범이 머리와 룡의 얼골이오 곰의 등이며 자나뷔 팔이요 일이의 허리며 겸ᄒᆞ야 소릭가 뢰셩 갓홈ᄆᆡ 사람이 이목을 놀ᄂᆡᄂᆞᆫ지라

최씨 부인이 슬픈 즁에 대희ᄒᆞ며 깁분 중에 비감ᄒᆞ야 탄식 왈

슬푸다 네 부친이 사라 게섯드면 오직 즐거ᄒᆞ섯게ᄂᆞᆫ야 ᄒᆞ며

못니 설어ᄒᆞ야 왈

아름다온 ᄇᆡ필을 ᄐᆡᄒᆞ야 봉황의 짝을 지어 록수에 노ᄂᆞᆫ 양을 보고ᄌᆞ ᄒᆞ더니 슬푸고 가련ᄒᆞ도다 고진감ᄂᆡ오 홍진비릭ᄂᆞᆫ 텬연공리라

ᄯᅩᄒᆞᆫ 부인이 우연 득병ᄒᆞ야 병셰 가장 위중ᄒᆞᄆᆡ 의약을 쓴들 일분이나 효험이 잇슬리요 병의 증세 졈졈 위즁ᄒᆞ야 가니

부인이 살지 못ᄒᆞᆯ 줄 알고 류복의 손을 잡고 낫츨 ᄃᆡ이며 익통 왈

슬푸다 류복아 젼싱에 무삼 죄로 차싱에 모ᄌᆞ되여 나셔 엄의 복즁을 써ᄂᆞᆫ 지 불과 오 세에 모ᄌᆞ리별이 무슴 일린고 네의 부친이 사라 게시거ᄂᆞ 우리 집의 내외간 친쳑이 잇섯든들 서름이 그다지 아니 되련만은 내 몸이 죽은 후에 고독단신된 어린 거시 어데 가 의탁ᄒᆞ며 누구를 밋고 살니요 ᄒᆞ며

네의 신세를 싱각ᄒᆞ면 목이 메고 눈이 컹컹ᄒᆞ며 졍신이 아득ᄒᆞ야 마음을 진졍ᄒᆞᆯ 기리 업도다 너를 나아 길늘 젹에 마른 자리에 너를 뉘이고 져즌 자리에ᄂᆞᆫ 내가 누으며 일시도 못 보면 가슴이 답답ᄒᆞ고 우름 소릭를 들으면 신혼이 살란ᄒᆞ며 주야로 써나지 못ᄒᆞ고 불면 ᄂᆞᆯㅅ가 쥐면 써질ㅅ가 ᄒᆞ며 금ᄌᆞ동아 은ᄌᆞ동아 만첩쳥산 옥포동아

너를 금지옥렴으로 역게 양륙ᄒᆞ야더니 네 팔ᄌᆞ 긔박ᄒᆞ야 이 디경을 당ᄒᆞ니 사고무친ᄒᆞᆫ 어린 아히 촌촌걸식ᄒᆞ야 류리ᄀᆡ걸ᄒᆞᆯ 거시니 어더먹는 거러지를 뉘 아라셔 불상이 역기리요 나이 혼빅이라도 디ᄒᆞ에 도라가도 눈를 감지 못ᄒᆞ리라 ᄒᆞ며

시비 춘ᄆᆡ를 불너 류탁ᄒᆞ야 왈

너의 츙졀를 임의 아라ᄊᆡ니와 나 죽은 후라도 류복 아긔를 잘 보호ᄒᆞ야 길너셔 신씨 후ᄉᆞ를 잇게 ᄒᆞ면 구텬에 도라가 만날지라도 그 은혜를 갑흘 거시니 부ᄃᆡ 내의 류탁을 깁히 ᄉᆡᆼ각ᄒᆞ라 ᄒᆞᆫᄃᆡ

츈ᄆᆡ 통곡ᄒᆞ며 엿ᄌᆞ오되 복원 부인게옵셔는 심려 마르시고 귀체 안보ᄒᆞ옵소셔 만일 불힝ᄒᆞ실지라도 쇼비 죽기로ᄊᆡ 공ᄌᆞ를 극진 보호ᄒᆞ리이다 ᄒᆞ니

최부인이 류복의 손를 잡고 잠간 늣기다가 인ᄒᆞ야 명이 진ᄒᆞᄆᆡ 남노녀비등이 망극ᄒᆞ야 통곡ᄒᆞᆯᄉᆡ

류복이 더욱 방셩대곡ᄒᆞ야 긔졀ᄒᆞ얏다가 모친의 저슬 어로만지며 이통ᄒᆞ야 왈

어머니ᄂᆞᆫ 엇지 나를 보고 반기실 줄 모르ᄂᆞᆫ잇가 ᄒᆞ며 아모련 줄 모르더라

잇ᄊᆡ 츈ᄆᆡ 더욱 망극ᄒᆞ야 류복을 안고 달니여 왈

공ᄌᆞ는 우지 말고 나의 등에 어피소셔 ᄒᆞ며 부인ᄭᅦ옵셔 잠을 ᄭᆡ시면 엇지 사랑 아니 ᄒᆞ시릿가 ᄒᆞ며

류북을 업고 제 처소로 도라와 극진 위로ᄒᆞ며 노복으로 ᄒᆞ야금 금의 금관을 차려 선령에 합폄ᄒᆞᆫ 후에

류복을 진심탈력으로 사랑ᄒᆞ야 보호ᄒᆞ며 조셕졔젼를 졍셩것 봉힝ᄒᆞ니 근동린리 사ᄅᆞᆷ 쳣놋코 칭찬 아니ᄒᆞ 리 업더라

그러나 부인 도라간 후로 쥬장무인ᄒᆞᄆᆡ 노복등이 거취를 임으로 ᄒᆞ야 가졍이 물란ᄒᆞᄆᆡ 가산이 자연 탕픽ᄒᆞ니 그 참혹ᄒᆞᆷ을 엇지 셩언ᄒᆞ리요

부인의 삼년초토를 다 밧드도록 츈ᄆᆡ 졍셩으로 류복을 공경보호ᄒᆞ며 글를 힘써 가르치더니 ᄋᆡ지라 통ᄌᆡ로다 츈ᄆᆡ 또ᄒᆞᆫ 병을 어더 긔지사경에 당ᄒᆞᆫ지라

류복이 손을 잡고 탄 왈

셰상에 도망키 어려운 거슨 사람의 명이라 쳡이 또ᄒᆞᆫ 죽게 되얏스니 명지슈요쟝단을 엇지 ᄒᆞ오릿가 이왕에ᄂᆞᆫ 공자 어려운 일을 당ᄒᆞᆯ ᄊᆡ마다 츈ᄆᆡ의 염예드니 지금은 공자 장셩ᄒᆞ야 비젼ᄒᆞ오면 염녀 적으나 다만 셩취ᄒᆞᆷ을 보지 못ᄒᆞ고 이런 중병을 어덧스니 죽어 디ᄒᆞ에 도라가도 부인 뵈올 낫치 업슬지니 엇지 슬푸지 아니ᄒᆞ리요 쳡이 죽은 후면 공ᄌᆞ의 의탁ᄒᆞᆯ 곳시 업ᄊᆞ오니 부ᄃᆡ 귀체를 안보ᄒᆞ소셔 ᄒᆞ며

다수ᄒᆞᆫ 문젹을 ᄂᆡ여노코 동리 사람을 쳥ᄒᆞ야 부탁ᄒᆞ야 왈

다른 사ᄅᆞᆷ은 이 문젹을 가져가도 무익ᄒᆞᆯ 거시요 우리 공ᄌᆞ는 나희 류치ᄒᆞ야 간수ᄒᆞᆯ 수 업스니 동리에셔 괴로옵다 마시고 이 문젹을 대동 사고에 잘 장치ᄒᆞ얏다가 일후 공ᄌᆞ의게 도로 환송ᄒᆞ야 주옵소셔 ᄒᆞ며

긔즁에 호젹과 셰게 ᄒᆞᆫ 장을 ᄂᆡ여 공ᄌᆞ을 주어 왈

이ᄂᆞᆫ 양반의 근본이라 조선 세게오니 잘 간수ᄒᆞ얏ᄊᆞ가 후일 조상의 근본을 일치 마옵소셔 ᄒᆞ며 말을 맛치고 명이 진ᄒᆞ니 류복의 참혹ᄒᆞᆫ 졍경을 엇지 입으로 형언ᄒᆞ리요

류복이 모친의 상을 당ᄒᆞᆫ 후에 츈ᄆᆡ의 지극ᄒᆞᆫ 졍셩을 힘입어 모친의 졍을 이졋더니 불의몽ᄆᆡ에 츈ᄆᆡ 또ᄒᆞᆫ 죽으ᄆᆡ 슬푸기 비ᄒᆞᆯ 데 업셔 ᄋᆡ통ᄒᆞ야 왈

모친 하세ᄒᆞᆯ ᄊᆡ보다 더 설다 ᄒᆞ더라

잇ᄊᆡ 류복의 나히 게우 초구 세라 동리 사ᄅᆞᆷ을 사용ᄒᆞ야 선산 ᄒᆞ에 장사 지ᄂᆡ고 의탁ᄒᆞᆯ 곳시 업서 집을 덧ᄂᆞ 모친 묘소에 나아가 방셩대곡ᄒᆞ니 청텬ᄇᆡᆨ일이 무광ᄒᆞ고 가ᄂᆞᆫ 구름이 위로ᄒᆞ야 머므는 듯ᄒᆞ고 산중 두견ᄉᆡ는 슬피 우러 사람의 수심을 돕ᄂᆞᆫ 듯ᄒᆞ더라

류복이 모친 묘소를 하즉ᄒᆞ고 졍처업시 길를 힝ᄒᆞᆯᄉᆡ 춘ᄆᆡ 주든 호젹과 세게를 옷깃 쇽에 간수ᄒᆞ고 마을을 차저 밥을 비러먹고 날이 져물면 방아간에 드러가 밤을 지ᄂᆡ고 ᄆᆡ일 도문걸식ᄒᆞ니 그 참혹ᄒᆞᆫ 경상을 참아 보지 못ᄒᆞᆯ너라

날이 졈졈 갈수롯 긔갈이 자심ᄒᆞ야 촌보를 힝치 못ᄒᆞ야 ᄒᆞᆯ수업서 남에 쇼를 멕여주고 잔명을 보젼ᄒᆞ야 세월을 보ᄂᆡ더니

일일는 목동이 ᄒᆞᆫ가지로 초장에 나가 쇼를 먹이더니 류복이 호련 ᄀᆞᆼᄀᆡᄒᆞᆫ 마음을 발ᄒᆞ야 울뎍ᄒᆞᆷ을 억제치 못ᄒᆞ야 장탄으로 ᄒᆞᆫ 노ᄅᆡ를 지어 희

롱ᄒᆞ니

그 노ᄅᆡ에 ᄒᆞ얏스되 녯말에 셩인이 나심ᄆᆡ 괴린이 나고 현인이 남ᄆᆡ 봉황이 나고 장ᄉᆞ가 남ᄆᆡ 룡ᄆᆞ 난다더니 고금 물논ᄒᆞ고 녕웅호걸이 불우시흠온 무삼 일인고 슬푸고 슬푸다 창창ᄒᆞᆫ 져 ᄒᆞ놀은 아비도로 놉ᄒᆞ잇고 회회ᄒᆞᆫ 싸은 어미도 널너잇네 엇지타 이ᄂᆡ 몸은 복중류ᄌᆞ 되얏스니 아비도로 놉ᄒᆞ 잇고 회회ᄒᆞᆫ 싸은 어미 도로 널너 잇네 엇지타 이ᄂᆡ 몸은 복중류ᄌᆞ 되얏스니 아비 도를 엇지 알가 호텬망극 ᄂᆡ 아니며 가지로 조실긔모ᄒᆞ얏스니 어미 도를 엇지 알가 무호무시 ᄂᆡ 아닛가 광활ᄒᆞᆫ 텬디간에 혈혈단신 이ᄂᆡ 몸이 ᄐᆡ창졔미 아득ᄒᆞ고 창히일속 묘연ᄒᆞ다 슬푸다 녯일을 ᄉᆡᆼ각ᄒᆞ니 은왕 셩탕 ᄭᅴ 이윤이은 신야에 밧슬 갈고 고종 ᄭᅴ 부렬이은 부암에 담을 싸고 문왕 ᄭᅴ 강ᄐᆡ공은 위수변에 고긔 락구고 회음후 한신이은 표모의게 밥을 빌고 당ᄐᆡ종 ᄭᅴ 울지경덕이은 야졈에 고용되야 쳔신만고ᄒᆞ다가 ᄒᆞ놀 운슈 도라와셔 셩군현신이 셔로 만나 억조창싱 건져ᄂᆡ고 녕귀홈이 지극ᄒᆞ얏ᄂᆞᆫᄃᆡ 슬푸다 이ᄂᆡ 몸은 바람에 쑥ᄃᆡ갓치 물결에 ᄯᅳᆫ 부평초라 만리젼젼이 망연ᄒᆞ다 ᄒᆞ놀이 령융 닐 ᄭᅴᄂᆞᆫ 션고긔지 ᄒᆞ시ᄂᆞᆫ 게라 옛사ᄅᆞᆷ ᄉᆡᆼ각ᄒᆞ야 만고쳔신 나아가면 ᄒᆞ놀 운슈 도라와셔 요순은탕 다시 만나 텬ᄒᆞ 창싱 건져ᄂᆡ고 금의환향 후 희호셰게 다시 보셰 여보라 초동드라 내 노ᄅᆡ 네 알소냐 화답ᄒᆞ는 사람 업기로 고만져만 ᄉᆞᆺ치노라

노ᄅᆡ ᄉᆞᆺ치고 이러나 원산 바라보니 나ᄂᆞᆫ ᄉᆡᄂᆞᆫ 수풀노 오고 푸른 연긔는 원촌에 이러나더라

이ᄭᅴ 류복이 더욱 비감ᄒᆞ야 눈물를 흘여 옷깃슬 젹시건놀 목동들이 듯기를 다ᄒᆞ고 수상이 역기더라

이날 류복이 쇼를 잇글고 도라와 죵시 울젹ᄒᆞᆫ 마음을 억제치 못ᄒᆞ야 혀아리되 남의 고용이 되야 쳔ᄃᆡ가 자십ᄒᆞ니 장부 엇지 남의 휘ᄒᆞ에 속절업시 초목과 갓치 썩으리오 찰하리 사히팔방으로 주류ᄒᆞ야 명산대쳔을 완상홈미 올토다 ᄒᆞ고 주인ᄭᅴ ᄒᆞ즉ᄒᆞ고 길를 덧나 던던걸식ᄒᆞ야 가ᄂᆞᆫ지라

각셜 잇ᄭᅴ 경상도 상주읍에 다다르니 이곳 이력ᄒᆞᄂᆞᆫ 사람이 잇스니 셩명은 리셤 이라

본ᄅᆡ 향인의 자손으로 근고 잇셔 호장을 ᄒᆞ얏더니 일즉 취쳐ᄒᆞ야 남ᄌᆞᄂᆞᆫ 업고 다만 녀식 삼형뎨를 두엇스니 장녀의 명은 경옥이요 차녀의 명은 경란이요 삼녀의 명은 경ᄑᆡ라

경ᄑᆡ를 잉ᄐᆡᄒᆞᆯ ᄭᅴ에 텬상에셔 션관이 나려와셔 일으되 나는 월궁션녀로서 옥황상뎨ᄭᅴ 득죄ᄒᆞ고 인간에 젹강ᄒᆞ얏기로 뎐셰에 년분을 ᄎᆞ저와 ᄃᆡᆨ에 의탁코ᄌᆞ 왓ᄊᆞ오니 십숨 년만 양륙ᄒᆞ야 주옵쇼셔 ᄒᆞ고 품에 들거ᄂᆞᆯ ᄭᅴ다르니 남가일몽이라

이상이 역엿더니 그 후 십 삭 만에 일ᄀᆡ 옥녀를 나흐니 용모 아름답고 범인과 다른지라

십 셰에 이르러ᄂᆞᆫ 월ᄐᆡ화용이 요요졍졍ᄒᆞ야 모란화 아참이슬를 먹음은 듯홈ᄋᆡ 호장 부쳐 못ᄂᆡ 사랑ᄒᆞ며 어진 ᄇᆡ필를 어더 슬ᄒᆞ에 ᄌᆞ미를 볼가 ᄒᆞ더라

잇ᄭᅴ 류복이 뎐뎐걸식ᄒᆞ야 두루 다니며 산쳔을 완상ᄒᆞ다가 경상도에 다다라 낙동강을 건너 상주셩에 이르러 물식을 구경ᄒᆞ며 곤곤이 다니더라

잇ᄭᅴᄂᆞᆫ 츈삼월 망간이라

홍살문 거리에셔 이슥도록 두루 다니다가 마침 종각 압혀셔 다리도 압푸고 ᄇᆡ도 곱흠으로 곤흠을 이긔지 못ᄒᆞ야 긔탄 업시 돌를 벼ᄀᆡᄒᆞ고 잠을 깁히 드러ᄂᆞᆫ지라

잇ᄭᅴ 상주 목ᄉᆞ 덕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마참 창고에 힝ᄌᆞᄒᆞ야 환ᄌᆞ를 분급ᄒᆞ고 도라올ᄉᆡ 수ᄇᆡ사령이 류복의 횡와홈을 호령ᄒᆞ며 능장으로 ᄶᅳᆯ너 ᄭᅴ오니 류복이 잠을 ᄭᅴ여 이러 안즈며 아무란 줄 모르고 울기만 ᄒᆞ거ᄂᆞᆯ

목사 잠시 살펴보니 아히의 의복이 람누ᄒᆞ야 몸을 감초지 못ᄒᆞ고 머리터럭이 흐터저 넛츨 가렷ᄂᆞᆫ지라

$$$$주리 ᄆᆡ쳣스니 그 추비ᄒᆞᆫ 거슬 바로보지 못ᄒᆞᆯ너라

그런 가온ᄃᆡ 은은ᄒᆞᆫ 골격과 늠늠ᄒᆞᆫ 풍치ᄂᆞᆫ ᄭᅴ속에 비취거ᄂᆞᆯ

목사 동헌에 좌졍ᄒᆞ시고 그 아히를 불너오라 ᄒᆞ신ᄃᆡ 사령이 즉시 류복을 불너왓거ᄂᆞᆯ 목사 류복을 대상에 오려 안치고 문 왈

네 거주와 셩명은 무엇시며 부친의 일홈은 무어시며 나이ᄂᆞᆫ 몃치ᄂᆞ 되엿ᄂᆞ야

류복이 ᄌᆡ비ᄒᆞ야 울며 왈

쳔싱의 거쥬ᄂᆞᆫ 무쥬 고비촌이옵고 부친의 함ᄶᅡᄂᆞᆫ 신진사 우영이옵고 ᄉᆡᆼ의 일홈은 류복이옵고 나흔 십사 셰로소이다

목사 우문 왈

그런 양반의 자손으로 엇지 ᄒᆞ야 류리ᄀᆡ걸ᄒᆞᄂᆞ요

류복이 엿ᄌᆞ오되 사토쎄옵셔 지극히 하문ᄒᆞ시니 비록 미쳔ᄒᆞ오나 엇지 진젹을 은휘ᄒᆞ오릿가 쳔싱은 과연 쟝졀공의 구셰손이옵고 오ᄃᆡ 진ᄉᆞ 신우영의 아들이옵더니 부친는 쳔싱을 잉틱ᄒᆞᆫ 지 륙 삭 만에 ᄒᆞ셰ᄒᆞ옵고 모친은 쳔싱 나은 지 오 년 만에 긔세ᄒᆞ옵시니 혈혈단신으로 의탁ᄒᆞᆯ 곳시 업ᄊᆞ와 시비 츈ᄆᆡ의게 의탁ᄒᆞ얏ᄉᆞ옵더니 불힝ᄒᆞ야 츈ᄆᆡ 또ᄒᆞᆫ 죽ᄊᆞ오니 가산이 자연 탕피ᄒᆞᄆᆡ 싱계 난쳐ᄒᆞ옵기로 뎐뎐걸식ᄒᆞᄂᆞ이다 ᄒᆞ고 힝쟝에셔 호젹 ᄒᆞᆫ 쟝을 ᄂᆡ여 드린ᄃᆡ

목사 보시고 탄식 왈

네 얼골을 본즉 상인의 자손 안인 줄 아럿건니와 쟝졀공의 자손인 줄 엇지 아라쓰리요 예젹부터 현인과 군ᄌᆞ가 ᄊᆡ를 만ᄂᆞ지 못ᄒᆞ면 일시 고싱은 장부의 상사언이와 참 불상ᄒᆞ도다 ᄒᆞ고

즉시 이방을 불너 왈

너히 관속 즁에 어진 녀식 둔 이가 잇ᄂᆞ야

이방이 엿자오ᄃᆡ 지금 호장으로 잇ᄂᆞᆫ 리 셤이 녀식 삼 형졔를 두엇쓰니 ᄌᆡ질과 용모 과인ᄒᆞ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목ᄉᆞ ᄃᆡ희ᄒᆞ야 리셤을 불너다 분부ᄒᆞ야 왈

내 져 아희를 보니 장ᄂᆡ에 귀이 될 아히라 드르니 네 녀식 잇다 ᄒᆞ니 네 져 아히를 다려가 사위를 삼으면 장ᄂᆡ에 져 아히 덕을 입으리라 ᄒᆞ거ᄂᆞᆯ

리셤이 ᄯᅳᆺ밧게 이 분부를 듯고 대경ᄒᆞ야 눈을 드러 그 아히를 살펴보니 흉악ᄒᆞ고 망측ᄒᆞ야 바로 보지 못ᄒᆞᆯ너라

눈을 ᄲᅵᆼ그리고 엿ᄌᆞ오되 소인이 아모리 하쳔ᄒᆞᆫ 상놈인들 져 갓흔 거렁방이를 사위 삼싸오릿가 죽을지언졍 이 분부ᄂᆞᆫ 봉힝치 못ᄒᆞ개나이다 ᄒᆞ니

목사 대로ᄒᆞ야 ᄭᅮ지져 왈

네 일읍에 호장이 되여 엇지 져대지 무식ᄒᆞᆫ요 자고로 령웅호걸이 초년 곤궁 아니ᄒᆞᆫ 사람메 메치되ᄂᆞᆫ야 엇지 그런 말를 ᄒᆞ리요 져 아히가 비록 의탁ᄒᆞᆯ 곳시 업셔 류리ᄀᆡ걸ᄒᆞ되 명현의 후손이요 오ᄃᆡ 진ᄉᆞ 자손이라 만일 의지ᄒᆞᆯ 곳시 잇슬 량이면 네계 혼인을 바라리요 내가 져 아히가 의탁ᄒᆞᆯ 곳시 업슴을 불상히 역계 분누ᄒᆞ얏거든 네 죵시 ᄲᅵ닷지 못ᄒᆞ니 샹놈일시 분명ᄒᆞ다 금일은 져 아히를 쳔히 역이ᄂᆞ 타일에 반다시 울어러 볼 거시니 잔말 말고 다려다가 사위를 삼으라

호장이 감히 거역지 못ᄒᆞ야 아리오되 혼인은 인륜ᄃᆡ사오니 나아가 가족을 모으고 결짠ᄒᆞ리이다 ᄒᆞ니

목ᄉᆞ 칭탁홈을 더욱 분히 역이여 고셩대로ᄒᆞ야 왈

네가 가장이 되야 가ᄂᆡ지사를 임의로 못 ᄒᆞ고 눌 다려 무러본다 ᄒᆞ니 져 아히를 종시 쳔이 알 거시니와 ᄇᆡᆨ옥이 지토에 뭇쳐슷니 뉘 알니요 네 잔말 말고 밧비 다 러다가 사위를 삼으라 만일 거역ᄒᆞ면 장ᄒᆞ에 죽기를 결코 면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즉시 ᄉᆞ령을 명ᄒᆞ야 류복을 다려다 ᄆᆡᆺ기라 ᄒᆞ니

호장이 ᄒᆞᆯ일업셔 류복을 다리고 집에 도라와 졀통ᄒᆞᆫ 마음을 이기지 못ᄒᆞ야 말도 ᄂᆡ셜치 못ᄒᆞ고 두 손으로 문턱만 두다리며 포원지심을 억졔치 못ᄒᆞ거ᄂᆞᆯ

호장의 쳐가 이 거동을 보고 대경ᄒᆞ야 붓들고 문 왈

무ᄉᆞᆷ 변이 잇관ᄃᆡ 관가로셔 나오며 이ᄃᆡ지 ᄒᆞ시ᄂᆞᆫ잇가

호장이 마지 못ᄒᆞ야 이르되 사토씌셔 나를 불너다가 져 거지로 사위를 삼으라 ᄒᆞ시며 만일 거역ᄒᆞ면 우리 가족을 다 자바다가 죽이리라 ᄒᆞ시니 이를 장ᄎᆞ 엇지ᄒᆞ리요

호장의 쳐가 이 말 듯고 상을 ᄲᅵᆼ그리고 고ᄀᆡ를 외로 ᄭᅩ며 류복을 바라보고 ᄒᆞ는 말이 흉악ᄒᆞ고 망측ᄒᆞ다 져 갓흔 흉물이 셰상에 ᄯᅩ 잇슬가 그런 더러온 말를 다시 마옵소셔

호장이 더욱 소ᄅᆡ를 크게 ᄒᆞ야 ᄋᆡ달곳 가통ᄒᆞ다 흉악ᄒᆞᆫ 인물이 셰상에 나셔 내 집을 망케 ᄒᆞᄂᆞᆫ도다 ᄒᆞ고

쳐를 불너 왈

아모러케ᄂᆞ 아히들를 불너 져 거슬 보이고 취ᄆᆡᆨ이나 ᄒᆞ야 봅시다

즉시 ᄉᆞᆯ 삼 형뎨를 부르니 삼 형뎨 부명을 듯고 일시에 나오거ᄂᆞᆯ

호장이 져 거지를 가라치며 목사의 분부를 졀졀히 이른ᄃᆡ 경옥과 경란이 이 말 듯고 류복을 바라보다가 코쌀을 ᄲᅵᆼ그리며 부모다려 하ᄂᆞᆫ 말이

자식이 밉쌉거든 약을 멱여 죽이옵소셔 져러ᄒᆞᆫ 인물를 우리ᄇᆡ 갓튼 몸에 비ᄒᆞ나잇가 영쳔수가 갓가오면 귀를 쓰고져 ᄒᆞᄂᆞ이다 금시로 집안이 망ᄒᆞᆯ지연졍 거러지를 건쳐에도 두지 말고 멀이 ᄂᆡ여 쏘치옵쇼셔

호장 부쳐 이 말 듯고 ᄃᆡ히ᄒᆞ야 두 ᄯᅳᆯ의 등을 어루만지며 왈

네 말이 올타 ᄒᆞ고 모ᄂᆡ 칭찬ᄒᆞ더니

경ᄑᆡ 겻혜 뫼셧다가 변ᄉᆡᆨ ᄃᆡ 왈

금일은 형림의 말이 가쟝 무식ᄒᆞ도다 텬디간에 오륜이 귀즁ᄒᆞᆫ 중 부자 최즁ᄒᆞ거ᄂᆞᆯ 이졔 부모가 ᄉᆞ경에 이르러ᄂᆞᆫᄃᆡ ᄌᆞ식이 되여 졔 몸만 ᄉᆡᆼ각ᄒᆞ고 부모를 도라보지 아니ᄒᆞ면 ᄌᆞ식의 도리가 아니라 이러ᄒᆞ무로 옛날 창고리에 순우의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실화된 죄를 당ᄒᆞ야 죽계 되얏더니 그 ᄯᅳᆯ 졔령이 글을 올녀 졔 몸을 관비 ᄉᆞᆷ고 그 아비 죄를 ᄃᆡ속ᄒᆞ엿더니 한나라 문졔ᄭᅴ옵셔 긔독히 역이사 졔령을 사ᄒᆞ야 주셧스니 우리도 이졔 부모를 위ᄒᆞᄌᆞ면 거지 아니라 반신불수 병신인들 엇지 ᄉᆞ양ᄒᆞ리오 져 아히의 용모를 보니 비범ᄒᆞ기로 비ᄒᆞᆯ 데 업스며 상이 비록 ᄊᆡ속에 뭇쳐스나 반다시 후일에 구이 될 사ᄅᆞᆷ이라 엇지 일시 빈쳔ᄒᆞᆫ 것을 흉보며 엇지 부모를 도라보지 아니ᄒᆞ리요

경옥 경난이 이 말 듯고 ᄃᆡ로ᄒᆞ야 왈

네가 우리를 ᄎᆡᆨ망ᄒᆞᄂᆞᆫ 체ᄒᆞ고 음ᄂᆞᆫᄒᆞᆫ 마ᄋᆞᆷ으로 네가 져 거러지를 위ᄒᆞ야 살야 하ᄂᆞᆫ도다 ᄒᆞ니

경ᄑᆡ ᄃᆡ 왈

무슨 어려을 거시 잇스리요 졔일은 부모를 위ᄒᆞ야 함이요 둘ᄌᆡᄂᆞᆫ 몸을 위홈이요 저 거진들 한ᄊᆡ가 업스리요

경옥 경난이 이 말을 듯고 왈

이 드러운 년아 져 거지의계 눈이 어두어 음양을 탐ᄒᆞ니 저 거지를 다리고 나아가라 ᄒᆞ며 구박이 자심ᄒᆞᄂᆞᆫ지라

ᄯᅩᄒᆞᆫ 호장 부쳐가 ᄃᆡ로ᄒᆞ야 경ᄑᆡ를 ᄭᅮ지져 왈

너의 삼 형졔 즁 너를 그 즁 ᄉᆞ랑ᄒᆞ얏더니 능지ᄒᆞ고 처참ᄒᆞᆯ 년아 음난ᄒᆞᆫ 마음으로 저 거렁방이를 ᄉᆡᆼ각ᄒᆞ야 부모를 염녀ᄒᆞᄂᆞᆫ 체ᄒᆞ고 사ᄅᆞᆷ을 빙ᄌᆞᄒᆞ나 요망ᄒᆞ고 방졍마진 년아 져 거지를 다리고 너 갈 ᄊᆡ로 가거라 ᄒᆞ며 손으로 등을 미러 문 박게 ᄂᆡ좃치니

경ᄑᆡ 홀일업셔 류복과 한가지로 졍쳐업시 나오니 그 츰혹ᄒᆞᆫ 경을 엇지 측양ᄒᆞ리요

쇼졔 규즁쳐녀로 문 밧글 나지 못ᄒᆞ다가 일조에 의식을 다 바리고 거지 되니 엇지 비감치 아니ᄒᆞ리요

잇ᄊᆡ에 소졔 년이 십삼 셰라

류복이 머리에 이가 마는 고로 이가 주루루 긔여 나ᄂᆞᆫ지라

쇼졔 이가 긔여 남을 보고 동리 ᄉᆞᄅᆞᆷ의 집에 드러가 두 ᄀᆡ 빗슬 어더다가 ᄂᆡ싱에 안치고 머리를 감어 빗기며 슈다ᄒᆞᆫ 이를 잡아 주기고 머리를 빗기며 다졍히 말ᄒᆞ더니

히가 셔산에 달녀것ᄂᆞᆯ 소졔 전역 연긔를 좃차 밥을 빌나 갈ᄉᆡ 류복이 소저를 ᄯᅡ라 마을노 드러가 밥을 비러먹고 방ᄋᆞ싼을 ᄎᆞᄌᆞ가 거젹을 어더다 짤고 두리 마조 누어 팔을 비고 동침ᄒᆞ니 신셰 가긍ᄒᆞᆫ지라

류복은 활달ᄒᆞᆫ 령웅이요 쇼저도 녀즁 군ᄌᆞ라

고어에 ᄒᆞ얏스되 흥진비ᄅᆡ요 고진감ᄅᆡ라 ᄒᆞ니 ᄒᆞᄂᆞ림이 엇지 어진 사ᄅᆞᆷ을 흔업시 곤궁케 ᄒᆞ시리요

쇼졔 ᄯᅩᄒᆞᆫ 류복의 늠늠ᄒᆞᆫ 풍치와 관옥 갓ᄒᆞᆫ 용모을 상ᄃᆡᄒᆞ니 졍이 졈졈 갓갑더라

그러므로 고ᄉᆡᆼ홈을 엇지 한탄ᄒᆞ리요

그 잇흔날 밥을 비러다 먹고 쇼졔 류복다려 왈

슬푸다 텬디만물지즁에 가장 귀ᄒᆞᆫ거슨 ᄉᆞᄅᆞᆷ이라 하엿거든 ᄉᆞᄅᆞᆷ만 못ᄒᆞᆫ 짐ᄉᆡᆼ도 궁기 잇것ᄂᆞᆯ 우리ᄂᆞᆫ 엇지ᄒᆞ야 의지가 업ᄂᆞᆫ고 ᄉᆡᆼ각ᄒᆞ면 엇지 ᄋᆡ달지 아니ᄒᆞ리요 져 근너 북편 돌각덩 이 임ᄌᆞ가 업ᄂᆞᆫ 거시니 돌각덩을 헐고 움이나 ᄒᆞᆫ 간 무더봅시다

동리로 ᄌᆡ목과 이영을 구걸ᄒᆞᆯᄉᆡ 사ᄅᆞᆷ들이 불상이 역겨 닷토아 주거ᄂᆞᆯ 소졔 류복으로 더부러 슈운ᄒᆞ야 움을 뭇고 거젹을 으더 짤고 밥을 비러다 노나먹고 그 밤을 지ᄂᆡᄆᆡ 고루거각에 옥식을 어든 것갓치 역기더라

그러나 깁고 깁흔 졍이야 엇지 비ᄒᆞᆯ 쎄 잇스리요 일젼 남의 방ᄋᆞ간에셔 잠ᄌᆞ든 거슨 일쟝츈몽이라

근쳐 ᄉᆞᄅᆞᆷ들이 류복의 가련ᄒᆞᆫ 졍형과 경ᄑᆡ의 지극ᄒᆞᆫ 졍성을 어엿비 여겨 음식을 ᄋᆡᆨ기지 아니ᄒᆞ고 쥬며 호장 부쳐를 욕 아니ᄒᆞ 리 업더라

류복이 ᄂᆞᆷ의 집 물도 기러주고 방ᄋᆞ질도 히주

니 긔갈은 면ᄒᆞ나 의복이 업ᄉᆞ오ᄆᆡ 의표가 가장 취비ᄒᆞ더라

소제 일일은 류복다려 왈

녯글에 일넛스되 장부 세상에 쳐홈ᄋᆡ 입신양명ᄒᆞ야 문호를 혁혁케 ᄒᆞ며 조션향화를 빗ᄂᆡ게 하라 ᄒᆞ얏스니 문필를 ᄇᆡ오지 못ᄒᆞ면 공명을 엇지 ᄇᆞᄅᆞ리요 이러므로 녯ᄉᆞᄅᆞᆷ도 낫이면 밧갈고 밤이면 글닑거 셩공ᄒᆞ야 쳔츄만년를 류젼ᄒᆞ야 일홈이 긔린각에 영졍ᄒᆞ야 일후에 류젼ᄒᆞᄂᆞᆫ 일이 장부에 당당헌 일이오 무식ᄒᆞᆫ 가온ᄃᆡ 령웅호걸이 잇단 말를 듯지 못ᄒᆞ얏나잇다

류복이 소저의 말를 듯고 감응ᄒᆞ야 왈

내 어려셔 글ᄌᆞ나 일거쓰니 엇지 그런 마음이 업스리요만은 글를 ᄇᆡ으려 ᄒᆞᆫ들 어ᄃᆡ 가 ᄇᆡ오며 ᄯᅩᄒᆞᆫ ᄎᆡᆨ 한 권도 업스니 일노 염예요 졍ᄎᆞ 저 외로온 몸이 뉘를 의지ᄒᆞ리오 ᄒᆞ거ᄂᆞᆯ

낭ᄌᆞ ᄃᆡ 왈

그ᄂᆞᆫ 염녀 마옵소셔 나은 혼ᄌᆞ라도 이웃을 ᄶᅥ나지 아니ᄒᆞᆯ 거시요 양식을 당 ᄒᆞᆯ 거시ᄆᆡ 아모 염녀 마옵소셔 나은 듯싸오니 뒤졀에 잇ᄂᆞᆫ 원강ᄃᆡ사라 ᄒᆞᄂᆞᆫ 중이 도승이옵고 ᄯᅩᄒᆞᆫ 텬ᄒᆞ 문장이라 ᄒᆞ니 거긔 가셔 간졀이 말ᄉᆞᆷᄒᆞ면 글를 가라쳐 줄 듯ᄒᆞ오니 올나가 보옵쇼서 ᄒᆞ고 바로 나아가 ᄎᆡᆨ ᄒᆞᆫ 권을 어더다가 주며 왈

공ᄌᆞ이 나히 십삼 셰라 팔 년을 공부ᄒᆞ야 이십이 되거든 나려와 반기려니와 만일 그 젼에 나려오면 결단코 셰상에 잇지 아니ᄒᆞ오리다 ᄒᆞ고 가기를 지촉ᄒᆞ거ᄂᆞᆯ

류복이 낭ᄌᆞ의 졍셩을 위ᄒᆞ야 ᄎᆡᆨ을 엽혜 ᄭᅵ고 졀에 올나가셔 대ᄉᆞ를 보고ᄌᆞ ᄒᆞ야 초지졍에 이르오ᄆᆡ 대ᄉᆞ 류복을 보고 놀ᄂᆞ 위로 왈

삽ᄉᆞᆷ 년 젼에 규셩이 무주 ᄯᅡ에 ᄯᅥ러졋ᄭᅵ로 일졍 령웅이 난 줄은 아라쓰나 다시 광명이 업기로 분명ᄒᆞᆫ 곤난이 잇슴을 짐작ᄒᆞ얏더니 금일이야 만나도다

위로ᄒᆞ야 왈

장부의 초년고싱은 령웅호걸의 사업지료가 되ᄂᆞᆫ 법이리 사ᄅᆞᆷ이 고초를 지ᄂᆡ지 못ᄒᆞ면 교만ᄒᆞᆫ 사ᄅᆞᆷ이 되리로다 ᄒᆞ고

그 날부터 글를 가라칠ᄉᆡ 류복은 본ᄅᆡ 텬상 션동이라 ᄒᆞᆫ 자를 가라치면 ᄇᆡᆨ ᄌᆞ를 능통ᄒᆞ니 션싱이 긔이 역여 칭찬 왈

이졔ᄂᆞᆫ 글에 당ᄒᆞ야셔ᄂᆞᆫ 더 가ᄅᆞ칠 거시 업ᄂᆞᆫ지라 문무겸비함은 령웅의 지료라 ᄃᆡ장부 엇지 셩훈과 력ᄉᆞ만 ᄇᆡ호리요

다시 사마양져의 군률이며 손오병셔를 가라쳐 륙도삼약과 구궁괄쾌 버리ᄂᆞᆫ 법을 가라치며 창검 쓰ᄂᆞᆫ 법을 가라치ᄆᆡ 검술이 바상홈이 당시 동셔양에 무쌍ᄒᆞ고 무등ᄒᆞᆫ 령웅호걸의 지목이 되엿더라

잇ᄶᅥᆨ 경ᄭᅵ 남의 고용도 ᄒᆞ야 주어 찬밥이며 쌀 되를 어더다가 찬밥은 졔가 먹고 주소로 품팔기를 일삼으ᄆᆡ 곤궁홈은 비ᄒᆞ야 측량ᄒᆞ지 못ᄒᆞᆯ너라

각셜 잇ᄶᅥᆨ 호장 부쳐 ᄯᆞᆯ드리 과년ᄒᆞ야 가ᄆᆡ 사위를 구ᄒᆞ되 호가자졔를 구ᄒᆞ니 맛사위ᄂᆞᆫ 류형의 맛아달 소현이요 둘ᄌᆡ사위ᄂᆞᆫ 김형의 ᄋᆞ달 평이ᄆᆡ 두 사람일너라

그 사ᄅᆞᆷ이 요망방탕ᄒᆞ야 호주탐ᄉᆡᆨ으로 셰월을 보ᄂᆡ되 호장 부쳐 두 사위를 셰상에 업ᄂᆞᆫ 듯시 알고 극히 사랑ᄒᆞ며 경옥과 경란이 힝여나 졔 서방의 눈에 날가 두려워ᄒᆞ야 연연ᄒᆞᆫ 령ᄉᆡᆨ으로 마음을 아름다이 ᄒᆞ야 아리싸온 교ᄐᆡ를 부려 셰월을 지ᄂᆡ더라

각셜 신공ᄌᆞ 팔 년 공부를 맛쳣ᄂᆞᆫ지라

신공ᄌᆞ 사문에 나려 리랑ᄌᆞ을 차ᄌᆞ 이성지합에 긜례를 맛치고 그 날부터 검슬지락이 ᄉᆡᆼ긔여 여러 히 그리든 회포를 담화ᄒᆞ며 공부를 특별히 홈을 알고져 ᄒᆞ야 신싱을 대ᄒᆞ야 왈

글를 ᄃᆡ여셧 장을 지시와 셧셔주시면 쓸 ᄶᅦ가 잇싸오니 셧셔 주옵소셔 ᄒᆞ거ᄂᆞᆯ

신싱은 활달ᄒᆞᆫ 남ᄌᆞ이라 낭ᄌᆞ의 듯을 알고 잠시간 글를 지어 셧셔주니 낭ᄌᆞ 바다 품에 간수ᄒᆞ고 마을에 나려와 글 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차ᄌᆞ가 글장을 ᄂᆡ여보여 왈

내가 오ᄂᆞᆫ 길에셔 글씨 쓴 조회를 어더슷니 혹 무어셰 소용될 글인가 보아주옵소셔 ᄒᆞᆫᄃᆡ

그 션ᄇᆡ 자셰히 보다가 ᄃᆡ희 왈

이 글은 녯ᄂᆞᆯ 리ᄐᆡᄇᆡᆨ과 두목지가 긩싱ᄒᆞ야 지을지라도 이 글에 밋지 못ᄒᆞ깃도다 만일 지금 셰상에 이런 지조가 잇쓰면 금$번 과거에 장원랑이 갈 ᄶᅦ 업슬리로다 ᄒᆞ며 크게 층찬불리ᄒᆞ더라

낭ᄌᆞ 그 말를 듯고 왈

그 글장을 도로 주옵소셔 갓다가 창호나 바르깃나이다 ᄒᆞ니

그 션빅 글장을 사모ᄒᆞ기를 마지 아니ᄒᆞ야 왈

리 글장을 두시고 볼 만ᄒᆞᆫ 글장이오니 창호를 바르려 ᄒᆞ거든 다른 조회를 주마 ᄒᆞ고 다르 조회ᄒᆞᆫ 장을 주거ᄂᆞᆯ 바다가지고 움집으로 도라와 그 깃붐을 칭량치 못ᄒᆞ야 ᄒᆞ더라

잇째 인조ᄃᆡ왕씌옵셔 셰ᄌᆞ를 탄싱ᄒᆞ시고 ᄐᆡ평경과를 ᄇᆡ셜ᄒᆞ야 경향 션ᄇᆡ를 부르실ᄉᆡ 팔도션ᄇᆡ 과거 소식을 듯고 과힝을 ᄎᆞ리려 ᄒᆞ더라

각셜 이째 호장 부쳐 두 사위를 과힝으로 보닐ᄉᆡ 힝장범ᄇᆡᆨ이 가쟝 굉쟝ᄒᆞ더라

잇째 신싱이 과거소식을 듯고 ᄃᆡ사씌 고ᄒᆞ야 왈

소ᄌᆡ 건일에 듯싸오ᄆᆡ 과일이 불원ᄒᆞ다 ᄒᆞ오니 장부 셰상에 쳐ᄒᆞ야 공부은 잘못ᄒᆞ얏스나 잇째를 당ᄒᆞ와 집에 나려가셔 과거 볼 긔구를 찰일가 ᄒᆞ나이다 ᄒᆞ고 ᄃᆡᄉᆞ씌 하직ᄒᆞ고 나려와 집으로 도라와 낭ᄌᆞ를 ᄃᆡᄒᆞ야 과거소식을 젼ᄒᆞ니

낭ᄌᆞ ᄃᆡ 왈

장부 셰상에 쳐ᄒᆞ야 과거를 보와 일홈을 후셰에 류젼홈이 장부의 ᄶᅥᄶᅥᄒᆞᆫ 일이온즉 과거 노수를 쥰비ᄒᆞ야봅시다 ᄒᆞ고 듯싸오니 형림 남편들은 쳐가에셔 인ᄆᆞ를 ᄎᆞ려 보닌다 ᄒᆞ오되 낭군이야 푼젼인들 엇지 주리오 ᄒᆞ니

신싱이 ᄃᆡ 왈

동서들은 싱면치 못ᄒᆞ얏스나 만일 인졍이 인ᄂᆞᆫ 사ᄅᆞᆷ 갓트면 동접과거 믈것치 보련만은 남의 심지를 아지 못ᄒᆞ니 난쳐ᄒᆞ도다

소저 왈

쳡이 듯싸오니 그 사ᄅᆞᆷ들를 지목ᄒᆞ되 교만방탕ᄒᆞ고 괴상ᄒᆞ다 ᄒᆞ니 엇지 인졍이 잇쓰리요 ᄒᆞ거ᄂᆞᆯ

신싱이 탄 왈

팔ᄌᆞ 가련ᄒᆞᆫ들 이갓치 심ᄒᆞᆯ가 ᄒᆞ며 탄식홈을 사ᄅᆞᆷ의 심쟝으로 보지 못ᄒᆞ게 닷ᄒᆞ더라

각 셜 류형과 김형 두 사위가 과힝을 ᄎᆞ려 ᄶᅥ ᄂᆞᆯᄉᆡ 잇째 호장 부쳐와 경옥 경란이 좃ᄎᆞ나와 전별ᄒᆞ며 참방ᄒᆞ기를 쳔만츅슈ᄒᆞ더라

이ᄂᆞᆯ 신싱이 두 ᄉᆞᄅᆞᆷ에 ᄆᆞ옴을 시험코자 ᄒᆞ야 가ᄂᆞᆫ 길가에 주져하ᄃᆞ가 두 ᄉᆞᄅᆞᆷ 옴을 보고 ᄆᆞᆯ머리로 마조 나가 가로ᄃᆡ 공등은 ᄆᆞᆯ을 머므르고 통성명ᄒᆞ옵시다 ᄒᆞ며 우리 동서간으로 금일 상봉은 진실노 느졋도다 ᄒᆞ니

류 김 두 ᄉᆞᄅᆞᆷ이 그 말을 듯고 바라보니 헌 옷 입은 상거지라 일젼 부모의 말을 드른 고로 말ᄃᆡ답도 아니ᄒᆞ고 ᄆᆞᆯ을 ᄌᆡ촉하야 모라가거날 신싱이 ᄂᆡ염에 무료ᄒᆞ야 말도 못 ᄒᆞ고 움으로 도라오니

낭ᄌᆞ 문 왈

그 ᄉᆞ람들을 보고 무슴 말슴을 ᄒᆞ셧나잇가 ᄒᆞ니

신싱이 ᄃᆡ 왈

그 ᄉᆞ람들이 귀먹은 쳬 병신인 쳬ᄒᆞ야 문ᄂᆞᆫ 말도 대답지 아니ᄒᆞ고 가더라 ᄒᆞ니

낭ᄌᆞ 그 파칙ᄒᆞᆫ 인졍을 칙망ᄒᆞ고 ᄒᆞᄂᆞᆯ을 우러러 탄식ᄒᆞ고 부모림도 야속ᄒᆞ다 ᄒᆞᆫ번도 엇지 사ᄂᆞᆫ 양을 뭇ᄂᆞᆫ 일도 업고 계 한 쥼도 주지 아니ᄒᆞ니 무슴 일인고 내가 슬하에서 실힝ᄒᆞᆫ 일이 잇나 부모를 위ᄒᆞ야 이러케 되얏건ᄂᆞᆯ 엇지 두 ᄉᆞ위ᄂᆞᆫ 쥼히 알어 노수인ᄆᆞ를 ᄎᆞ려보ᄂᆡ면서 우리ᄂᆞᆫ 박ᄃᆡ ᄌᆞ심ᄒᆞ니 이달고 통분ᄒᆞ다 ᄂᆡ 쳬면을 싱각ᄒᆞ면 무엇ᄒᆞ리요 금일은 내 젼녁에 집에 도라가 쏠말이나 도젹ᄒᆞ야 낭군의 과거노비를 븟ᄐᆡ리라 ᄒᆞ고 밤을 긔다려 가만이 건너가며 샹각하되 요힝으로 솔말이나 도젹ᄒᆞ야 과거노수나 봇ᄐᆡ고 만일 잡히면 도젹이나 아니 될ᄉᆡ ᄒᆞ고 주져ᄒᆞ다가 친졍에 다다러 쌀고로 드러가 쌀을 프다가 어미계 잡피니

그 어미 급피 호장을 볼너 경ᄑᆡ가 쌀 도젹질ᄒᆞ랴든 말를 ᄒᆞ랴 ᄒᆞᆯ 지음에 경옥과 경란이 큰 죄나 잡은 듯시 졔 아비 압흐로 왈컥 나오며 졔 아오 경ᄑᆡ의 허믈을 멧 갑졀을 버ᄐᆡ여 이르니

그 호장이 와럭 ᄂᆡ다르며 대질 왈

이 도젹년를 죽녀 후환이 업게 ᄒᆞ리라 ᄒᆞ고 무수히 란타ᄒᆞ니

낭ᄌᆞ 평싱 힘을 다ᄒᆞ야 게우 몸을 ᄲᅦ쳐 움에 도라와셔 살펴보니 몸에 류혈이 낭ᄌᆞᄒᆞ고 의복이 렬파되엿거ᄂᆞᆯ 낭ᄌᆞㅣ 그 부모와 그 형들의 악홈을 상각ᄒᆞ니 설고 분홈을 이기지 못ᄒᆞ야 젼신을 썰썰 썰며 울기만 ᄒᆞᄂᆞᆫ지라

류복이 낭ᄌᆞ의 그 모양과 거동을 보고 악연대경ᄒᆞ야 그 연고를 무른즉 낭ᄌᆞㅣ 쳬읍ᄒᆞ다가 마지 못ᄒᆞ야 ᄉᆞ연을 고ᄒᆞᆫᄃᆡ

류복이 더욱 강기ᄒᆞ야 낭ᄌᆞ를 위로ᄒᆞ며 탄식 왈

구ᄎᆞ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무슴 일을 아니 보리요 우린들

조흔 ᄊᆡ가 업스리요 옛긊에 ᄒᆞ얏스되 고진감ᄅᆡ라 ᄒᆞ엿스니 낭ᄌᆞ는 너무 서러 말나 ᄒᆞ더라

잇ᄊᆡ 낭자 ᄇᆡᆨ겨무칙ᄒᆞ야 한 길 되ᄂᆞᆫ 제 머리를 버혀 힝장에 넛코 과수를 차릴ᄉᆡ 으더온 쌀되며 젼양을 갓추 간수ᄒᆞ야 주며 왈

이거슬 가지고 문젼걸식ᄒᆞ야 올나가 머리를 파라 지필묵 갑시나 봇ᄐᆡ여 슷시고 과거구경이나 ᄒᆞ옵소셔

류복이 감사ᄒᆞ야 눈물울 먹음고 길을 ᄯᅥ날ᄉᆡ 도쳐 걸식ᄒᆞ며 경셩에 올나가니 각쳐 션ᄇᆡ 구름 뫼듯 ᄒᆞ얏ᄂᆞᆫ지라

류복이 명지를 ᄉᆞ려 ᄒᆞ고 명지젼에 가셔 돈이 져근 고로 파명지를 구ᄒᆞ더라

이날 명지장ᄉᆞ 홀연 조을더니 난ᄃᆡ업ᄂᆞᆫ 쳥룡이 소ᄅᆡ를 지르며 파명지를 물고 하날로 올나가거ᄂᆞᆯ 놀나 ᄭᆡ니 헌옷 입은 션비 파명지를 들고 ᄉᆞᄌᆞ ᄒᆞᄆᆡ 쟝ᄉᆞ 이샹이 여겨 답 왈

조흔 명지 만커ᄂᆞᆯ 엇지 파명지를 사시려 ᄒᆞᄂᆞ잇가

류복이 답 왈

나ᄂᆞᆫ 본ᄅᆡ 빈한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돈이 져근 고로 파명지를 ᄉᆞ가지고 과거구경이나 ᄒᆞ려 ᄒᆞ노라

그 쟝ᄉᆞ 가로ᄃᆡ 금방 쟝원급졔ᄒᆞ올 거시니 텬불싱무록자이라 ᄒᆞ엿ᄉᆞ오니 엇지 파명지 갑슬 바드리요

류복이 답 왈

남의 거슬 엇지 거져 가지리요 갑슬 말ᄒᆞ라 ᄒᆞᄆᆡ

장사 답 왈

과거를 보ᄋᆞ 셩공ᄒᆞ거든 갑흐쇼셔 ᄒᆞ고 ᄉᆞ양ᄒᆞ거ᄂᆞᆯ

류복이 ᄒᆞᆯ일업시 바다가지고 ᄯᅩ 필묵점에 드러가니 필묵쟝ᄉᆞ ᄯᅩᄒᆞᆫ 죠을더니 파필 슷혜 계화만 ᄇᆞᆯᄒᆞ고 부러진 목이 변ᄒᆞ야 금둑겁이 되여 계화를 물고 궐ᄂᆡ로 드러가거ᄂᆞᆯ 쟝ᄉᆞ 놀나 ᄭᅵ여보니 헌옷 입은 션ᄇᆡ 와셔 부러진 필묵을 잡고 팔나 ᄒᆞ거ᄂᆞᆯ

필묵쟝ᄉᆞ 답 왈

죠흔 필묵이 만숩거ᄂᆞᆯ 굿히여 부러진 필묵을 사다가 무어셰 쓰리요

류복 왈

나ᄂᆞᆫ 비한ᄒᆞᆫ 션ᄇᆡ라 갑 져근 거슬 사려 ᄒᆞ나이다 ᄒᆞ니

쟝사 공경 왈

상공은 금방에 쟝원ᄒᆞᆯ 거시니 엇지 파필묵 갑슬 바드리요 결단코 밧지 아니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류복이 마지 못ᄒᆞ야 바다가지고 쥬인을 졍ᄒᆞ려 ᄒᆞ고 도라가다가 믄득 바라보니 두부집이 잇거ᄂᆞᆯ 비지를 사려 ᄒᆞᆯ 지음에

잇ᄊᆡ 두부쟝사 맛츰 방문을 비고 잠이 드럿더니 쳥룡이 구름을 타고 계화를 물고 가려 ᄒᆞ거ᄂᆞᆯ 놀나 ᄭᆡ니 헌옷 입은 션ᄇᆡ 비지를 사ᄌᆞ ᄒᆞ거ᄂᆞᆯ 장사ㅣ 활인 두 ᄌᆞ를 싱각ᄒᆞ고 불상이 역계 문 왈

잠간 보아도 션ᄇᆡ 양반신ᄃᆡ 비지를 사셔 무엇 ᄒᆞ시럄잇가

류복 왈

본ᄅᆡ 빈한ᄒᆞᆫ 고로 긱중에 푼젼도 귀ᄒᆞᄆᆡ 비지나 사셔 요긔코져 ᄒᆞᄂᆞ이다

할미 불상이 역계 왈

상공은 쥬인을 어데 졍ᄒᆞ셧나잇가 ᄒᆞ며 왈

상공이 이러트시 구ᄎᆞᄒᆞ시니 쳡의 집이 비록 가난ᄒᆞ오나 죠셕 진지를 감당ᄒᆞ올 거시니 과거나 잘 보옵소셔 ᄒᆞ고 졍셩으로 ᄃᆡ졉ᄒᆞ거ᄂᆞᆯ

류복이 사례ᄒᆞ며 감사ᄒᆞ야 왈

내 형셰에 푼젼이라도 어려우니 잠시 고용이나 ᄉᆡᆼ이 삼아 지ᄂᆡ다가 과거 구경이나 보고 나려가겟노라 ᄒᆞᆫᄃᆡ

할미 지셩으로 강권ᄒᆞ야 션반을 상상으로 드리거ᄂᆞᆯ 류복이 마지 못ᄒᆞ야 바다먹고 도리현 편치 못ᄒᆞ야 ᄒᆞ며 그렁저렁 과일이 당ᄒᆞᆷ미 과장긔구를 ᄎᆞ려 과장에 드러가 자리를 읏지 못ᄒᆞ야 민망ᄒᆞ야 ᄒᆞ다가 ᄒᆞᆫ곳를 바라보니 류형 금형이 자리를 광활이 점령ᄒᆞ고 안져스나 져니들이 제 글을 짓지 못ᄒᆞ야 남의 손를 비러 과거를 보려 ᄒᆞ고 쥬안을 마니 차려 동졉을 관ᄃᆡᄒᆞ거ᄂᆞᆯ 류복이 마ᄋᆞᆷ에 반계 그 졉에 드러가니

텬디간에 용납지 못ᄒᆞᆯ 놈이 류복을 보고 대로ᄒᆞ야 ᄭᅮ지저 왈

요 거지놈이 어ᄃᆡ로 드러왓나야 져놈을 어셔 잡아ᄂᆡ여라 사ᄅᆞᆷ 만히 모힌 거슬 보고 좃ᄎᆞ왓스나 져 놈을 밧비 잡아ᄂᆡ니라 사람이 만히 모힌 거슬 보고 왓스나 눈 압헤 보니지 말나

년ᄎᆞ 호령ᄒᆞ니 류복이 분ᄒᆞᆫ 마ᄋᆞᆷ을 먹음고 다

른 곳에 가셔 헌 긔직을 으더 쌀고 안젓더니 이윽고 긁졔 ᄂᆡ여 걸거ᄂᆞᆯ 류복이 한번 보고 일필휘지ᄒᆞ야 일텬에 션장으로 밧치고 녀관에 도라와 방목을 긔다리고 잇더라

갈셜 류형 금형 두 놈이 게우 남의게 긁장이나 으더보고 대방ᄒᆞᆯ 념치가 업셔 즉시 발힝ᄒᆞ야 ᄂᆡ려가니라

잇ᄶᅥᆨ 호장 부쳐와 경옥 경란이 반계 나와 녕졉ᄒᆞ야 집에 드러가 술를 권ᄒᆞ니 그 두 놈이 린리 친구를 쳥ᄒᆞ야 질기더라

잇ᄶᅥᆨ 경ᄑᆡ 그 두 사람이 과거에 갓다가 무사이 도라옴을 알고 힝여 랑군을 과장에셔 만나보아난가 소식을 드르야 갓더니 류형 금형이 밧갓 사랑에셔 호장다려 왈

류복을 장중에서 만나 ᄉᆞ러 쏘쳐ᄂᆡ니 말를 ᄒᆞᆫ즉 호장이 듯고 고셩ᄒᆞ야 왈

그 놈을 잘 박ᄃᆡᄒᆞ얏다 ᄒᆞ고 박장대소ᄒᆞ더라

잇ᄶᅥᆨ 낭ᄌᆞ 맛침 그 짓거리ᄂᆞᆫ 말를 듯고 낭군이 장즁에 무사이 드러감을 알고 깁버ᄒᆞ나 그 두 놈의 소위를 ᄉᆡᆼ각ᄒᆞ야 심히 통분이 역기여 움집으로 도라와 탄식ᄒᆞ야 왈

셰상에 몹쓸놈도 잇도다 낭군이 타인과 달나ᄎᆞᄌᆞ갓거든 ᄒᆞᆫ가지로 과거를 보ᄋᆞ쓰면 죠흘 거신ᄃᆡ 도리혀 만모즁에 무류를 주엿스니 낭군인들 오직 통분ᄒᆞ얏슷리요 ᄒᆞ며

게쥭을 숫어노코 먹고저 허되 목이 며여 못 먹고 하ᄂᆞᆯ을 우러러 츅슈ᄒᆞ야 왈

유유쳥텬 일월은 구버 ᄉᆞᆯ피소셔 낭군의 몸이나 무사ᄐᆡ평이 도라오게ᄒᆞ야 주옵소셔 ᄒᆞ고 못ᄂᆡ 스러ᄒᆞ더라

각셜 류복이 궐문 밧게셔 방을 긔다리더니 이날 젼하쎄옵셔 시관를 다리시고 긁을 ᄉᆞᆺ으시더니 홀연 류복의 긁을 보시고 칭찬ᄒᆞ사 왈

이 긁은 만고 츙효를 겸ᄒᆞ야 만장 즁 졔일이라 하시고

급피 비봉을 ᄀᆡ탁하시니 절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 신류복이라 하엿거ᄂᆞᆯ 장원랑의 신류복을 입시시키라 젼명사알의게 하교ᄒᆞ시ᄆᆡ 사알이 례방승지의게 린ᄎᆞ로 젼ᄒᆞ니 승지가 사령으로ᄒᆞ야금 장원랑의 신류복을 등ᄃᆡᄒᆞᄂᆞᆫ 호명을 시키엿ᄂᆞᆫ지라

졍원사령이 크게 불너 호명ᄒᆞᆯᄉᆡ 금방 장원랑은 젼라도 무주 짜에 사는 진사 신영의 아달 신류복이라 널분 장즁으로 다니며 고셩ᄒᆞ야 여러 번 부르는지라

신류복이 맛침 궐문 밧게 잇다가 이 소문을 듯고 일경일희하야 궐ᄂᆡ로 드러가 복ᄃᆡᄉᆞ은ᄒᆞ온ᄃᆡ

젼하 깃거하사 류복의 손을 잡고 왈

네가 신류복이라 ᄒᆞ니 셰ᄃᆡ손의 후손인야 하시니

류복이 복디 쥬 왈

장졀공의 구셰손이로소이다

젼하 ᄃᆡ희하사 칭찬ᄒᆞ야 가라사ᄃᆡ 그러하면 일등명현의 ᄌᆞ손이라 엇지 반갑지 아니하리오 하시고 즉시 할림을 졔슈하시고 쳥삼옥ᄑᆡ에 금안쥰ᄆᆞ를 ᄉᆞ급하시고 실ᄂᆡ을 진퇴하신 후에 무동 츙부를 압셰우고 쳥기홍기를 밧드며 옥져를 불고 장안 넓고 너른 ᄃᆡ로로 할미집에 도라오니 할미 창황이 나와 마지며 못ᄂᆡ 반기더라

이러무로 삼 일 만에 탑젼에 ᄒᆞ직슉ᄇᆡ한ᄃᆡ 상이 ᄉᆞ랑하ᄉᆞ 츈무 일당상을 졔슈하시고 즉시 이조판셔를 초ᄃᆡᄒᆞ사 웅주 거목 유무궐를 무르시니 판셔 아리오되 슈원이 유궐ᄒᆞ엿ᄂᆞ이다

샹이 즉시 류복으로 슈원부ᄉᆞ를 졔수ᄒᆞ시고 가라사ᄃᆡ 너의 신셰 고단ᄒᆞ고 가긍ᄒᆞ기로 외림을 주나니 즉시 도림ᄒᆞ야 ᄋᆡ민선졍ᄒᆞ라 ᄒᆞ시거ᄂᆞᆯ 신류복이 복디 사ᄇᆡ 왈

소신이 하향쳔싱으로 외임즁직을 감히 밧사와 감당치 못ᄒᆞᆯ가 하ᄂᆞ이다

상이 가라사ᄃᆡ 너의 용모를 보니 만고 령웅이라 이만 벼살을 자랑하리요 오ᄅᆡ지 아니하야 나이 고굉지신이 될 거시니 밧비 고향에 ᄂᆞ려가 죠션에 녕화를 뵈니고 슈원에 도임하야 민졍을 안찰ᄒᆞ라 ᄒᆞ시거ᄂᆞᆯ

부ᄉᆞ ᄒᆞ직ᄒᆞ고 녀관에 도라와 할미를 보고 치샤 왈

나ᄂᆞᆫ 할미 덕으로 ᄂᆡ 몸이 귀이 되엿쓰니 엇지 감ᄉᆞ치 아니ᄒᆞ리요

힝장으로셔 월ᄌᆞ를 ᄂᆡ여쥬며 왈

이거시 ᄂᆡ 부인의 머리털이니 아직 일로써 졍셩을 표ᄒᆞ라 ᄒᆞ고 은혜ᄂᆞᆫ 후일에 만문지 일이라도 갑플 거시ᄂᆞ ᄋᆞ직 약쇼ᄒᆞᆫ 표를 ᄒᆞ노라

할미 ᄉᆞ양 왈

그만 일로 엇지 은혜라 ᄒᆞ리요 허물며 부인의

털을 엇지 가지리요 ᄒᆞ고 종시 밧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부ᄉᆞ 허일업셔 도로 힝장에 너코 슈원져이를 불너 분부ᄒᆞ되 신연 ᄒᆞ인은 경상도 상주 번딕으로 ᄃᆡ령ᄒᆞ라 ᄒᆞ고 즉시 속포랑을 ᄆᆡᆫ드러 홍ᄑᆡ품ᄃᆡ 계화쳥삼을 셤에 너셔 질방 거러지고 쥬인 할미를 리별ᄒᆞ고 상쥬 번가로 나려온 지라

경ᄑᆡ 낭군을 과거장 즁에 보ᄂᆡ고 날노 긔ᄃᆡ리더니 일일은 몽ᄉᆞ를 엇어 낭군이 쳥룡을 타고 한님원으로 드러감을 보고 놀나 ᄭᆡ니 남가일몽이라

가장 슈상히 역여 슈이 도라오기를 긔다리더라

이날 쳥죠가 나라와 울며 낭ᄌᆞ를 향ᄒᆞ야 반기며 자조 울거ᄂᆞᆯ 낭ᄌᆞ ᄆᆞᄋᆞᆷ에 불안ᄒᆞ야 낭군을 고ᄃᆡᄒᆞ다가 믄득 노상을 바라보니 낭군이 오ᄂᆞᆫ지라

반가온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젼도에 나아가 낭군을 붓들고 낙누ᄒᆞ야 왈

낭군은 엇지ᄒᆞ야 오날이야 오시ᄂᆞ잇가

류복이 반계 ᄃᆡ 왈

이 셤을 가지고 드러갑시다

부인 왈

그런 거시야 밧게 둔들 누가 가져가오릿가 추후 드려갑시다

부사 왈

비록 셤일망졍 일신 힝장 의복이 그 속에 드러쓰니 엇지 허슈이 두리요 ᄒᆞ고 움 안에 드려노코

낭ᄌᆞ다려 왈

시장하온데 먹을 거시 업나잇가

낭ᄌᆞ ᄃᆡ 왈

오날 ᄋᆞ참에 으더온 밥이 잇쓰오나 ᄎᆞ셔 먹지 못하게숨ᄂᆡ다 ᄒᆞ고 나려노흐니

부사 손으로 쥐여 먹으며 이르되 집에 ᄊᆞᆯ되ᄂᆞ잇소잇가 ᄒᆞ니

낭ᄌᆞ ᄃᆡ 왈

ᄊᆞᆯ되나 잇ᄂᆞ이다

부사 왈

ᄊᆞᆯ을 졍이 쓰러 밥을 지라 ᄒᆞᆫᄃᆡ

낭ᄌᆞ ᄂᆡ렴에 혜오ᄃᆡ 오작 ᄇᆡ가 곱파야 그리ᄒᆞᄂᆞᆫ고 하며 밥을 지엿거날

부사 그져야 당상교지와 한림학ᄉᆞ 슈원부ᄉᆞ 교지와 홍ᄑᆡ게화며 쳥삼품ᄃᆡ 빅옥호을 ᄂᆡ여노코 낭ᄌᆞ다려 가로ᄃᆡ 부인의 졍셩으로 구은이 망극하야 금방 쟝언급졔를 하얏쓰오며 젼하쎄옵셔 사랑ᄒᆞᄉᆞ 한림학ᄉᆞ 츈무일당상에 슈원부ᄉᆞ를 졔슈ᄒᆞ신고로 신년ᄒᆞ인은 이곳으로 오라 ᄒᆞ고 ᄂᆞ려완ᄂᆞ이다

낭ᄌᆞ 이 말ᄉᆞᆷ을 듯고 만심황홀ᄒᆞ야 치하하야 왈

이ᄂᆞᆫ 하ᄂᆞᆯ이 감동ᄒᆞ십이오 션조의 도으심이로소이다 ᄒᆞ며 못ᄂᆡ 질기더라

류복이 ᄯᅩ 낭ᄌᆞ의 머리털을 ᄂᆡ여 쥰ᄃᆡ 낭ᄌᆞ 문 왈

명지와 필묵 갑슬 엇지 감당힛쓰오며 엇지 이거슬 ᄂᆡᆷ게 왓ᄉᆞ나잇가 ᄒᆞ니

류복이 젼후슈말을 낫낫치 말하니

낭ᄌᆞ 쇼 왈

ᄉᆞᄅᆞᆷ 살 곳은 곳곳마다 잇단 말이 올토다 ᄒᆞ며

낭ᄌᆞ 다시 문 왈

젼일 가장에셔 류형 금형 두 놈의게 욕을 보셧쓰니 오직 통분하셔쓰리요

분연 탄 왈

그 두 놈은 쇼만도 못한 놈이라 모르ᄂᆞ ᄉᆞᄅᆞᆷ이라도 그러치 못ᄒᆞ련만은 만모즁에 무안을 쥬엇쓰니 엇지 통분치 아니하리오잇가

부사 낭ᄌᆞ의 분ᄒᆞ야 ᄒᆞᆷ을 보시고 시쇽 ᄉᆞᄅᆞᆷ이 부귀ᄒᆞ면 빈쳔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업슈히 녁이지 안ᄂᆞᆫ 법이어ᄂᆞᆯ 도시 니 팔ᄌᆞ라 ᄒᆞ며

낭ᄌᆞ다려 왈

그릇슬 졍히 부시고 밥을 담아다가 이리 올니라 ᄒᆞᆫᄃᆡ

낭ᄌᆞ 나ᄋᆞ가 이지러진 바가치와 ᄭᆡ진 ᄉᆞ발에 밥을 담ᄋᆞ왓거ᄂᆞᆯ 부사 부인으로 돈을 쥬어 그 압헤 노케 ᄒᆞ고 한림과 당상 교지와 슈원부사 교지를 버려노코 홍ᄑᆡ를 셰우고 부사 머리에 오금ᄉᆞ모를 쓰고 그 우에 계화를 ᄭᅩᆺ고 몸에 류록 관ᄃᆡ에 품ᄃᆡ을 ᄯᅴ며 손에 ᄇᆡᆨ옥홀을 쥐고 그 압헤셔 국궁사ᄇᆡᄒᆞᆯᄉᆡ 낭ᄌᆞ 부사의 동작ᄒᆞᆷ을 바라본즉 텬상션관이 양계에 하강ᄒᆞᆫ 것 갓튼지라

지금이야 엇지 방아짠에 잇든 거린빙이로 알니요

깁고 깁흔 졍과 반가온 마암을 이긔지 못ᄒᆞ야 낭군과 한가지로 사ᄇᆡᄒᆞ고 그 엽헤 업드럿ᄂᆞᆫ지라

잇ᄊᆡ 마침 경옥과 경난이 각긔 셔방을 위로ᄒᆞ다가 ᄒᆞᆫ가지로 문 밧게 나와 산보도 ᄒᆞ며 사면으로 방황ᄒᆞ다가 건너편에셔 난데업ᄂᆞᆫ 화광이 조요ᄒᆞᆫ지라

두 년이 셔로 도라보며 왈

져 건너편에 불빗치 조요흔즉 져 거지년놈이 무슨 작란ᄒᆞ는가 시프니 우리가 가만이 건너가셔 보고 오ᄌᆞ ᄒᆞ며 도랑방ᄌᆞ흔 두 년이 건너가셔 문틈으로 엿보ᄆᆡ 붉은 뭉치와 흔 뭉치를 좌으로 갈나 세워 노코 류복은 몸에 수박빗 ᄀᆞᆺ흔 오슬 입고 관 것흔 이상흔 거슬 쓴 머리 우에 무슨 ᄉᆞᆺ을 ᄉᆞᆺ고 두 거지가 흔가지로 업ᄃᆡ엿ᄂᆞᆫ지라

두 년이 그 거동을 보고 마암에 놀납고 두려와 얼는 도로 건너와 호쟝 부쳐를 보고 왈

우연이 문 밧게 나가본즉 건너편에셔 화광이 조요ᄒᆞ엿기로 그 거지년놈이 무삼 작란을 ᄒᆞᄂᆞᆫ가 의심이 침발ᄒᆞ야 그 움문 압흐로 가셔 엿보온즉 붉은 뭉치와 흔 뭉치를 좌우에 세워 노왓스며 밥 여섯 그릇슬 버 려노코 그 압헤 업드렷스니 반다시 우리집을 망케 ᄒᆞ기로 방ᄌᆞ흔ᄂᆞᆫ가 봅듸다 ᄒᆞᄆᆡ

무쟝공ᄌᆞ ᄀᆞᆺ흔 호쟝 부쳐 이 말을 듯고 그러이 녁여 노긔등등ᄒᆞ야 왈

이 년놈의 심통을 보라 일젼에 쌀 도젹질ᄒᆞ려 다가 ᄆᆡ만 맛고 갓더니 졔 용통흔 마암에 우리를 원망ᄒᆞ고 우리 집을 망케 ᄒᆞᄂᆞ라고 방ᄌᆞᄒᆞᆷ이 분명ᄒᆞ도다 오날은 건너가셔 이 년놈을 죽여 후환이 업게ᄒᆞ리라 ᄒᆞ며

호쟝 부쳐 두 ᄉᆞᆯ을 다리고 다름박질노 건너가 그 움문을 박차고 썩 드러가려 ᄒᆞ다가 ᄉᆡᆼ각되 인지위덕이라는 문ᄌᆞ를 홀연 ᄉᆡᆼ각ᄒᆞ고 상젼벽히 수유ᄀᆡ라 ᄒᆞ얏스니 근본 과거에 쟝원급졔ᄒᆞ야 져의 조상의게 고유ᄒᆞ는 다례를 설힝ᄒᆞ는 거동을 보고 그릇 방자ᄒᆞᆷ으로 지목된가 ᄒᆞ야 져의 ᄒᆞ는 동작을 보와 조쳐ᄒᆞ리라 ᄒᆞ고 그 잡것들이 문 틈으로 엿본즉 좌우 벽상에 붉은 뭉텅이와 흔 뭉텅이를 갈나 셰워 노코 류복의 부부ㅣ 졍셩것 업드렷ᄂᆞᆫ지라

ᄯᅩ 다시 자셰이 살펴보니 한 뭉치는 장원랑의 홍픽요 ᄒᆞᆫ 뭉치는 수원부사와 츈무당상교지 일ᄉᆡ 류복이 몸에 류로관듸에 품ᄃᆡ를 ᄯᅴ고 머리에 계화를 ᄉᆞᆺ고 손에 빅옥홀을 쥐고 업듸엿거ᄂᆞᆯ 호쟝이 그 거동을 ᄒᆞᆫ번 보ᄆᆡ 삼혼칠빅이 산란ᄒᆞ야 쥐죽은 듯시 숨을 조곰도 쉬지 못ᄒᆞ고 가만이 집으로 도라와 졍신을 진졍치 못 ᄒᆞ며 말도 이루지 못ᄒᆞ고 덜덜 ᄯᅥᆯ기만 ᄒᆞᄂᆞᆫ지라

악독흔 두 ᄉᆞᆯ년이 악연경황ᄒᆞ야 왈

거지년놈이 무삼 방ᄌᆞᄒᆞ얏ᄂᆞᆫ지 이런 변이 낫다 ᄒᆞ며 요란케 ᄒᆞᄂᆞᆫ지라

호쟝이 두 ᄉᆞᆯ년의 소동ᄒᆞᆷ을 민망이 역이여 졍신을 겨우 찰이여 ᄭᅮ지져 왈

이년들아 졍신이 업시 잔말 말고 국으로 가마니 잇거라 큰 탈이 낫스니 미구에 경들 치리라 ᄒᆞᄂᆞᆫ지라

사위와 ᄉᆞᆯ년들이 그 호쟝의 걱졍ᄒᆞᄂᆞᆫ 말을 드르ᄆᆡ 암으란 줄 모르고 길 가랏치는 장승갓치 우독컨이 셧을 ᄲᅡ름이라

호장이 ᄉᆞᆯ과 사위들을 졔 집으로 다 돌녀보ᄂᆡ고 졔 쳐를 대ᄒᆞ야 왈

이졔는 크고 큰 변이 낫다 ᄒᆞ며 이 일을 쟝ᄎᆞ엇지ᄒᆞ자는 말이요 져 건너편 움에 게신 사위림이 이번 과거에 쟝원급졔ᄒᆞ신 후 한림학사로 춘무당상ᄉᆡ지 ᄒᆞᄉᆞ 수원부사를 ᄒᆞ야게시니 이졔 이 일을 두고 ᄉᆡᆼ각ᄒᆞ건ᄃᆡ 본읍 사도림은 션견지명이 게신 양반이시라 년젼에 혼인중미ᄒᆞ시든 말ᄉᆞᆷ을 드러 져 건너 사위림을 호의로 후ᄃᆡᄒᆞ얏스면 오날 이런 큰 걱정이 업셧스련만은 내가 귀도 먹고 눈이 어두엇던거시 아니요 다만 교만ᄒᆞ고 무식ᄒᆞᆷ으로 져리 령귀흔 사위림을 몰나보고 혹독흔 박ᄃᆡ를 ᄒᆞ얏스니 인졔는 ᄉᆞᆯ과 사위림을 무ᄉᆞᆷ 면목으로 상ᄃᆡᄒᆞ리요 만일 사위림이 나의 허믈을 ᄉᆡᆼ각ᄒᆞ실진ᄃᆡ 나의 죄 를 다 사리실지라 ᄒᆞ며 후회막급ᄒᆞ야 한탄불이ᄒᆞ야 지ᄂᆡ더라

차시 류형 금형 등이 신부사의 소식을 듯고 향자 과쟝에셔 박ᄃᆡᄒᆞ든 일을 ᄉᆡᆼ각ᄒᆞᄆᆡ 혼불부신ᄒᆞ야 덜덜 ᄯᅥᆯ니고 졍신이 혼미ᄒᆞ야 아모 말도 못ᄒᆞ며 머리를 ᄆᆡ여 푹 슈기고 젼당 잡아논 초ᄃᆡ와 가치 안졋더라

각셜 잇ᄯᅥ 경긔도 수원 리방이 경져리의 통긔흔 신관사도의 젼령을 바다보고 신년졀차를 준비ᄒᆞ야 륙방관속과 관노사령을 다수 령솔ᄒᆞ야 경상도 상쥬읍에 릭도ᄒᆞ야 신관사도ᄃᆡᆨ을 사면으로 차져다니되 아는 사ᄅᆞᆷ이 업더라

리방이 민망ᄒᆞ야 모든 관속을 사면으로 파송ᄒᆞ야 가가호호로 다니며 남녀노소 업시 여러 사ᄅᆞᆷ의게 널니 무러 차져다니더니 맛참 한 녀인이 가랏쳐 일으되 져 건너편 움집에 사는 이가 신류복의 성명 가진 이 밧게 업다 ᄒᆞ거ᄂᆞᆯ 리방이 그 사

름의 말을 듯고 그 움집으로 건너가 문 밧게셔 별감을 불너 수원 신관딕을 무르려 ᄒᆞ더라

잇ᄯᅢ 마참 신부사 움집에 잇다가 문 밧게셔 헌화소릭를 듯고 밧그로 나와 신연관속을 살펴보다가 도로 드러가셔 무지 터진 관을 쓰고 깃만 남은 도포를 입고 살만 남은 부치를 쥐고 나오며 관속들을 보고 왈

너의들이 수원 관속이냐 신관사도를 뫼시러 왓거든 져 건너편 리호쟝 집에 건너가셔 무르면 자연 알니라 ᄒᆞ고 움으로 도로 드러가는지라

수원 신연 관속들이 헐일업셔 상쥬 호쟝의 집으로 차져가 주인을 쳥ᄒᆞ야 수원 신관딕을 무르ᄆᆡ 호쟝이 마지 못ᄒᆞ야 뭇는 ᄃᆡ로 대답ᄒᆞ는지라

수원 리방이 상쥬 호쟝을 ᄃᆡᄒᆞ야 왈

우리는 경긔 수원 신년 이방이로라 신관사도쎄옵셔 이곳 양반 신류복씨라 ᄒᆞ옵는ᄃᆡ 그 사도쎄옵셔 본딕으로 ᄃᆡ령ᄒᆞ라 젼령ᄒᆞ옵셧기로 여러 하인을 다리고 아셔 그 ᄃᆡᆨ을 여러 날 널니 차지되알 수 업ᄉᆞ와 민망ᄒᆞ옵더니 어느 녀인이 가라쳐 말ᄒᆞ되 져 건너 움에 잇는 이가 신류복씨라 ᄒᆞ며 그 밧게 다른 이는 업다 ᄒᆞ옵기로 차져가셔 뭇ᄉᆞ온즉 그 움에 게신 양반이 말ᄉᆞᆷᄒᆞ시되 여긔 와셔 무르면 자연 알니라 ᄒᆞ시기에 차져왓ᄉᆞ오니 자셰히 가라쳐 주옵소셔 ᄒᆞ니

호쟝이 황공변ᄉᆡᆨᄒᆞ야 왈

과연 그 양반이 금방 장원급제ᄒᆞ사 수원부사ᄒᆞ셧나이다

수원 리방이 이 말을 듯고 직시 여러 하인을 다리고 움집으로 ᄃᆡ령ᄒᆞ는지라

이날 신부사 머리에 오금사모를 쓰고 몸에 류록관ᄃᆡ를 입고 허리에 품ᄃᆡ를 ᄯᅴ고 손에 빅옥홀을 드러슴ᄋᆡ 위풍이 름름ᄒᆞ고 용모는 옥골션관이 진셰에 하강ᄒᆞᆫ 것 갓튼지라

이ᄯᅢ 신부사 움집 압헤 좌졍ᄒᆞ고 류방관속과 사령관노를 차례로 문안현신 밧는 졀ᄎᆞ를 거힝ᄒᆞ더라

잇ᄯᅢ 상주목사 신부사의 소식을 듯고 대희ᄒᆞ야 즉시 본읍 리방의게 분부ᄒᆞ야 움 압헤 차일을 널니 치고 가진 보진을 화려이 셜비ᄒᆞ며 산진히미로 가진 료리를 다수 쥰비ᄒᆞ야 다담상을 올이게 ᄒᆞ며 악공과 긔싱을 다수이 보ᄂᆡ여 부사의 부인과 본관의 부인을 모시게 ᄒᆞᆫ 후에 본관이 위의를 차리고 나와 신부사를 ᄃᆡᄒᆞ야 과거ᄒᆞ고 외임ᄒᆞᆷ을 치하ᄒᆞ야 셔로 질길ᄉᆡ 두 고을 관쇽이 좌우에 옹위ᄒᆞ야 잡인과 헌화를 검즙ᄒᆞ더라

이ᄯᅢ 수원부사 상쥬목사의게 쳥ᄒᆞ야 왈

이졔 내 고향에 올나가 션령에 녕분코자 ᄒᆞ오나 보진 가힝이며 위의 졀ᄎᆞ 차리올 례방공방 아젼이 부족ᄒᆞ온지라 귀읍 관속 즁에 류형 금형은 셰ᄃᆡ 아젼의 후손이온즉 시ᄇᆡ 거힝을 잘 ᄒᆞᆯ듯 ᄒᆞ오니 그 두 아젼은 잠시 빌니시면 녕분시에 사용ᄒᆞ깃스니 빌니시기 바라나이다 ᄒᆞᄆᆡ

목ᄉᆞ ᄃᆡ답ᄒᆞ야 왈

그는 념녀 마옵소셔 하며 류형과 금형을 등ᄃᆡ시키라 ᄒᆞ시ᄆᆡ 방자ㅣ 리호쟝의 집에 건너가셔 두 사름의게 분부를 젼ᄒᆞ야 등ᄃᆡ시키는지라

목ᄉᆞ 류 금 양인의게 분부ᄒᆞ야 왈

수원사도쎄옵셔 녕분시에 너의 둘을 례방 공방의 소임을 졍ᄒᆞ야 빌니시라 ᄒᆞ시기로 너의등을 별노히 졍ᄒᆞ야 보ᄂᆡ나니 너의등을 각별 조심ᄒᆞ야 령리ᄒᆞ게 잘 거힝ᄒᆞ야라 ᄒᆞ시고 류형으로 례방을 졍 ᄒᆞ시고 금형을 공방으로 졍ᄒᆞ야 보ᄂᆡ며 목사 부사를 ᄃᆡᄒᆞ야 왈

례방 공방의 거힝 션부간에 상벌을 노형이 자량조쳐ᄒᆞ옵소셔 하시는지라

류 금 두 사름은 본시 아젼 소임을 ᄯᅴ웟스ᄆᆡ 엇지 목사이 명령을 거역ᄒᆞ리요 그 분부를 쳥령ᄒᆞ고 물너나와 부사의게 문안현신ᄒᆞ더라

잇ᄯᅢ 부사 목사를 ᄃᆡᄒᆞ야 젼후감사ᄒᆞᆷ을 못ᄂᆡ치하ᄒᆞ며 종일 질기다가 날이 져물ᄆᆡ 목사 관져로 드러가랴 ᄒᆞ거ᄂᆞᆯ 부사와 부인이 목사와 부인을 각긔 셔로 분슈리별ᄒᆞ니라

각셜 부사 모든 관쇽을 리호장의 집으로 보ᄂᆡ여 슉식ᄒᆞ게 ᄒᆞ고 죽장마혜로 뒤 암즈에 올나가니 대사 마죠 나와 손을 잡고 치하ᄒᆞ야 왈

상공이 녕귀ᄒᆞ얏쓴 말은 풍편에 드러스나 본ᄅᆡ 이 몸이 산승이 되옵기로 산문을 써나 치하ᄒᆞᆷ을 고ᄒᆞ지 못ᄒᆞ얏ᄉᆞ오니 죄송만만이로소이다

부사 몸을 굽히여 답례ᄒᆞ야 왈

소싱이 이러트시 녕귀ᄒᆞᆷ이 션싱의 넓부신 덕으로 문호를 빗ᄂᆡᄉᆞ오니 엇지 감사치 아니ᄒᆞ오릿가 소싱이 금번 수원에 도림ᄒᆞᆫ 후에 션싱의 은덕을 만분지일이라도 갑풀가 바라나이다 ᄒᆞ며 셕일 회포를 말ᄉᆞᆷᄒᆞ다가 집으로 도라와 밤을 지ᄂᆡᆫ 후 잇

흔날 녕분ᄎᆞ로 젼라도 무주로 올나갈ᄉᆡ 무동창부 한 쌍과 옥져 한 쌍을 불니이ᄆᆡ 풍악이 랑ᄌᆞ흔지라

잇ᄯᅢ 경옥과 경난이 신 부사의 힝ᄎᆞ를 구경ᄒᆞ다가 류형과 금형이 시퍼런 장셩 모시 직령을 몸에 붓쳣스며 안성 죽갓을 폭 숙여쓰고 셜셜 기여 압흐로 급급히 지ᄂᆡ가거ᄂᆞᆯ 그 두 년이 셔방의 거힝하는 거동을 보고 마암에 붓그럽고 분히 역이여 왈

당초에 이러케 귀히 될 줄 아러쓰면 우리가 부사로 인연을 ᄆᆡ졋드면 져와갓치 호강시러올 거시라 엇지 극통치 아니ᄒᆞ리요 ᄒᆞ며 후회막심ᄒᆞ더라

각셜 신부사 무주 고향에 올나가 본즉 가옥이 동퇴셔붕되야 인젹이 업고 그 압헤 다만 주졈만 두어 집이 남엇ᄂᆞᆫ지라

부사 마암에 비창ᄒᆞ야 그 주졈에 나아가셔 밤을 지닐ᄉᆡ 슬푼 마암이 비ᄒᆞᆯ 데 업셔 은연이 울며 셕일을 싱각ᄒᆞ고 두어 창부를 다리고 길노 힝ᄒᆞ야 옥져를 불니이ᄆᆡ 창부 졔 흥을 못 이긔여 흥치 잇게 잘 부니 긔셩이 쳐량ᄒᆞ야 슬푼 회포를 일층 감동케 ᄒᆞᄂᆞᆫ지라

부사 옛일를 싱각ᄒᆞ고 마암이 더욱 감창ᄒᆞ야 흘느나니 눈물이라

겻헤 늘근 녀인이 져 부ᄂᆞᆫ 소ᄅᆡ를 듯고 구경ᄒᆞ다가 그 노인 마음이 자연 비감ᄒᆞ야 눈물을 흘니ᄂᆞᆫ 줄 모르게 흘이거ᄂᆞᆯ 신부사 수상이 녁이여 문왈

그ᄃᆡ는 무삼 연고로 비회 안ᄉᆡᆨ에 나타나ᄂᆞ뇨

그 사람이 엇ᄌᆞ오되 소인은 이 동리에 사옵더니 금일 령감마님 힝ᄎᆞ 즁에셔 져 소ᄅᆡ를 드르ᄆᆡ 자연 마암이 비감ᄒᆞ야 락누홈을 ᄭᆡ닷지 못ᄒᆞ얏ᄂᆞ이다 고ᄒᆞ니

부사ㅣ 그 말을 듯고 노ᄉᆡᆨ을 ᄯᅴ여 갓가이 쳥ᄒᆞ야 무러 왈

그ᄃᆡ가 이 동리에 오ᄅᆡ사라스면 신진사님 ᄃᆡᆨ묘소와 가ᄃᆡᆨ을 자셰이 알 거시니 나를 위ᄒᆞ야 바로 가라치라 내가 타인이 아니라 신진사ᄃᆡᆨ 자졔로라 ᄒᆞᆫ즉

그 노인이 그 말을 듯고 당신이 류복씨온잇가

부사 ᄃᆡ 왈

내 과연 그러ᄒᆞ노라 ᄒᆞ며 나의 일홈을 엇지 아나요

노인이 엿ᄌᆞ오되 상공이 구 셰에 이곳을 써나신 후로 소식존망을 몰나숩더니 이러틋 녕귀ᄒᆞ아 도라오심를 엇지 아랏스리요 상공ᄃᆡᆨ 문셔ᄭᅡ지 잇나이다 ᄒᆞ고 가져오거ᄂᆞᆯ 바다보니 자긔 젼ᄃᆡ 문셔가 분명ᄒᆞᆫ지라

부사 더욱 망극ᄒᆞ야 밤이 시도록 잠을 이루지 못ᄒᆞ고 다만 탄식ᄒᆞ더니 도방이 장ᄎᆞ 불그려 ᄒᆞ거ᄂᆞᆯ 부사 모든 관속의게 분부ᄒᆞ야 녕분 졀ᄎᆞ를 ᄎᆞ려가지고 그 노인을 ᄋᆞᆸ세고 션산에 올나가 살펴본즉 분묘 다 퇴붕ᄒᆞ야 형용만 남아 잇고 좌우 셕물이 다 쓸어져 누엇ᄂᆞᆫ지라

부사 졍신이 아득ᄒᆞ야 일장통곡에 긔졀ᄒᆞ거ᄂᆞᆯ 좌우 하인들이 황망이 구원ᄒᆞ더니 이윽고 부사 졍신을 ᄎᆞ리여 예로써 졔물울 갓초와 올니고 글을 지어 졔 지ᄂᆡᆯ시

그 졔문에 ᄒᆞ얏스되 유셰ᄎᆞ 모년 모월 모일에 고ᄋᆡᄌᆞ 신류복은 감소고 우현고 진사부군 현비 의인림씨 양위령혼지하ᄒᆞᄋᆞᆸ나이다 불 초자 명도 긔박ᄒᆞ야 잉ᄐᆡ 륙 삭에 부친을 여희고 또ᄒᆞᆫ 오셰에 모친을 여희고 혈혈단신ᄲᅮᆫ이옵더니시비 츈ᄆᆡ이게 의탁ᄒᆞ얏숩다가 ᄒᆞᄂᆞ님이 미이 역이ᄉᆞ 시비 츈ᄆᆡ 또ᄒᆞᆫ 죽ᄉᆞ오니 의지ᄒᆞᆯ 곳이 업ᄉᆞ와 류리ᄀᆡ걸ᄒᆞ야 다니옵다가 남의 고용이 되여 하쳔ᄒᆞᆫ 사역을 ᄒᆞᄋᆞᆸᄂᆞᆫ 즁에 마암이 울젹ᄒᆞ와 그 집에셔 도로 나와 ᄀᆡ걸ᄒᆞ다가 경상도 상주에 이르니 맛참 지도ᄒᆞ는 사람을 만나 혼인을 졍ᄒᆞ야 주옵ᄂᆞᆫᄃᆡ 그 쳐덕을 힘입ᄉᆞ와 몸이 녕귀히 되야셔 션조 신령을 다시 뵈옵고 일ᄇᆡ주를 드리와 아버님 어머님 령혼을 위로ᄒᆞ오니 션령은 흠향ᄒᆞᄋᆞᆸ소셔

고츅홈을 필ᄒᆞᆫ 후에 방셩통곡ᄒᆞ다가 긔졀ᄒᆞ니 좌우 하인이며 묘하 친구 남녀노소업시 셜허 아니ᄒᆞᄂᆞᆫ 이 업스며 초목 검수라도 수ᄉᆡᆨ을 먹음은 것 갓더라

졔사를 파ᄒᆞᆫ 후에 다시 졔물을 가지고 츈ᄆᆡ 분묘에 나아가 술을 부어노코 졔문 지어 졔사 지ᄂᆡᆯ시

그 졔문에 ᄒᆞ얏스되 복은 유모 죽은 후로 갈 바를 아지 못ᄒᆞ야 풍찬노숙ᄒᆞ야 가며 류리ᄀᆡ걸ᄒᆞ야 다니다가 경상도 상주싸에 이르러더니 그 고을 원님쎄옵셔 내 형용과 졍경을 보시고 불상이 녁이실 ᄲᅮᆫ 아니라 친셩갓치 사랑ᄒᆞ사 리호장의 셋ᄌᆡ쏠을 억지로 혼인 중ᄆᆡ되시와 텬힝으로 쳐의

덕을 입어 일신이 이에 녕귀ᄒᆞ야 유모의 분묘에 차자왓나니 유모의 혼령이 신명ᄒᆞᆯ 것 갓틀 지경이면 이런 줄 알연만은 유명이 현슈ᄒᆞᆷ으로 면목을 상ᄃᆡᄒᆞ야 언어를 통치 못ᄒᆞ니 심회를 펴지 못ᄒᆞᄆᆡ 슬춘 마암을 억졔치 못ᄒᆞᆯ지라 복은 일후 황쳔에 가 유모를 만나면 은덕을 만분지일이라도 갑흠을 쳔만 번 바라노라 ᄒᆞ고

방셩대곡ᄒᆞ야 긔졀흔도ᄒᆞ니 좌우에 보ᄂᆞᆫ ᄌᆡ 뉘 아니 불상히 녁이며 그 덕성을 뉘 칭찬치 아니ᄒᆞ리요

졔사를 파ᄒᆞᆫ 후에 부사 리방을 불너 명영ᄒᆞ여 알 내 션조의 분묘와 유모 산소에 ᄀᆡ사초치산과 셕물건츅과 사당집 건츅절ᄎᆞ를 등분 업시 일체로 ᄒᆞ여라 ᄒᆞ니라

이ᄯᅦ 리방이 엿ᄌᆞ오되 사초와 셕물은 건츅ᄒᆞ려니와 사당집 건츅은 일ᄌᆞ가 촉급ᄒᆞ와 산력ᄒᆞᆯ 일이 아득ᄒᆞ와이다 ᄒᆞᄆᆡ 부사 도임ᄒᆞᆯ 일ᄌᆞ를 ᄉᆡᆼ각ᄒᆞ고 다시 분부ᄒᆞ야 셕물부터 셰우라 ᄒᆞ고

묘하 ᄇᆡᆨ셩을 불너 일으되 내가 도임 일ᄌᆞ가 갓가와 오ᄅᆡ 잇지 못ᄒᆞᆯ지라 황금 슈쳔량을 ᄂᆡ여 쥬나니 여등은 힘을 다ᄒᆞ야 당집 두 좌를 건츅ᄒᆞ되 하나은 내 션조의 사당집이요 ᄯᅩ 하나은 유모의 사당집이니 각각 건츅ᄒᆞ야 사당집과 분묘를 셩심수호ᄒᆞ면 일후에 검의환향ᄒᆞ야 너의 은혜를 후이 갑흘이라 ᄒᆞᆫᄃᆡ

묘하 모든 하인이 그 심덕을 일졔히 칭찬ᄒᆞ며 령감마님 분부ᄃᆡ로 거힝ᄒᆞ오리다 ᄒᆞ더라

부사 션죠 분묘에 사ᄇᆡ하직ᄒᆞ고 유모 분묘에 장읍고별ᄒᆞᆫ 후에 묘하 ᄇᆡᆨ셩을 불너 돈 슈ᄇᆡᆨ량을 힝하로 사급ᄒᆞ고 직시 상쥬로 도라올ᄉᆡ

례방 류형과 공방 금형을 불너 분부ᄒᆞ야 왈

너의등은 몬져 리호쟝의 집으로 가셔 사쳐를 정ᄒᆞ라 ᄒᆞ시니 류형 금형 등이 사도의 분부를 쳥령ᄒᆞ고 급히 ᄯᅥ나 호장의 집으로 도라와셔 음식과 보진졀ᄎᆞ를 셩비히 준비ᄒᆞ야 부사 힝ᄎᆞ를 긔ᄃᆡ리더라

부사 상쥬에 ᄅᆡ도ᄒᆞ야 호장의 즁당에 좌졍ᄒᆞᆫ 후에 호장 부쳐를 쳥ᄒᆞᄆᆡ 호장 부쳐 황겁ᄒᆞ고 젼뢰ᄒᆞ야 감히 드러가지 못ᄒᆞ다가 그 령을 거역지 못ᄒᆞ야 그 압헤 나아가 복지사ᄇᆡᄒᆞ고 머리를 슉여 복걸사죄ᄒᆞ거늘 부사 사ᄅᆞᆷ으로 ᄒᆞ야 즁당에 올녀 안치고 화평ᄒᆞᆫ 말노 위로ᄒᆞ야 왈

그ᄃᆡᄂᆞᆫ 나의게 쟝인이 되시니 쟝인에 허물을 엇지 혐파로 알니요 허물치 마옵시고 마ᄋᆞᆷ을 안심ᄒᆞ옵소셔 ᄒᆞ며

그 부인을 쳥ᄒᆞ야 그 부모ᄭᅦ 뵈옵소셔 ᄒᆞ시니 부인이 부모를 여러 히 거리든 마암이 간졀ᄒᆞ나 부모가 찻지 아니ᄒᆞ시고 겸ᄒᆞ야 부사의 령 업시 츌입ᄒᆞᆷ이 부도에 미안ᄒᆞ야 졍셩지졀을 오ᄅᆡᄒᆞ엿스나 부모를 날노 싱각ᄒᆞ든 차에 이런 긔회를 만나ᄆᆡ 일월을 다시 보는 듯ᄒᆞ야 여치여광으로 만심환희ᄒᆞ야 ᄉᆡ로 단쟝을 차리되 큰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슈포검상 에 명월픽를 차고 손에 봉미션을 쥐고 사인교에 드러안지ᄆᆡ 기싱 수십명이 좌우로 옹위ᄒᆞ얏스니 그 거동이 옛날 셔왕묘와 요지연에 가는 듯ᄒᆞ며 월궁 황아 광한젼을 올나가는 것 갓트ᄆᆡ 관광ᄌᆡ 누가 칭찬 아니ᄒᆞ며 누가 움 속에 잇든 낭ᄌᆞ로 아라보리요

이러트시 호장 부쳐ᄭᅦ ᄌᆡᄇᆡᄒᆞ야 왈

소녀 불초ᄒᆞ와 부모를 뫼시지 못ᄒᆞ왓ᄉᆞ오니 엇지 슬푸지 아니 ᄒᆞ오릿가 금일에 자안을 다시 뵈오니 죄송만만이로소이다 엇지 다시 부모의 자안을 뵈올 줄 알어ᄉᆞ오릿가 ᄒᆞ거늘

호장 부쳐 그 ᄯᅳᆯ의 사죄ᄒᆞ는 말을 듯고 더욱 붓그럽고 황공젼뢰ᄒᆞ야 머리를 푹 숙우려 감히 입을 여러 회답지 못ᄒᆞ더라

부인이 ᄯᅩᄒᆞᆫ 다시 두 형을 쳥ᄒᆞ니 경옥과 경난이 무안ᄒᆞ고 황겁ᄒᆞ야 엇지 ᄒᆞᆯ 줄을 몰나 여치여광ᄒᆞ야 비슥비슥 모퉁이 거름으로 겨우 자리에 나아가 안져스나 감히 거두ᄃᆡ면치 못ᄒᆞ고 고ᄀᆡ를 숙이고 지용토소갓치 쏨작 업시 안졋더라

부인이 두 형을 향ᄒᆞ야 위로 왈

지ᄂᆡ온 일은 도시 다 ᄂᆡ 팔ᄌᆞ라 인졔는 아모리 싱각ᄒᆞ와도 소용무쳐이오니 형님들은 안심ᄒᆞ고 괘렴치 마옵시고 동싱간에 졍의를 펴사이다 ᄒᆞ며 술을 부어 부모 두 분ᄭᅦ 드리고 크게 질겨 지ᄂᆞᆯᄉᆡ

잇ᄯᅳᆨ 부사 류형 금형을 불너 분부ᄒᆞ야 왈

너의는 각별 조심ᄒᆞ야 례방 공 방의 거힝을 소홀치 말며 한만치 말고 착실히 거힝ᄒᆞ되 만일 잘못 거힝ᄒᆞ면 장하에 죽기를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니 류 금 양한이 황공젼뢰ᄒᆞ야 아모리 ᄒᆞᆯ 줄 모로더라

잇ᄯᅳᆨ 호장이 대연을 ᄇᆡ셜ᄒᆞ고 산진히미로 졔조

ᄒᆞᆫ 진슈셩찬을 올니오ᄆᆡ 부사 부쳐와 호장 부쳐며 경옥 경난이 각각 차례로 다담상을 밧을ᄉᆡ 부사 부처는 위엄이 단산ᄆᆡᆼ호가 밥을 차고 안졋는 듯ᄒᆞ며 호장 부처와 경옥 경난이ᄂᆞᆫ ᄆᆡ 본 ᄯᅡ토리 수풀 속에 업드렷ᄂᆞᆫ 것 갓트며 류형 금형 등은 고양이 본 쥐 독 틈으로 긔여가는 것 갓더라

잇ᄊᆡ 부사 좌즁경황을 살펴본즉 호장 부쳐ᄂᆞᆫ 겨우 음식에 하져ᄒᆞ나 경옥 경난은 각긔 졔 셔방의 참혹ᄒᆞᆫ 졍형을 봄ᄋᆡ 일변 수참ᄒᆞ고 일변 황공ᄒᆞ야 능히 져를 들지 못ᄒᆞ겨ᄂᆞᆯ 부사 그 거동을 보고 대로ᄒᆞ야 라졸를 명ᄒᆞ야 류형과 금형을 라입ᄒᆞ야 마당에 ᄭᅮᆯ니고 ᄭᅮ지져 왈

내 여등의게 몬져 분부ᄒᆞ야 신칙ᄒᆞ얏거ᄂᆞᆯ 엇지 음식과 자리를 이러트시 부졍ᄒᆞ게 ᄒᆞ야 좌즁부인의 마암에 합당치 못하게 ᄒᆞ야 상을 바드시되 져를 들지 못ᄒᆞ시니 이러ᄒᆞᆫ 무안ᄒᆞᆫ 일이 업도다 무엄ᄒᆞᆫ 너의 두 놈은 장하에 죽이리라 ᄒᆞ며 사령을 명ᄒᆞ야 분부ᄒᆞ야 왈

류형과 금형 두 놈을 차례로 형틀에 올녀 ᄆᆡ고 ᄆᆡ를 치라 ᄒᆞ시니

사령들이 일졔이 청령ᄒᆞ고 가셔 졀 차로 거힝ᄒᆞ며 ᄆᆡ를 들고 달여드러 벼락치듯 한 ᄀᆡ를 ᄶᅡᆨ 붓치니 몸에 혼이 업고 졍신이 산란ᄒᆞ야 두 손으로 ᄶᅡᆨᄶᅡᆨ 뷔러 왈

용셔ᄒᆞ야 잔명을 살여 주옵소셔 ᄋᆡ걸ᄒᆞᄂᆞᆫ지라

부사 ᄋᆡ걸ᄒᆞᄂᆞᆫ 소ᄅᆡᄂᆞᆫ 드른 체 아니ᄒᆞ고 수십 도식 ᄆᆡᆼᄐᆞᄒᆞ고 다시 분부ᄒᆞ야 왈

너의 놈들을 죽여 ᄐᆞ인을 중계코ᄌᆞ ᄒᆞ얏더니 십분 용셔ᄒᆞ야 주거니와 차후에ᄂᆞᆫ 각별 조심ᄒᆞ야 잘 거힝ᄒᆞ여라 ᄒᆞ고 물니치ᄆᆡ 그 두 놈이 머리를 푹 숙이여 사례ᄒᆞ며 물너가니라

잇ᄊᆡ 호장 부쳐는 두 사위 형벌당홈을 보고 넉시 업시 쌍만 나려다보며 경옥 경난은 져의 셔방 맛는 양을 보고 더욱 혼불부쳐ᄒᆞ야 정신을 수습지 못ᄒᆞ야 지ᄂᆡ더라

잇ᄊᆡ 부인이 부사젼에 나아가 종용이 말ᄉᆞᆷᄒᆞ야 가로되 상공은 금일 두 사람을 치죄ᄒᆞ옵시기ᄂᆞᆫ 젼일에 박ᄃᆡᄒᆞᆫ 혐피로 쳐벌ᄒᆞ신가 ᄒᆞ나이다 녯젹에 한국 한신이는 도즁 소년의게 욕을 보앗스되 왕후 된 후에 그 소년을 청ᄒᆞ야 벼살을 시켜스니 바라건ᄃᆡ 상공은 고인의 힝젹을 효칙ᄒᆞ사 그러ᄒᆞᆫ 마암을 푸러바리시며 ᄯᅩ 겸ᄒᆞ야 쳡의 낫슬 보아 특별이 용셔ᄒᆞ사 형졔간에 륜긔를 화목ᄒᆞ게 ᄒᆞ야 주옵심을 쳔만 바라나이다 ᄒᆞᄂᆞᆫ지라

부사 그 말을 듯고 ᄭᅴ다라 왈

내 엇지 이과지사를 ᄉᆡᆼ각ᄒᆞ야 혐피ᄒᆞ리요 부인은 다시 념녀치 마옵소셔 ᄒᆞ고 잇튼날 수원으로 올나갈ᄉᆡ 상주목사 멀니 나와 젼별ᄒᆞᄆᆡ 부사 목사를 향ᄒᆞ야 쳥ᄒᆞ야 왈

호장과 류형과 금형은 나ᄒᆞ고 쳐족이 되니 리안에 졔명ᄒᆞ야 주옵소셔 ᄒᆞ거ᄂᆞᆯ

부사 왈

그 일은 부탁ᄒᆞ신 ᄃᆡ로 시힝ᄒᆞ오리이다 ᄒᆞ고 창연이 젼별ᄒᆞ고 직소로 도라와 그 셰 사람을 리안에 졔명ᄒᆞ더라

각셜 부사 호장 부쳐와 류형 금형을 쳥ᄒᆞ야 갈오되 내가 수원부에 도임ᄒᆞᆫ 후 인ᄆᆞ를 보ᄂᆡᆯ 거시니 그ᄃᆡ등은 마암을 불안이 먹이지 말고 인ᄆᆞ가 이르는 ᄃᆡ로 직시 올나오라 ᄒᆞᆫ 후 ᄯᅩᄒᆞᆫ 부인이 부모와 두 형을 리별ᄒᆞᆯᄉᆡ 뭇ᄂᆡ 결연히 분수리별ᄒᆞ더라

부사는 검안준ᄆᆞ에 놉히 안져 쳥기를 밧고 오륙십 명 관속을 좌우로 버려셰우고 부인은 쌍교에 안졋ᄂᆞᆫᄃᆡ 기싱 슈십 명이 쌍쌍이 시위ᄒᆞ야 가ᄆᆡ 금교유젼과 풍악소ᄅᆡᄂᆞᆫ 운소에 사뭇치ᄆᆡ 도로에 관광ᄌᆡ 여산여히ᄒᆞ야 그 영귀홈을 보고 누가 칭찬ᄒᆞ고 흠션치 아니ᄒᆞ리요

부사 여러 날 만에 수원에 도ᄃᆞᆯᄒᆞ야 도임ᄒᆞ고 민졍을 인의로 다사릴ᄉᆡ 불과 수년에 년년풍등ᄒᆞᄆᆡ ᄇᆡᆨ셩들이 ᄐᆡ평ᄒᆞ야 거리거리 격양가를 부르더라

잇ᄊᆡ 부사 금은을 장수ᄋᆞᆷ으로 만히 보내여 법젼과 초막을 일신슈보ᄒᆞ게 ᄒᆞᆯ ᄎᆞ로 원강ᄃᆡ사와 졔승의게 은혜를 치사ᄒᆞ고 ᄯᅩᄒᆞᆫ 즁방으로 ᄒᆞ야금 경셩에 보ᄂᆡ여 녀관주인 할미 와 명지쟝사며 필묵쟝사 셰 사람을 청ᄒᆞ야다가 젼일 은혜를 치사ᄒᆞ고 금은 쳔량을 논아주고 대연을 ᄇᆡ셜ᄒᆞ야 관ᄃᆡᄒᆞ니 그 사람들이 뭇ᄂᆡ 하례ᄒᆞ며 그 덕셩을 축사ᄒᆞ야 도로혀 감사이 역이고 각각 도라가더라

부사 도임ᄒᆞᆫ 지 수년에 션치ᄒᆞ는 예성이 ᄌᆡ로ᄒᆞ야 국ᄂᆡ에 진동ᄒᆞ거ᄂᆞᆯ 왕상께옵셔 긔특이 역이사 타읍으로 리직ᄒᆞ게 ᄒᆞ시니라

수원 ᄇᆡᆨ셩들이 원님이 체등됨을 알고 수쳔명 ᄇᆡᆨ셩이 경셩에 올나가 원류장을 비국에 정ᄒᆞ얏더

라

잇ᄯᅴ 왕상ᄭᅦ옵셔 더욱 긔특이 역이사 직품을 도도와 부사 신류복으로 ᄒᆞ야금 류수를 졔수ᄒᆞ시고 수원을 ᄯᅥ나지 말나 ᄒᆞ시더라

잇ᄯᅴ 신류수 이 젼지를 밧ᄌᆞ와 향탁을 ᄇᆡ셜ᄒᆞ고 북향사ᄇᆡᄒᆞᆫ 후에 국운을 츅사ᄒᆞ야 못ᄂᆡ 질기더라

각셜 부사 인ᄆᆞ를 경상도 상쥬로 보ᄂᆡ여 장인 장모와 류소현과 금형 등을 쳥ᄒᆞ야 다려올ᄉᆡ 류수 특별이 쳐가 족속을 쳥ᄒᆞ야다가 부인으로 륜긔를 화목케 ᄒᆞ시니 그 류수 신류복의 어진 덕셩과 활달ᄒᆞᆫ 심지를 비ᄒᆞᆯ 데 업더라

신류수와 리호장 간에 사실 아는 사ᄅᆞᆷ은 신류수의 널분 덕셩과 깁흔 후의를 칭찬치 아니ᄒᆞ 리 업더라

신류수 다시 도임ᄒᆞᆫ 후에 ᄇᆡᆨ셩의 펴ᄆᆡᆨ을 거셰업시 십분주의ᄒᆞ야 사실ᄃᆡ로 하후하박 업시 공결ᄒᆞ야 주니 ᄇᆡᆨ셩들이 찬양ᄒᆞ야 왈

공졍 ᄒᆞ고 인선ᄒᆞ신 양반은 만이 보와거니와 신명ᄒᆞ시기 귀신 갓트시며 인심을 감화ᄒᆞ시기 특별ᄒᆞ사 악인이 변ᄒᆞ야 션인이 되고 도젹이 변ᄒᆞ야 량민이 되ᄆᆡ 산무도젹ᄒᆞ고 도불습류ᄒᆞ며 야불폐문ᄒᆞ고 민우ᄌᆡ송ᄒᆞ니 신님 사도의 덕힝으로 일읍이 ᄐᆡ평무사ᄒᆞ니 공수와 황ᄑᆡ의 형젹을 다시 보ᄂᆞᆫ 듯ᄒᆞ다 일캇더라

잇ᄯᅴ 왕상ᄊᆡ옵셔 공졍ᄒᆞ고 쳥렴ᄒᆞᆫ 사람을 ᄐᆡᆨᄒᆞ사 팔력민졍을 살피실ᄉᆡ 마참 수원 치젹이 제일이라

왕상ᄊᆡ옵셔 더욱 만심환희ᄒᆞ사 신류복으로 젼라감사를 졔수ᄒᆞ시더니 반 년이 못 되야 다시 경상감사로 리직ᄒᆞ시고 가라사ᄃᆡ 경의 마암과 ᄌᆡ조를 루년 시험ᄒᆞ야 보ᄆᆡ 도쳐 치젹이 셕일 공수 황ᄑᆡ의게 지ᄂᆡ도다 이번 경상도에 도임ᄒᆞ거든 칠십이 쥬 수령을 임의로 츌쳑ᄒᆞ라 ᄒᆞ시더라

신감사는 본ᄅᆡ 총명ᄒᆞ고 령ᄆᆡᄒᆞ야 ᄆᆡ사를 이문목도ᄒᆞᆫ 것갓치 공결ᄒᆞᄆᆡ 왕상ᄭᅦ옵셔 엇지 범인으로 아르시리요

신감사 텬은을 츅사ᄒᆞ며 경상도에 도임ᄒᆞ야 치젹이 역연ᄒᆞᄆᆡ 다시 병조판셔로 부르시와 검위ᄃᆡ장을 겸ᄒᆞ게 ᄒᆞ이시며 그 부인의 가자를 도도시와 정렬부인을 봉ᄒᆞ시더라

잇ᄯᅴ 신류복의 위엄이 조졍에 제일일ᄉᆡ 만조ᄇᆡᆨ관이 ᄂᆡ 아니 두려워 할 ᄌᆡ 업더라

각셜 잇ᄯᅴ는 명나라 무종황졔 직위 삼년 일ᄉᆡ 조졍에 츙 신이 업고 간신이 병권ᄒᆞ야 텬자의 총명을 가리여 란일이 상다ᄒᆞ니 엇지 국가 ᄐᆡ평ᄒᆞ리요

잇ᄯᅴ 맛참 셔번과 가달이 강셩ᄒᆞ야 몽고로 더부러 화친ᄒᆞ야 셰 나라이 동심합력ᄒᆞ야 군사를 이르켜 즁원을 칠ᄉᆡ 셔쥬 칠십 여 셩을 쳐 항복밧고 셔평관에 이르니 관 직히ᄂᆞᆫ 장수 능히 져당치 못ᄒᆞ야 장계를 닥거 급히 올녀거ᄂᆞᆯ 황졔 대경ᄒᆞ사 급히 ᄀᆡ탁ᄒᆞ야 보시니

그 장계에 ᄒᆞ얏스되 셔번과 가달이 군사를 거나려 몬져 셔쥬 칠십여 성을 항복밧고셔 평관에 이르러ᄉᆞ오니 그 셰가 ᄐᆡ산 갓ᄉᆞ와 소장의 힘으로ᄂᆞᆫ 당치 못ᄒᆞᄀᆡᄉᆞ오니 급피 특별ᄒᆞᆫ 장수를 보ᄂᆡ시와 셩디를 구원ᄒᆞ옵소셔 만일 지체ᄒᆞ오면 셔북은 도젹의 ᄯᅡ이 되깃나이다 ᄒᆞ엿거ᄂᆞᆯ

황상ᄭᅦ옵셔 람필에 대경ᄒᆞ시와 만조ᄇᆡᆨ관을 모시와 그 장게를 뵈이시고 가라사ᄃᆡ 도젹이 이러트시 강셩ᄒᆞᄆᆡ ᄂᆡ 능히 젹병을 당ᄒᆞ리요 ᄒᆞ신ᄃᆡ

사ᄆᆞ 원극이 츌반 쥬 왈

신이 비록 ᄌᆡ조 업ᄉᆞ오나 ᄒᆞᆫ 번 싸와 도젹을 함몰ᄒᆞ고 국가에 근심을 덜가 ᄒᆞ나이다 ᄒᆞ거ᄂᆞᆯ

황졔 원극으로 내원수를 봉ᄒᆞ시고 왕균으로 션봉을 삼으시며 량춘으로 부션봉을 삼으시고 누관과 셔형으로 좌우익장을 삼으시며 군사 칠십만을 조발ᄒᆞ사 ᄐᆡᆨ일 ᄇᆞᆯ힝ᄒᆞ라 ᄒᆞ실ᄉᆡ 긔치창검은 일월을 가리오고 사ᄅᆞᆷ은 쳔신 갓 고 말은 비룡 갓더라

ᄯᅥ난 지 여러 날 만에 셔평관에 다다러 젹병과 대진ᄒᆞ고 졉젼ᄒᆞᆯᄉᆡ 가달의 쟝슈 통골은 당셰 명쟝이라 ᄂᆡ 능히 당ᄒᆞ리요

명진 션봉장 왕균이 통골노 더부러 싸울ᄉᆡ 십여 합에 왕균의 긔운이 쇠진ᄒᆞ야 가ᄆᆡ 통골이 더욱 승세ᄒᆞ야 철퇴를 드러 왕균을 치니 거ᄭᅮ러지ᄂᆞᆫ지라

통골이 칼을 ᄊᆡ여 목을 갈기ᄆᆡ 금광을 조차 ᄆᆞ하에 ᄂᆡ려지니 통골의 용밍은 나는 졔비라도 밋지 못ᄒᆞᆯ너라

통골이 예긔양양ᄒᆞ야 진젼에 횡횡ᄒᆞ야 크게 ᄭᅮ지져 왈

명진에 젹수 잇거든 밧비 나와 내 칼을 바드라

ᄒᆞᄂᆞᆫ지라

명진 대원수 션봉장의 죽음을 보고 앙쳔탄식ᄒᆞ며 분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좌익장 루관과 우익장 셔형으로 더부러 대군을 휘동ᄒᆞ야 일시에 진젼으로 나셔며 크게 호령ᄒᆞ야 왈

이 ᄀᆡ 갓흔 오랑캐ᄂᆞᆫ 드르라 네 강포만 밋고 외람이 쳔위를 범ᄒᆞ니 엇지 쳔도 무심ᄒᆞ시리요 이러ᄒᆞᆷ으로 ᄒᆞᄂᆞ님이 나를 ᄂᆡ사 도젹을 함몰ᄒᆞ게 ᄒᆞ셧스니 너는 닷지 말고 목을 드리여 내 칼을 바드라 ᄒᆞ며 달여드니

통골이 크게 우셔 왈

너 갓흔 어린아ᄒᆡ들은 무삼 잔말 ᄒᆞ나냐 ᄒᆞ며 싸홀ᄉᆡ 십여 합에 승부 업더니 통골이 분노ᄒᆞ야 철퇴를 놉피 들어 루관과 셔형을 치니 양장이 일시에 ᄆᆞ하에 나려지ᄆᆡ 사ᄆᆞ 원극이 황겁ᄒᆞ야 본진으로 다라나는지 라

통골이 양쟝을 버혀들고 급히 원극을 ᄯᅡ라 명진을 사살ᄒᆞ니 명진 장졸의 머리 추풍락엽 갓흔지라

원극이 칠십만 대병을 통골의 손에 다 죽이고 목숨만 보젼ᄒᆞ야 필마단긔로 긔주셩에 이르러 자사를 보고 지ᄂᆡᆫ 사실을 이르고 장수를 발ᄒᆞ야 셩을 굿게 직히고 직시 ᄑᆡᆫ 사실을 주달ᄒᆞᆯᄃᆡ 황졔 대경ᄒᆞᄉᆞ 조졍을 모으시고 도젹 파ᄒᆞᆯ 의논을 ᄒᆞ실ᄉᆡ 만조ᄇᆡᆨ관이 황겁ᄒᆞ야 대답ᄒᆞᆫ는 ᄌᆡ 업거늘 황졔 창황망조ᄒᆞ사 아모리 ᄒᆞᆯ 줄 모르시더니

좌승상 최쳘이 주 왈

도젹이 이러트시 강셩ᄒᆞ와싸오나 조정에 지용이 겸비ᄒᆞᆫ 쟝수 업고 다 ᄇᆡᆨ면셔싱 갓ᄉᆞ오니 가장 망극하온지라 신의 소견에ᄂᆞᆫ 조션이 비록 소국이오나 명장이 만사오니 폐하ᄂᆞᆫ 아모 념녀 마옵시고 조션으로 사신을 보ᄂᆡ여 청병ᄒᆞ옵소셔 ᄒᆞ온ᄃᆡ 황상께서 청병ᄒᆞ시기로 륜허ᄒᆞ시니라

좌승상이 황명을 봉승ᄒᆞ야 사신을 조션으로 보ᄂᆡᆯᄉᆡ 사신을 불너 당부ᄒᆞ야 왈

국세 만분 위급ᄒᆞ얏스니 그ᄃᆡ는 급히 단여오라 ᄒᆞ더라

사신이 황명을 봉승ᄒᆞ고 조션국으로 향ᄒᆞ야 가더라

잇ᄯᅥᆨ 조션국은 년년풍등ᄒᆞ야 ᄇᆡᆨ셩이 격양가를 부르고 죠가에셔는 ᄐᆡ평가를 부르니 이러무로 관민이 다 ᄐᆡ평셩ᄃᆡ라 일컷는지라

잇ᄯᅥᆨ 왕상씌옵셔 만심환희ᄒᆞ사 문무ᄇᆡᆨ관을 거나리시 고 여민락 풍류로 ᄆᆡ일 연락ᄒᆞ시는 시ᄃᆡ라

잇ᄶᅢ 마참 명나라에셔 쳥병자문을 올니거ᄂᆞᆯ 직시 ᄀᆡ탁ᄒᆞ야 보시니 그 글에 ᄒᆞ얏스되 명국황졔는 조션국왕의게 두어 자 글을 올니나니 지금 셔번과 가달이 강셩ᄒᆞ야 몽고로 더부러 동심합력ᄒᆞ야 셔주 칠십 여 셩을 치고 셔평관에 이르럿스니 그 형세 ᄐᆡ산 갓ᄒᆞ야 국가 위ᄐᆡᄒᆞᆷ이 조셕에 잇기로 구원ᄒᆞᆷ을 쳥ᄒᆞ얏스니 ᄒᆞᆫ번 쟝졸을 빌니면 도젹을 물니치고 종사를 안보ᄒᆞ깃나이다 ᄒᆞ얏거ᄂᆞᆯ

왕샹씌옵셔 보시기를 다ᄒᆞ시고 만조ᄇᆡᆨ관을 모와 명국에 구원병을 쳥ᄒᆞ는 일에 ᄃᆡᄒᆞ야 의논ᄒᆞ신ᄃᆡ 만조졍이 묵묵부답ᄒᆞ더니

그 즁 병조판셔 신류복이 출반 쥬 왈

지금 즁국이 위ᄐᆡᄒᆞ야 구원ᄒᆞᆷ을 쳥ᄒᆞ얏ᄉᆞ오니 구원을 보ᄂᆡ지 아니ᄒᆞ면 린국 ᄃᆡ접이 아니옵고 가달이 만일 즁국을 멸ᄒᆞ오면 죠션도 순망지한으로 어려오니 밧비 구원병을 보ᄂᆡ여 즁국을 구원ᄒᆞ야 쥬고 조션의 위엄을 뵈오미 조흘가 ᄒᆞ나이다

왕샹이 가라시ᄃᆡ 경의 말이 올흐니 구원병을 령솔ᄒᆞᆯ 장수를 ᄂᆡ염 직ᄒᆞᆫ 사람이 업고 만일 갓다가 ᄑᆡᄒᆞ면 다시 원슈를 ᄆᆡ질지라 가ᄃᆞᆯ이 우리 나라를 칠 디경이면 엇지 방어하리요 ᄒᆞ시ᄆᆡ

병조판셔 곳쳐 쥬 왈

젼하는 근심치 마옵소셔 신이 비록 직조 업ᄉᆞ오나 ᄒᆞᆫ번 나아 가 가ᄃᆞᆯ과 사번과 몽고 셰 나라를 쳐 파ᄒᆞ고 조션국 위엄을 세게에 썰칠지니 아무 념녀 마옵소셔 ᄒᆞ거ᄂᆞᆯ

왕상이 가라사ᄃᆡ 경은 나의 슈족이요 국가에 츙신이라 만일 경을 ᄐᆞ국에 보ᄂᆡ고 일신들 엇지 심신이 편ᄒᆞ리요 찰하리 다른 신하를 ᄐᆡᆨᄒᆞ야 보ᄂᆡ임이 올타 ᄒᆞ시거늘

병죠판셔 머리를 조아 엿ᄌᆞ오되 신이 망극ᄒᆞᆫ 쳔은을 입ᄉᆞ와 벼살이 일품에 이르럿ᄉᆞ오니 쳔은이 하히 갓흔지라 셔번과 가ᄃᆞᆯ과 몽고를 파ᄒᆞ옵고 일홈을 삼국에 빗ᄂᆡ고 도라오기를 바라나이다 ᄒᆞ거늘

왕상씌옵셔 사세 엇지 ᄒᆞᆯ 수 업슴을 ᄭᆡ다르사 병조판셔 신류복으로 구원병 대도독을 삼으시고 정병 삼쳔 명을 조발ᄒᆞ사 즁국 사신과 ᄒᆞᆫ가지로

발힝ᄒᆞ게 ᄒᆞ시니 신도독이 왕샹씌 하직ᄒᆞ고 집에 도라와 부인으로 젼별ᄒᆞᆯ식

부인이 도독의 손을 잡고 가로ᄃᆡ 만리타국에 구원쟝으로 가시니 가쟝 망극ᄒᆞ고 가련ᄒᆞ오나 ᄃᆡ쟝부ㅣ 세샹에 처ᄒᆞ야 일변 국가를 위ᄒᆞ옵고 일변 도탄에 든 불상ᄒᆞᆫ 빅셩을 건지여 일홈을 죽빅에 올니와 쳔추만세에 류젼ᄒᆞ야 문호를 빗닐 일이 썻썻ᄒᆞ거ᄂᆞᆯ 엇지 슈회를 ᄉᆡᆼ각ᄒᆞ오릿가 ᄒᆞ며 조금도 슯허ᄒᆞ는 빗치 업고 원로에 무사이 셩공ᄒᆞ고 도라오시기를 쳔만번 츅수ᄒᆞ옵나이다 ᄒᆞ거늘

도독이 부인의 말이 졍ᄃᆡᄒᆞ고 사리에 졀당 홈을 탄복ᄒᆞ며 분슈젼별ᄒᆞ고 직시 쟝졸을 령솔ᄒᆞ야 ᄇᆞᆯ힝ᄒᆞᆯ식 군률이 엄슉ᄒᆞ고 힝오가 졍졔홈이 사마양져의 군률과 쥬아부의 쟝략이며 졔갈량의 용병홈에 지ᄂᆡᆯ너라

신도독이 쟝졸을 령솔ᄒᆞ고 힝군ᄒᆞ야 림진강을 건너 동파력에 슉소ᄒᆞ얏더니 이날 밤 삼ᄉᆞ경에 월식은 조요ᄒᆞ고 금풍이 소슬ᄒᆞ야 사롬의 긱회를 돕ᄂᆞᆫ지라

도독이 잠을 이루지 못ᄒᆞ야 군즁으로 다니며 ᄇᆡ회ᄒᆞ더니 문득 일위 노승이 측벼 장삼을 입고 륙환쟝을 집고 완연이 오다가 도독을 보고 합쟝ᄇᆡ례ᄒᆞ야 왈

장군은 작별ᄒᆞᆫ 지 슈년에 무양ᄒᆞ시나잇가

도독이 마암에 의아ᄒᆞ야 자셰이 살펴보니 원강대사라 반가온 마암을 이긔지 못ᄒᆞ야 답례ᄒᆞ야 왈

션싱이 어대로셔 오시나잇가

대사 다시 ᄇᆡ례 왈

빈승이 맛참 묘향산을 구경갓다 오ᄂᆞᆫ 길에 장군 힝ᄎᆞ가 이곳에 머므심을 듯고 반가히 ᄇᆡ옵고져 왓나이다 ᄒᆞ고

소ᄆᆡ로셔 일봉 셔간을 집어ᄂᆡ어 쥬며 왈

이졔 장군이 젼장으로 가시ᄆᆡ 승픽를 아지 못ᄒᆞ야 가장 어려온지라 즁극에 한 도승이 텬봉산 봉션암에 잇ᄉᆞ오니 이 편지를 젼ᄒᆞ옵고 젼쟝에 도아달나 간쳥ᄒᆞ옵소셔 봉션암에 게신 일힝대사는 빈승에 션싱이시니 텬문디리와 륙졍륙갑과 둔갑쟝신이며 풍운조화를 모를 거시 업ᄉᆞ오니 특별ᄒᆞᆫ 졍성 으로 차져가셔 ᄒᆞᆫ가지로 나아가시면 젹병을 엇지 근심ᄒᆞ리요 부ᄃᆡ 허수이 알지 말고 셩공ᄒᆞ시고 평안이 다녀옵소셔 ᄒᆞ거ᄂᆞᆯ

도독이 감격ᄒᆞ야 사례 왈

이 도젹이 강셩ᄒᆞ야 즁국이 위ᄐᆡᄒᆞ오니 념녀무궁ᄒᆞ옵ᄂᆞᆫ지라 션싱의 말삼 갓흘진ᄃᆡ 엇지 감격지 아니 하리요 ᄒᆞ고

션싱다려 문 왈

오날 밤을 한 가지로 쉬여 졍회나 말슴ᄒᆞᄉᆞ이다

션싱이 사양ᄒᆞ여 왈

군즁에셔 군략과 젼술에 참모홈을 문답ᄒᆞ련이와 엇지 차외에 무슨 셩회를 담화ᄒᆞ리요 지금 이거시 작별이오니 장군은 셩공ᄒᆞ고 평안이 도라옵소셔 ᄒᆞ고 소ᄆᆡ를 썰쳐 동편으로 향ᄒᆞ야 가거ᄂᆞᆯ 잠간 살펴본즉 거름이 경쳡ᄒᆞ야 능히 ᄯᅡ로지 못ᄒᆞᆯ너라

도독이 하릴업셔 션싱의 젼후 은덕을 ᄉᆡᆼ각ᄒᆞ고 뭇ᄂᆡ 사모ᄒᆞ며 진즁에 도로 와셔 쉬고 잇흔날 장졸을 ᄌᆡ촉ᄒᆞ야 여러 날 만에 즁국지경에 다다러 텬봉산을 무러 차져갈식 마참 일위 노승이 지ᄂᆡ가ᄂᆞᆫ지라

도독이 마음에 ᄃᆡ희ᄒᆞ야 그 즁을 ᄃᆡᄒᆞ야 텬봉산을 무른즉 대답ᄒᆞ야 가라치되 져 건너 산이 텬봉산이로소이다 ᄒᆞ고 합장ᄇᆡ례ᄒᆞ고 가ᄂᆞᆫ지라

사신을 몬져 보ᄂᆡ여 황상ᄭᅦ 주ᄃᆞᆯᄒᆞ야 근심ᄒᆞ심을 위로되시게 하라 ᄒᆞ고 직시 힝군ᄒᆞ야 쳔봉산에 다다러 산 어귀에 류진ᄒᆞ고 군무사를 아장의게 잠ᄀᆞᆫ 위림ᄒᆞ고 죽장망혜 로 쳔봉산을 올나가며 두루 경치를 완상ᄒᆞ야 봉선암을 차져 가다가 ᄒᆞᆫ편을 바라본즉 홀연 ᄒᆞᆫ 동자 샹샹봉에셔 약을 키다가 이샹ᄒᆞᆫ 노ᄅᆡ를 부르거ᄂᆞᆯ 도독이 그 노ᄅᆡ를 자셰히 드르니

그 노ᄅᆡ에 ᄒᆞ얏스되 텬디 요란ᄒᆞ고 시절이 분운ᄒᆞ다 즁원이 광ᄃᆡᄒᆞ야 인ᄉᆡᆼ이 만컨만은 강포ᄒᆞᆫ 셔북 도젹 뉘라셔 알소냐 셰상이 번복ᄒᆞ야 란셰가 되얏슨들 령웅이 바이 업셔 성덕을 밧들지 못ᄒᆞ니 옥야텬디 널분 ᄯᅡ이 호디가 된단 말가 텬봉산 구름 속에 대은이 잇지만은 세상이 무심ᄒᆞ니 뉘가 능히 아라보며 졔갈량이 조흔 계교 흉즁에 뭇쳣스니 류황숙 업스니 차지 리 바이 업다 산즁에셔 방황ᄒᆞᄂᆞᆫ 져 쟝수는 대로를 일코 협노로 산즁에 드러왓나 일락셔산ᄒᆞ니 어셔 밧비 도라가소 깁고 깁흔 ᄐᆡ산 험노에 모진 즘ᄉᆡᆼ 무셔워라

쳔만 가지로 비양스럽게 조롱ᄒᆞ는지라

도독이 듯기를 다ᄒᆞ고 그 동자를 향ᄒᆞ야 문 왈

이 산중에 봉선암이 어ᄃᆡ 잇스며 일향대사 산즁에 계시뇨

동ᄌᆞ 답 왈

일향대사는 아지 못ᄒᆞ거니와 봉선암은 이 우에 잇나이다 ᄒᆞ니

도독이 바로 봉선암을 차져가니 아ᄒᆡ 우물가에 안져 약을 씻는지라

도독이 문 왈

일향대사ㅣ 이 산즁에 게시뇨

그 아ᄒᆡ 답 왈

우리 스승이 약을 키라 가셧다가 곤ᄒᆞ사 잠을 깁히 드르셧나이다 귀ᄀᆡᆨ은 부득이 보시랴 ᄒᆞ시거든 잠간 머므소셔 ᄒᆞ고 약을 씨셔 가지고 암ᄌᆞ로 드러가더니 이윽도록 나아오지 아니ᄒᆞ거늘

도독이 하릴업셔 암상에 안져 날이 졈으도록 긔다리되 아모 종젹이 업거ᄂᆞᆯ 도독이 이류를 알 수 업셔 민망히 지ᄂᆡ다가 류황슉이 공명션싱의 잠ᄭᅵ기를 고ᄃᆡᄒᆞ든 일을 ᄉᆡᆼ각ᄒᆞ야 태연이 안심ᄒᆞ고 졍셩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더니

이윽고 동ᄌᆞ 나와 문 왈

귀ᄀᆡᆨ이 어ᄃᆡ 계시며 무삼 일로 대사님을 보려 ᄒᆞ시나잇가 지금이야 잠을 ᄭᅵ셧스니 드러가 뵈옵소셔 ᄒᆞ는지라

도독이 그 동ᄌᆞ를 ᄯᅡ라 사즁에 드러가보니 일향 노승이 셔안을 의지ᄒᆞ고 언연이 안졋거ᄂᆞᆯ 도독이 대사를 향ᄒᆞ야 ᄇᆡ례ᄒᆞ니

노승이 몸을 굽혀 답례ᄒᆞ야 왈

존ᄀᆡᆨ은 어ᄃᆡ 계시며 무삼 일노 산즁에 왕림ᄒᆞ셧나잇가

도독이 공손이 답ᄒᆞ야 왈

소ᄉᆡᆼ은 조션ᄉᆞ름으로셔 구원장이 되여 잇ᄯᅡ에 지나가다가 법사의 놉흐신 일홈을 듯삽고 ᄒᆞᆫ번 뵈옵고져 ᄒᆞ야 이와 갓흔 정결ᄒᆞᆫ 산즁에 더러온 몸이 드러왓삽더니 존사ᄭᅴ옵셔 잠을 드러게시기로 지금ᄭᆞ지 기ᄃᆡ렷나이다

노승이 도독의 말을 듯고 놀나는 체ᄒᆞ야 동ᄌᆞ를 ᄭᅮ지져 왈

귀ᄀᆡᆨ이 오신 지 오ᄅᆡ 되엿스면 엇지 나를 직시 ᄭᅵ오지 아니ᄒᆞ얏난야 ᄒᆞ며 동ᄌᆞ로 ᄒᆞ야금 특셜일탑ᄒᆞ야 례필좌졍ᄒᆞᆫ 후 셕반을 올리거ᄂᆞᆯ 도독이 식상을 바다본즉 속반사치가 업고 다만 소담ᄒᆞ나 식미는 양계에는 업는 료리일너라

식상을 물니고 반과를 먹은 후에 낭즁으로셔 원강대사의 셔찰을 드려 왈

소ᄉᆡᆼ이 구원대장으로 나아오나 지략이 부족ᄒᆞ옵고 ᄌᆡ조 쳔단ᄒᆞ야 능히 강포ᄒᆞᆫ 도젹을 져당치 못ᄒᆞ깃나이다 ᄒᆞ며

원강대사는 소ᄉᆡᆼ의 션ᄉᆡᆼ이시ᄆᆡ 사졔의 졍리를 ᄉᆡᆼ각ᄒᆞ사 즁노에 차자와 일봉 셔간을 닥가 주시며 법사의 놉흐신 일홈을 일너 주시기로 션ᄉᆡᆼ님의 도학을 자세히 드럿나이다 복원 션ᄉᆡᆼ은 소ᄉᆡᆼ의 사졍을 특별이 ᄉᆡᆼ각ᄒᆞ사 ᄒᆞᆫ번 ᄉᆞᆫ문을 ᄶᅥ나 파적ᄒᆞᆷ을 참모ᄒᆞ야 주시기를 쳔만 바라옵나이다

일향대사 흔연 답 왈

노승이 ᄉᆞᆫ에 나리지 아니ᄒᆞᆫ 지 만 오십 년이라 무삼 졍신이 잇스리요 원강이 잘못 지시ᄒᆞ얏도다

도독이 곳쳐 간쳥ᄒᆞ야 왈

소ᄉᆡᆼ이 엇지 그릇 드러스리잇가 지금 도독이 강셩ᄒᆞ야 즁원을 침범ᄒᆞ야 위ᄐᆡᆨᄒᆞᆷ으로 텬ᄌᆞ 대경ᄒᆞ사 조션에 구원을 쳥ᄒᆞ얏사오니 만일 도젹이 즁원을 함몰ᄒᆞ면 명나라 사직이 일조에 망ᄒᆞᆯ지라 션ᄉᆡᆼ이 비록 ᄉᆞᆫ즁에 게시나 이 ᄉᆞᆫ도 명국 ᄯᅡ이ᄆᆡ 리용ᄒᆞ시는 슈토라도 국가에 관게가 되옵거ᄂᆞᆯ 엇지 국가를 방조ᄒᆞ지 아니 ᄒᆞ시리잇가

노승이 탄식ᄒᆞ야 왈

소신이 엇지 사셰 그러ᄒᆞᆫ 졸 모르리요 만은 졔일은 내 나라를 사랑ᄒᆞ고 둘ᄌᆡ는 원장의 부탁을 져바리지 못ᄒᆞᆯ지라 작야에 쳔문을 살펴보니 규셩이 ᄉᆞᆫ문에 빗치엿기로 귀ᄀᆡᆨ이 오실 줄 알랏노라 ᄒᆞ고 다과를 ᄂᆡ와셔 서로 권ᄒᆞ며 이윽도록 담화ᄒᆞ야 밤을 지ᄂᆡ더라

각셜 일향대사 동자를 ᄃᆡᄒᆞ야 이 절을 잘 직히라 당부ᄒᆞ고 ᄉᆞᆫ문을 ᄶᅥ날ᄉᆡ 머리에 갈건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쳐사의 모양으로 ᄉᆞᆫ하에 나려오니 도독이 진문을 크게 열고 환녕ᄒᆞ야 드러감ᄋᆡ 졔장군졸이 군사례로 힝ᄒᆞ니라

잇ᄭᅴ 도독이 일향ᄃᆡ사로 더부러 힝군ᄒᆞ야 ᄶᅥ날ᄉᆡ 션ᄉᆡᆼ은 사륜거에 모시고 도독은 쳔리대완마를 타고 힝군ᄒᆞ야 여러 날 만에 황셩에 도달ᄒᆞ야 황졔ᄭᅴ 펴현ᄒᆞ온ᄃᆡ 황상이 도독을 ᄒᆞᆫ번 살펴보신즉 양미간에 쳔디조화와 일월광치 어렷스니 진실노 만고명장이요 동셔양 령웅이라

쳔ᄌᆞ 탄식ᄒᆞ야 가라사ᄃᆡ 조션이 소국이로되 져갓흔 명장이 잇셔 내 나라를 구원ᄒᆞ라 왓스니 엇지 도젹 파ᄒᆞ기를 근심ᄒᆞ리요 ᄒᆞ시고

부탁ᄒᆞ사 왈

짐이 불힝ᄒᆞ야 란셰를 당ᄒᆞ야 사직이 위틱홈이 조셕에 잇스니 경은 츙셩을 다ᄒᆞ야 짐을 도와 빗ᄂᆞᆫ 일홈을 오국에 진동케 ᄒᆞ라 ᄒᆞ시고

황졔 친히 장졸들을 조ᄇᆞᆯᄒᆞ실ᄉᆡ 신류복으로 ᄃᆡ원슈를 봉ᄒᆞ시고 ᄇᆡᆨ모황월과 청룡류셩퇴를 주시니 원슈 고두ᄉᆞ은 ᄒᆞᄂᆞᆫ지라

황졔 ᄯᅩᄒᆞᆫ ᄃᆡ장 혼연과 사마도총판 셔경필을 명초ᄒᆞ사 왈

경등은 ᄃᆡ원슈와 동심합력ᄒᆞ야 도젹을 파ᄒᆞ라 ᄒᆞ시ᄆᆡ 두 장슈 청령ᄒᆞ고 물너나오거날

원슈 장대에 올나 졔장군졸을 졈고ᄒᆞᆫ 후에 졔장으로 더부러 단속ᄒᆞ야 왈

황샹씌옵셔 쥬신 샹방검을 들고 여등은 만일 나의 령을 거역ᄒᆞᄂᆞᆫ ᄌᆞ 잇스면 이 칼노 군법시힝ᄒᆞ리라 ᄒᆞ니 장졸이 일시에 청령ᄒᆞ거날

잇튼날 탑젼에 하직ᄒᆞ랴 ᄒᆞᆯᄉᆡ 황졔 친히 잔을 잡으사 술을 부어 원수를 쥬사 부탁ᄒᆞ야 가라사ᄃᆡ 도젹이 강포ᄒᆞ니 경젹지 말고 수이 셩공ᄒᆞ야 도라옴을 바라노라 ᄒᆞ시니 원수 고두ᄉᆞ례ᄒᆞ며 하직ᄒᆞ고 물너나와 장졸을 령솔ᄒᆞ야 셔평관으로 힝ᄒᆞ야 가더라

잇ᄯᅦ 가달이 통골노 더부러 셔평관을 쳐 ᄲᅦ앗고 긔쥬에 다다르니 긔쥬자사와 원극이 셩문을 굿게 닷고 안병부동ᄒᆞ거ᄂᆞᆯ 가달이 통골과 의논ᄒᆞ되 여차여차ᄒᆞ자 약속을 정ᄒᆞ고 밤들기를 긔대려 대군을 휘동ᄒᆞ야 사면으로 둘너싸며 셩문을 ᄲᅴ치고 지쳐드러가니 자사와 원극이 불의지변을 만난 것 갓터여 밋처 손을 놀일ᄉᆡ 업시 통골의 칼이 빗나며 자사와 원극의 머리에 ᄲᅥ러지는지라

이러무로 통골이 양장을 버히고 셩즁을 엄살ᄒᆞᆯᄉᆡ 죽엄이 틱산 갓고 피 흘너 강이 되얏더라

가달 등이 ᄒᆞᆫ번 싸와 서 평관과 긔주를 함락시키고 의기량량ᄒᆞ야 바로 황셩으로 힝ᄒᆞ야 지나ᄂᆞᆫ 바에 ᄃᆡ젹ᄒᆞᆯ ᄌᆡ 업더라

슉쥬에 이르니 목사 셩을 바리고 다라나거ᄂᆞᆯ ᄯᅩᄒᆞᆫ 슉쥬를 ᄲᅦ앗고 더욱 승승ᄒᆞ야 진쥬에 이르더라

잇ᄯᅦ 신원수의 대병이 진쥬에 다다르ᄆᆡ 진쥬목사 구원병이 옴을 보고 대희ᄒᆞ야 셩문 밧게 나와 원수를 환영ᄒᆞ야 드리거ᄂᆞᆯ 원수 진쥬에 이르러 밤을 지ᄂᆡ고 잇흔날 셩에 올나 젹세를 살펴본즉 무수ᄒᆞᆫ 도젹이 만ᄉᆞᆫ편야ᄒᆞ야 사면에 진을 쳣슬 ᄲᅮᆫ외라 군률이 엄숙ᄒᆞ고 항오가 졍졔ᄒᆞ야 굿음이 철옹 갓더라

원수 젹병 칠 계교를 의논ᄒᆞᆯᄉᆡ 일향대사 왈

젹진 항오가 분명ᄒᆞ고 진셰엄숙ᄒᆞ니 경적지 말고 졉젼ᄒᆞ되 삼가 조심ᄒᆞ옵소셔 젹진에 반다시 명장이 잇슬 거시니 내 ᄒᆞᆫ번 젹진에 진위를 살펴본 후에 대젹ᄒᆞ라 ᄒᆞ고 젹세를 시험ᄒᆞ야 보더라

신원수 갑주를 갓초고 쳔리대완ᄆᆞ를 타고 진젼에 나서며 크게 ᄭᅮ지져 왈

무무ᄒᆞᆫ 도젹아 쳔위를 모르고 대국을 침범ᄒᆞ니 ᄒᆞᄂᆞ님이 엇지 무심ᄒᆞ시리요 나는 조션국에서 온 구원장이라 너의들를 씨업시 함락시키리라 ᄒᆞ거ᄂᆞᆯ

젹장 통골이 이 말을 듯고 말을 ᄂᆡ모라 대로왈

소국에 어린아히어ᄂᆞᆯ 감히 대국을 구원ᄒᆞ랴 ᄒᆞᆫ들 능히 나를 져당ᄒᆞᆯ손야 부질럽시 긔운만 허비ᄒᆞ지 말고 잔명을 도모ᄒᆞ랴 ᄒᆞ거든 말게 ᄂᆞ려 항복ᄒᆞ라 ᄒᆞ거ᄂᆞᆯ 신원수 크게 우스며 ᄆᆞ를 ᄂᆡ모라 싸홀ᄉᆡ 칠십여 합에 불분승부라 통골이 고함ᄒᆞ고 달녀들거날 원수 철퇴를 들어 통골의 가삼을 치니 통골이 몸을 날니여 피ᄒᆞ고 다시 싸호니 양장의 ᄌᆡ조는 셔로 샹당ᄒᆞᆫ 젹수라

검굉은 일월을 희롱ᄒᆞ고 말굽은 분분ᄒᆞ야 능히 자웅을 불변치 못ᄒᆞᆯ너라

진시로부터 술시ᄭᆞ지 싸호니 그 우렬을 가히 아지 못ᄒᆞᆯ너라

양진 장졸을 셔로 바라보ᄆᆡ 뇌졍벽력 갓흔 가온ᄃᆡ에셔 쌍룡이 여의주를 다토와 희롱ᄒᆞᄂᆞᆫ 것 갓고 단ᄉᆞᆫ에 두 범은 밥을 다토와 태ᄉᆞᆫ을 움작이ᄂᆞᆫ 듯ᄒᆞ며 졍신이 아득ᄒᆞ야 바라보기 엄위ᄒᆞᆫ지라

일향ᄃᆡ사 양장의 싸홈홈을 보다가 징을 울녀 군을 거두오니 양장이 각각 본진으로 도라가더라

원수 문 왈

션싱은 무ᄉᆞᆷ 일노 징을 치시와 소쟝을 부르셧나잇가

션싱이 답 왈

원수의 금술도 비샹ᄒᆞ오나 젹쟝의 금술도 당시

령웅이라 힘으로 잡을 것시 업다 ᄒᆞ고 묘ᄒᆞᆫ 계교 잇노라 ᄒᆞ며 졔장군졸을 불너 계교를 각각 가리쳐 번진사면에 ᄆᆡ복ᄒᆞ얏다가 여ᄎᆞ여ᄎᆞᄒᆞ라 ᄒᆞᆫᄃᆡ 졔쟝군졸이 쟝령을 듯고 각각 신디로 가니라

잇혼날 젹장 통골이 진젼에 횡힝ᄒᆞ며 크게 외여 왈

에졔 미결ᄒᆞᆫ 싸홈을 결단ᄒᆞᄌᆞ ᄒᆞ거ᄂᆞᆯ 원수 노긔등등ᄒᆞ야 마ᄌᆞ 싸와 오십 여 합에 이르러 원수 거즛 픽ᄒᆞ는 체ᄒᆞ고 본진으로 다라나거ᄂᆞᆯ 통골이 승세ᄒᆞ야 급히 ᄯᅡ르더니 통골이 명진에 들며 대무 이러나고 흑운이 이러나며 쳔디를 분변치 못ᄒᆞ는 가온ᄃᆡ 좌우 복병이 일시에 이러나며 원수 급히 ᄆᆞ를 모라나와 치니 통골이 비록 영웅인들 엇지 버셔나리요

통골의 졍신 아득ᄒᆞ야 밋쳐 손을 놀니지 못ᄒᆞ야 원수의 칼이 빗나며 통골의 머리 검광을 조ᄎᆞ ᄯᅥ러지는지라

이윽고 쳔디 명랑ᄒᆞ거ᄂᆞᆯ 원수 션싱의 도슐을 뭇ᄂᆡ 탄복ᄒᆞ며 사례ᄒᆞ고 통골의 머리를 원문에 ᄃᆞᆯ고 호령ᄒᆞ니라

가ᄃᆞᆯ이 통골의 머리를 원문의 ᄆᆡ ᄃᆞᆯ니옴을 보고 ᄃᆡ경질식ᄒᆞ야 앙쳔 탄 왈

우리가 동병ᄒᆞ기ᄂᆞᆫ 통장군의 지략을 밋고 즁원을 졍벌ᄒᆞ얏더니 우리 운수 불힝ᄒᆞ야 명장을 이럿스니 다시 누를 밋고 천하를 의논ᄒᆞ리요 ᄒᆞ며 탄식ᄒᆞ거ᄂᆞᆯ

셔번장 위골ᄃᆡ와 몽고국 대장 셜만츈이 일시에 엿ᄌᆞ오되 대왕은 근심치 마옵소셔 ᄒᆞ며 위골ᄃᆡ ᄆᆞᆯ을 ᄂᆡ모라 크게 외여 왈

너를 잡아 통장군의 원슈를 갑흐리라 ᄒᆞ며 달여들어 ᄊᆞ홈을 도도거ᄂᆞᆯ

원수 ᄃᆡ로ᄒᆞ야 마ᄌᆞ 싸와 십여 합에 이르러 원수에 칼이 빗나며 위골ᄃᆡ의 머리 ᄆᆞᄒᆞ에 ᄯᅥ러지ᄆᆡ 셜만츈이 ᄯᅩᄒᆞᆫ 창을 들고 달녀드러 ᄊᆞ홈을 도도거ᄂᆞᆯ 원수 일 합에 셜만츈을 버혀들고 젹진즁에 좌츙우 돌ᄒᆞ니 가달등이 진문을 굿게 닷고 나지 안커ᄂᆞᆯ 원수 본진으로 도라오니 션싱과 졔장이 그 용밍을 못ᄂᆡ 칭찬ᄒᆞ더라

잇ᄯᅥ 가ᄃᆞᆯ과 셔번이 몽고로 더부러 의논을 ᄒᆞᆯᄉᆡ 젹진의 지조를 보니 텬지조화를 가져ᄂᆞᆫ지라 가바야이 대젹지 못ᄒᆞᆯ 거시니 오ᄂᆞᆯ밤에 가만이 잠들기를 긔다려 명진을 겁치ᄒᆞ야 젹진을 사로잡으라 ᄒᆞ고 계교를 졍ᄒᆞ더라

이날 맛참 명진에셔 쟝졸을 모두와 잔치를 ᄇᆡ셜ᄒᆞ고 질기더니 호연 광풍이 이러나 긔쌀이 험ᄒᆞ게 붓치니 일향대사 고이 넉여 졈괘를 버리다가 대소 왈

도젹이 오날밤에 우리 진을 겁칙ᄒᆞ리라 ᄒᆞ고 졔장을 불너 여차여차ᄒᆞ라 단속ᄒᆞ얏더니

맛참 밤이 삼경이라 과연 젹병이 달녀들거ᄂᆞᆯ 원수 졔장으로 더부러 일시에 나와 엄살ᄒᆞ니 젹진에 머리 츄풍락엽 갓더라

셔번과 가달이 군을 픽ᄒᆞ고 겨우 잔명만 보젼ᄒᆞ야 본진으로 도라와 탄식ᄒᆞ야 왈

무죄ᄒᆞᆫ 쟝졸만 죽이고 셩공치 못ᄒᆞ얏스니 이를 장차 엇지ᄒᆞ리요 ᄒᆞᆫᄃᆡ

졔쟝이 일시에 엿ᄌᆞ오되 젹쟝의 용ᄆᆡᆼ은 경젹지 못ᄒᆞ리라 ᄒᆞ시나 통골의 아ᄃᆞᆯ 통각이 비상ᄒᆞᆫ 지조를 품엇스니 엇지 제 부친의 원수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리요 반다시 힘을 다ᄒᆞ야 젹쟝을 잡을 거시니이다 이 밧게 다른 계교 업ᄉᆞ오니 급히 통각을 쳥ᄒᆞ야 의논홈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거 ᄂᆞᆯ 셔번과 가ᄃᆞᆯ이 대희ᄒᆞ야 즉시 사자를 보ᄂᆡ여 통각을 쳥한지라

잇ᄯᅥ 통각이 졔 아비를 젼쟝에 보ᄂᆡ고 주야로 승쳡홈을 기다리더니 문득 사ᄌᆞ 부음을 가지고 와 젼ᄒᆞ고 가ᄃᆞᆯ의 글월을 올니거ᄂᆞᆯ 통각이 대경만극ᄒᆞ야 즉시 신위를 ᄇᆡ셜ᄒᆞ고 아비의 원수를 갑고져 ᄒᆞᄆᆡ

도사 통각의 사졍을 불상이 넉여 왈

네 부친의 용ᄆᆡᆼ이 세상에 웃듬이더니 명쟝 손에 죽엇스니 명쟝은 범상ᄒᆞᆫ 쟝수가 아니라 ᄒᆞ고

ᄯᅩ 스승이 업슬 것이요 겸ᄒᆞ야 강력이 부족ᄒᆞ고 별 조화 업슬 거시라 ᄒᆞ고

내 진세에 나아가기 실이나 그ᄃᆡ를 홀노 보ᄂᆡᆷ이 미안ᄒᆞᆫ즉 ᄒᆞᆫ가지로 가리라 ᄒᆞ고 통각의 집이로 도라와 힝쟝을 ᄎᆞ려 작반ᄒᆞ야 갈ᄉᆡ

통각 누의 벽옥이 통각으로 더부러 금강도사의게 십년 지조를 ᄇᆡ와 검슐이 비상ᄒᆞ고 조화 무궁ᄒᆞ야 풍운을 타고 사히팔방으로 출입ᄒᆞᄂᆞᆫ지라

벽옥이 ᄯᅩᄒᆞᆫ 작반홈을 쳥ᄒᆞ야 왈

부모의 원슈 갑기ᄂᆞᆫ 남녀간에 분별이 잇ᄉᆞ오리잇가 ᄒᆞᆫ가지로 나아가 부친 원슈를 갑고 젹쟝의 간을 ᄂᆡ여 부친의 고혼을 위로ᄒᆞ옴이 올ᄉᆞ오니

모친은 말류치 마옵소셔 ᄒᆞ거ᄂᆞᆯ

그 어미 긔특히 녁여 왈

네 츙셩과 효셩이 지극ᄒᆞ니 엇디 셩공치 못ᄒᆞ리요 속히 보수ᄒᆞ고 도라오라 ᄒᆞ믹 벽옥이 어미의게 하직ᄒᆞ고 통각과 도사로 더부러 작반ᄒᆞ야 가달의 진에 이른지라

잇ᄯᅴ 신원수 날마다 싸홈을 지쵹ᄒᆞ야 질욕ᄒᆞ되 가ᄃᆞᆯ 등이 진문을 닷고 요동치 아니ᄒᆞ나이다 ᄒᆞ거ᄂᆞᆯ

션싱 왈

거야에 텬문을 살펴본즉 셔방으로셔 은은ᄒᆞᆫ 자셩이 젹진에 빗치엿스니 분명히 특별ᄒᆞᆫ 명장 잇셔 적진을 도음이니 원수ᄂᆞᆫ 삼가 조심ᄒᆞ라 ᄒᆞ더라

잇째 맛참 금강도ᄉᆞ와 통각과 벽옥이 사신을 싸라옴을 보고 가ᄃᆞᆯ과 셔번이 ᄃᆡ희ᄒᆞ야 멀니 나가 금강도ᄉᆞ와 통각을 환녕ᄒᆞ야 진즁으로 도라오니라

통각이 진즁에 드러가 통곡ᄒᆞ고 분홈을 이긔지 못ᄒᆞ야 잇흔날 진젼에 나와 크게 불너 왈

젹쟝은 밧비 나와 ᄂᆡ 칼을 바드라 나는 통쟝군의 아ᄃᆞᆯ 통각이라 ᄂᆡ 너를 결단코 죽여 우리 부친의 원수를 갑흐리라 ᄒᆞ며 ᄃᆞᆯ녀들거ᄂᆞᆯ

원슈 ᄃᆡ로ᄒᆞ야 ᄭᅮ지져 왈

너의 아뷔 무도불의ᄒᆞ야 텬위를 범ᄒᆞ다가 목업ᄂᆞᆫ 귀신이 되엿스니 ᄂᆡ 칼은 본ᄃᆡ 사졍이 업스니 네 또ᄒᆞᆫ 쥭기를 지촉ᄒᆞ니 ᄒᆞᆫ칼노 부쟈 동츰이 가련ᄒᆞ다 ᄒᆞ고 마져 싸홀ᄉᆡ 팔십여 합에 이르러ᄂᆞᆫᄃᆡ 신원슈 칼을 드러 통각의 말을 지르니 말이 소ᄃᆡ를 벽력갓치 지르고 본진으로 닷거날 원수 싸르려 ᄒᆞ거ᄂᆞᆯ 일향대ᄉᆞ 징을 쳐 부르는지라

원수 헐일업셔 본진으로 도라와셔 징 치든 리유를 무른ᄃᆡ 션싱 왈

젹장이 비록 픽ᄒᆞ얏스나 젹진이 안젼ᄒᆞ고 항오 분명ᄒᆞ야 굿 기가 철옹 갓거ᄂᆞᆯ 엇지 경젹ᄒᆞ리요 원수 젹쟝을 싸라감이 히로울 듯ᄒᆞ기로 징을 쳐 군을 거두움이라 ᄒᆞ더라

잇ᄯᅴ 금강도사 왈

내 젹쟝의 지략과 용밍을 보니 당셰 령웅이라 힘으로ᄂᆞᆫ 대젹지 못ᄒᆞᆯ 거시니 내 맛당이 조화로 잡으리라 ᄒᆞ고 조히를 난호와 밍호 삼쳔을 만드러 각각 신쟝을 졉ᄒᆞ야 싸홈을 돕게 ᄒᆞ리로다 ᄒᆞ고 발기를 긔ᄃᆡ리고 잇더라

잇ᄯᅴ 일향대사 원수를 불너 왈

내 젹진을 살펴본즉 운무가 젹진을 옹위ᄒᆞ고 살긔츙텬ᄒᆞ니 반다시 도인 잇셔 계교를 ᄭᅮ미ᄂᆞᆫ 것 갓흐니 ᄂᆡ일은 부ᄃᆡ 경젹지 말나 ᄒᆞ고 목룡 삼쳔을 ᄆᆡᆫ드러 풍빅을 호령ᄒᆞ야 싸홈을 도웁게 ᄒᆞ니라

잇흔날 통각이 진젼에 나셔며 싸홈을 돕거ᄂᆞᆯ 원수 나와 싸화 불과 슈합에 광풍이 ᄃᆡ작ᄒᆞ며 난ᄃᆡ업ᄂᆞᆫ 짐싱이 밍호 삼쳔을 모라드러오니 밍호 불덩이를 토ᄒᆞ며 다러드니 명진 쟝졸이 황겁ᄒᆞ야 감히 ᄃᆡ젹지 못ᄒᆞ고 원수 또ᄒᆞᆫ 슈족을 놀니지 못ᄒᆞ거늘 일향ᄃᆡ사 양진 승픽를 살펴보다가 급히 풍벽을 불너 호령ᄒᆞ야 목룡 삼쳔을 모라 젹진을 헛치고 드러가니 뇌졍벽력이 텬디진동ᄒᆞ고 어름덩어리를 날녀오니 젹진 즁에 범과 장졸이 어름 우에셔 다리를 벌벌 썰고 무셔워 감히 싸호지 못ᄒᆞ거ᄂᆞᆯ 자세히 살펴본즉 범의 몸이 다 조회인 고로 비를 마져 시신도 업더 라

그졔야 원슈 풍빅을 호령ᄒᆞ야 통각을 성문 밧게셔 버히고 승전고를 울니며 크게 질겨ᄒᆞ더라

잇째 벽옥이 구름을 올나타고 젹진에 이르니 오라비 벌셔 죽엇난지라

ᄃᆡ경통곡ᄒᆞᆯᄉᆡ 차시 금강도사 벽옥다려 일너 왈

그ᄃᆡ 검슐이 비상ᄒᆞ니 오날밤에 젹진에 드러가 젹장을 버혀 쳘텬지원슈를 갑푸라 젹진에 긔이ᄒᆞᆫ 장슈와 신긔ᄒᆞᆫ 도사가 잇셔 조화무궁ᄒᆞ니 인력으로 잡지 못ᄒᆞᆯ지라 ᄒᆞ더라

벽옥의 년이 십팔 셰라 이날 밤들기를 긔다려 비수를 몸에 품고 무지ᄀᆡ를 타고 젹진을 향ᄒᆞᆷᄋᆡ 금강도사도 보검을 들고 풍운에 싸이여 드러가니라

이날 일향대사 텬문을 살펴본즉 탐랑셩이 살긔만텬ᄒᆞ야 명진에 빗치여거ᄂᆞᆯ 일향대사 원수를 쳥ᄒᆞ야 왈

금일 밤에 젹진에셔 자긱을 보ᄂᆡ여 원수를 히코져 ᄒᆞ리로다 ᄒᆞ고 즉시 초인을 ᄆᆡᆫ드러 원수의 옷슬 입히여 장ᄃᆡ에 안치고 좌우에 ᄆᆡ복ᄒᆞ야 풍빅과 신장에게 하령ᄒᆞ야 ᄭᅴ를 긔ᄃᆡ릴ᄉᆡ

젹진으로셔 흰 무지ᄀᆡ 한 줄 쌔치거ᄂᆞᆯ 일향대사 원수로 더부러 당상에 안져 둔갑술을 벼푸러 몸을 감초고 살펴보더니 벽옥이 무지ᄀᆡ를 타고

공즁으로 ᄂᆡ려와 동졍을 살피되 인적이 업거ᄂᆞᆯ 바로 쟝ᄃᆡ에 올나와 원수 안져슴을 보고 달여드러 칼을 ᄲᅦ여 가슴을 지르고 금강대사 공즁으로 ᄂᆡ려와 보검을 ᄲᅦ 들고 원수의 목을 치려 ᄒᆞᆯ 즘음에 일향대사 방포일셩에 풍ᄇᆡᆨ을 호령ᄒᆞ니 좌우 복병이며 신장 신병이 일시에 달여들어 금강도사와 벽옥을 결박ᄒᆞ야 밧치거ᄂᆞᆯ

일향대사와 원수 쟝ᄃᆡ 놉히 안져 금강도사와 벽옥을 ᄭᅮᆯ니고 고셩대질 왈

너는 늘근 놈이 무삼 ᄌᆡ조 잇관ᄃᆡ 젼쟝에 나와 반젹을 도와 임ᄌᆞ 잇는 명국을 요란케 ᄒᆞ나냐

금강도사 ᄋᆡ걸 사죄 왈

빈도는 ᄉᆞᆫ즁에 뭇쳐 뫼를 버슬 삼고 셰월을 보ᄂᆡ더니 져 계집은 통각의 누의이온ᄃᆡ 일직 빈도를 ᄯᅡ라 인간 검술을 ᄇᆡ와숩기로 져의 남ᄆᆡ가 보수ᄒᆞ기를 간쳥ᄒᆞ오ᄆᆡ 사졔간의 의리를 ᄉᆡᆼ각ᄒᆞ고 외람이 텬위를 범히ᄉᆞ오니 죄ᄂᆞᆫ 만사무셕ᄒᆞ오나 ᄌᆞᆫ명을 살여 주시면 산즁에 뭇쳐 다시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 ᄒᆞ오리다 ᄒᆞ며 손을 뭇거 ᄋᆡ걸ᄒᆞ거ᄂᆞᆯ

일향ᄃᆡ사 왈

너를 맛당히 죽일 거시로되 특별 용셔ᄒᆞᄂᆞ니 다시 외람ᄒᆞᆫ ᄯᅳᆺ을 두지 말나 ᄒᆞ고 ᄆᆡᆫ 거슬 글너 노흐니 도사ㅣ ᄇᆡᆨᄇᆡ사례ᄒᆞ고 풍운을 타고 바로 ᄋᆡᄆᆡ산을 향ᄒᆞ야 가더라

ᄯᅩᄒᆞᆫ 벽옥을 ᄭᅮ지져 왈

가달과 네 아비ᄂᆞᆫ 무도ᄒᆞ야 즁국을 침범ᄒᆞ다가 명텬이 미이 녁이사 죽엇거ᄂᆞᆯ 텬의를 모르고 죽기를 ᄌᆡ쵹ᄒᆞ니 엇지 ᄋᆡ달지 아니ᄒᆞ리요 그러ᄒᆞ나 너는 살지 못ᄒᆞ리니 나를 한치 말나 ᄒᆞ고 무사를 명ᄒᆞ야 ᄂᆡ여 베혀 후인을 징계ᄒᆞ라

각셜 원수 대군을 거나려 싸홈을 ᄌᆡ쵹홀ᄉᆡ 가ᄃᆞᆯ 등이 벽옥의 죽엄과 도사의 도망홈을 보고 망극ᄒᆞ야 셔로 의논 왈

이졔는 별 도리 업스니 ᄃᆡ젹지 못ᄒᆞ리라 사싱이 경각에 ᄃᆞᆯ엿스니 찰하리 항복ᄒᆞ야 목숨을 도모함이 올타 ᄒᆞ고 가달과 셔번이 몽고로 더부러 목을 ᄆᆡ여 진전에 나와 항복ᄒᆞ며 ᄌᆞᆫ명을 빌거ᄂᆞᆯ

원수 대로 왈

너의등이 강포만 밋고 대국을 침범ᄒᆞ다가 형세 위급ᄒᆞᄆᆡ 목숨을 도모코ᄌᆞ 항복ᄒᆞ니 너의는 신의를 도라보지 아니ᄒᆞᄂᆞᆫ 놈이라 반다시 죽일 거시로ᄃᆡ 명이 지즁ᄒᆞ야 십분용셔ᄒᆞ야 살여 보ᄂᆡ니 이후ᄂᆞᆫ 다시 반심을 두지 말나 ᄒᆞ고 항셔를 바든 후에 각각 노와보ᄂᆡ니

가ᄃᆞᆯ 등이 텬은을 사ᄒᆞ며 원수며 일향대사를 향ᄒᆞ야 ᄇᆡᆨᄇᆡ사례ᄒᆞ고 본국으로 도라가 쳘비 두 좌를 세워 그 은덕을 긔렴ᄒᆞ게 ᄒᆞ며 금은치단 수ᄇᆡᆨ 차를 드려 왈

원슈의 ᄐᆡ산 ᄀᆞᆺ흔 덕ᄐᆡᆨ으로 잔명을 보젼ᄒᆞ야 도라왓ᄉᆞ오니 하히 갓흔 셩덕을 엇지 다 층량ᄒᆞ야 형언ᄒᆞ오리잇가 ᄒᆞ며 머리를 ᄇᆡᆨ번 두다리고 사례ᄒᆞ나이다 ᄒᆞ얏더라

원수 가달과 셔번과 몽고 삼국에서 보ᄂᆡᆫ ᄎᆡ단을 내여 명국 쟝졸들과 조션 쟝졸들을 난화주고 승젼고를 울니고 즉시 황졔씌 누차 승젼 쳡셔를 올닌 후에 쥬육을 만히 쥰비ᄒᆞ야 잔치를 지ᄂᆡ싀

원슈 졔장군졸을 ᄃᆡᄒᆞ야 왈

금 번 승젼홈은 그ᄃᆡ등의 츙셩을 힘입어 즁국의 위엄을 삼국에 진동케 ᄒᆞ얏스ᄆᆡ 한 잔 슐노 치하ᄒᆞ노라 ᄒᆞ니

모든 쟝졸이 원수를 향ᄒᆞ야 왈

쟝졸간 상ᄒᆞᆫ ᄌᆞ 업시 강포ᄒᆞᆫ 도젹을 함락시키ᄉᆞ 국가의 위엄을 동셔양에 진동케 ᄒᆞ야 주시고 도탄에 드럿든 ᄇᆡᆨ셩을 건지시고 위ᄐᆡᄒᆞ얏든 즁원 죵사를 안젼케 ᄒᆞ야 주셧다 ᄒᆞ며 졔쟝군졸이 일시에 ᄇᆡᆨᄇᆡ사례ᄒᆞ며 원슈를 향ᄒᆞ야 쳔세 쳔세 쳔쳔세라 츅사ᄒᆞ더라

차셜 잇ᄶᅢ 잔치를 맛치ᄆᆡ 다시 승젼고를 울니며 황셩에 도라올ᄉᆡ 경향간 ᄃᆡ소 관원이 디경ᄃᆡ후ᄒᆞᄆᆡ 위엄이 오국에 진동ᄒᆞ더라

각셜 동셔양을 막논ᄒᆞ고 영웅호걸이 자고급금ᄒᆞ야 만치 아는 거시 안이로되 종말ᄉᆡᆼ지 력사를 살펴보면 실ᄑᆡ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만컨만은 신원수의 력사 렬람ᄒᆞ야 본즉 ᄌᆡ조는 천 사람에 지내가고 지혜는 만 ᄉᆞᄅᆞᆷ에 지ᄂᆡ며 용ᄆᆡᆼ은 고금에 렬ᄃᆡᄒᆞ고 겸ᄒᆞ야 츙의가 공전절후ᄒᆞᆺ스니 동셔양의 영웅호걸들을 슬하에 ᄭᅮᆯ닐 만ᄒᆞᆫ 인물일너라

고언에 ᄒᆞ얏스되 인걸디령이라 ᄒᆞ더니 자고지금ᄒᆞ야 조션 동텬에 특별ᄒᆞᆫ 영웅이 ᄇᆡ출ᄒᆞ니 검수강ᄉᆞᆫ일싀 분명ᄒᆞ더라

각셜 일향ᄃᆡᄉᆞ 원수의 손을 잡고 작별ᄒᆞ야 왈

노신이 ᄉᆞᆫ문을 리별ᄒᆞ고 원수로 더부러 젼쟝에 구치ᄒᆞ온 지 오ᄅᆡ 되ᄆᆡ 마암이 자연 울울ᄒᆞ외이

다 오늘 잇짜에 서로 젼별이 되오니 가쟝 챵연ᄒᆞ외이다 그러나 원슈의 지극ᄒᆞᆫ 덕셩과 셩심을 싱각ᄒᆞ면 결연ᄒᆞᆫ 회포를 엇지 다 셩언ᄒᆞ오리잇가 원슈는 원노에 부디 ᄐᆡ평이 가시옵소셔 ᄒᆞ며 말을 맛치ᄆᆡ 소ᄆᆡ를 쓸치고 몸을 소소와 공즁에 오르니 그 간 바를 모르더라

차셜 원수 션싱을 리별ᄒᆞ고 마암을 진졍ᄒᆞᆯ 수 업스나 하릴업셔 공즁을 향ᄒᆞ야 무수히 사례 후 황셩에 도ᄃᆞᆯᄒᆞᆫ즉 황상께옵셔 ᄇᆡᆨ관을 거나리시고 이십 리 밧게 동가ᄒᆞ사 원수를 긔ᄃᆡ리시는지라

원수 말게 나려 룡안을 뵈온ᄃᆡ 황상게옵셔 원수의 손을 잡으시고 승쳡홈을 뭇ᄂᆡ 칭찬ᄒᆞ시더라

원수 가ᄃᆞᆯ과 셔번과 몽고 삼국에 바든 항셔를 쌍수로 바치며 주ᄃᆞᆯᄒᆞ야 왈

폐ᄒᆞ의 널부신 셩덕을 입ᄉᆞ와 도젹을 파ᄒᆞ얏ᄉᆞ오나 하졍에 깃거와ᄒᆞ옵나이다

황상이 대희ᄒᆞ사 왈

경의 츙심 곳 아니드면 종사에 위ᄐᆡ홈을 엇지 면ᄒᆞ얏스리요 경의 공을 의논ᄒᆞᄌᆞ면 하히가 얏틀지라 ᄒᆞ시며 벼살을 도도ᄉᆞ 위국공을 봉ᄒᆞ시고 병부상셔를 시키시니 원수 황공ᄒᆞ와 고사불수ᄒᆞ되 종시 불륜ᄒᆞ시온즉 할릴업셔 사은숙ᄇᆡᄒᆞ니라

황상게옵셔 원수를 사랑ᄒᆞᄉᆞ 황셩 남문 밧게 츙렬비를 광장하게 셰우고 싱사당을 건츅ᄒᆞ야 사시향촉을 풍비ᄒᆞ게 ᄒᆞ사 만셰에 류젼ᄒᆞ게 ᄒᆞ시고 금 은칙단을 만히 상사ᄒᆞ시고 조칙ᄒᆞ야 가라사ᄃᆡ 경은 짐과 평싱을 갓치 누리리라 ᄒᆞ셧는지라

위국공 겸 병부상셔 신류복은 표를 닥가 텬폐에 올이니 그 글에 ᄒᆞ얏스되 소신이 번시 조션국왕을 셤겨ᄉᆞ오니 신의 사졍을 깁히 ᄒᆞ촉ᄒᆞ사 소ᄃᆡ지임을 가라주시면 도라가 국왕이 주소로 신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암을 위로ᄒᆞ야 사군ᄒᆞ는 신자의 도리를 밝혀 주소셔 ᄒᆞ얏더라

ᄎᆞ셜 황상ᄭᅴ옵셔 위국공의 굿은 마암을 아시고 헐일업셔 비답ᄒᆞ야 가라사ᄃᆡ 경의 소ᄃᆡ지임 즁에 작위는 것지 안코 다만 병부상셔를 가라주니 경은 안심ᄒᆞ라 ᄒᆞ시며 다시 조칙ᄒᆞ야 가라사ᄃᆡ 경은 양국 츙신이니 조션에 나아가되 일년 일ᄎᆞ 조회에 참례ᄒᆞ야 서로 만나 보와 짐이 사랑ᄒᆞ는 마암을 져바리지 말게 ᄒᆞ라 ᄒᆞ시더라

위국공이 하릴업셔 텬은을 축사ᄒᆞ며 직일 하직ᄒᆞ고 본국으로 도라 나올ᄉᆡ 텬ᄌᆞ 만조ᄇᆡᆨ관을 거나리시고 삼십 리 밧게 동가ᄒᆞ사 젼별ᄒᆞ실ᄉᆡ 젼역에 나갓든 장졸도 나와 젼별ᄒᆞ더라

잇ᄯᅴ 위국공이 젼역에 나아갓든 군졸을 ᄃᆡᄒᆞ야 위로 왈

그ᄃᆡ등의 츙심을 힘입어 도젹을 파ᄒᆞ고 나라를 ᄐᆡ평케 ᄒᆞ얏스나 그 고초ᄒᆞ든 정형을 싱각ᄒᆞ면 졍의가 셔로 잠신들 ᄯᅥ날 수 업건만은 사군ᄒᆞᄂᆞᆫ 도리에 귀국ᄒᆞ지 아니헐 수 업셔 시세부득 휘루상별ᄒᆞ노니 그ᄃᆡ등은 각긔 귀가ᄒᆞ야 복록을 만히 바더 부모 형졔 쳐자로 만세를 잘 누리라 ᄒᆞ더라

젼역에 나아갓든 즁졸들이 위국공을 향ᄒᆞ야 위로 왈

즁군의 츙심과 지략을 힘입어 즁졸간 일 명이라도 피샹ᄒᆞᆫ ᄌᆡ 업시 도젹을 파ᄒᆞ고 나라를 평안ᄒᆞ게 ᄒᆞ셧스니 그 은혜 ᄐᆡ산 갓숩고 ᄋᆡ휼ᄒᆞ시든 정의 하히 깁ᄉᆞ와 셔로 잠시라도 ᄯᅥ나지 못ᄒᆞ깃거ᄂᆞᆯ 귀국근군ᄒᆞ심으로 말미암아 휘루상별홈을 당ᄒᆞ오니 별 도리 업거니와 복원 쟝군은 원로에 안령히 환국ᄒᆞ사 만ᄃᆡ 녕화ᄒᆞ야 지ᄂᆡ옵소셔 ᄒᆞ얏더라

이ᄯᅴ 위국공이 졔쟝군졸을 차례로 작별ᄒᆞᆫ 후에 텬폐에 하직ᄒᆞ고 황셩을 ᄯᅥ나 여러날 만에 본국으로 도라와 왕샹ᄭᅴ 문안 입시ᄒᆞᆫ 후에 가ᄃᆞᆯ과 셔번과 몽고 삼국을 졍벌ᄒᆞ야 항복밧고 황샹의 근심ᄒᆞ심을 덜게 ᄒᆞ고 샹ᄉᆞ바든 일이며 명국졍치와 법률이며 인물 션불션과 젼후 ᄆᆞᆯᄉᆞᆷ을 주ᄃᆞᆯᄒᆞ온ᄃᆡ

왕샹이 위국공의 손을 잡으사 칭찬ᄒᆞ사 왈

내 경을 타국의 젼쟝에 보ᄂᆡ고 주소로 념녀 무궁ᄒᆞ더니 이졔 다시 만나보니 반갑기 측량업도다 그러나 강포ᄒᆞᆫ 도젹을 쳐 물니치고 벼살이 공후에 이르럿스니 경 갓흔 이는 고금에 듬을지라 ᄒᆞ시거ᄂᆞᆯ

위공이 텬은을 축사ᄒᆞ며 하직ᄒᆞ고 집에 도라와 부인을 만나 뭇ᄂᆡ 반기며 만리 타국에 무사셩공ᄒᆞ고 도라옴을 희불자승ᄒᆞ야 ᄒᆞ더라

신공이 하향 ᄇᆡᆨ셩으로셔 양국에 인쓴을 빗겨 차니 녕귀홈이 일국에 졔일일너라

신공이 젼하ᄭᅴ 엿ᄌᆞ오되 신의 빙부며 류소현과 금평은 신의 쳐족이로소이다 젼하의 널부신 덕ᄐᆡᆨ을 힘입어 명쳔ᄒᆞ게 ᄒᆞ시면 일후 구텬에 가드ᄅᆡ도 텬은을 갑사올가 ᄒᆞ나이다

왕상이 ᄃᆡ희ᄒᆞᄉᆞ 리셤으로 공조참의를 졔수하

시고 류소현으로 샹주목사를 졔수ᄒᆞ시고 금평으로 밀양부사를 졔수ᄒᆞ시ᄆᆡ 각긔 사은숙비ᄒᆞ고 텬은을 츅사ᄒᆞ고 신공의 은덕을 뭇ᄂᆡ 사례ᄒᆞ고 각긔 직소로 부임ᄒᆞ더라

각셜 신공이 부인으로 더부러 검실지락으로 셰월을 보닐ᄉᆡ 어언간에 삼남 일녀를 두엇스니 총명과 직질이 특이ᄒᆞ야 츌즁과인홈이 위공이 사랑ᄒᆞ야 쟝ᄌᆞ의 일홈은 샹길이요 챠ᄌᆞ의 일홈은 즁길이요 삼ᄌᆞ의 일홈은 만길노 지엇스니 각긔 쳥년등과ᄒᆞ야 벼살이 일품에 쳐ᄒᆞ고 쏠의 일홈은 소희니 용모와 문학이며 직덕이 비샹ᄒᆞᄆᆡ 우승샹의 며나리 되야 부귀를 누리더라

잇ᄯᅴ 위공의 년광이 칠십 셰에 이르러 긔력이 쇠진ᄒᆞᄆᆡ 샹소를 닥가 벼살을 사직ᄒᆞ고 무주 고비촌 고향에 검의환향으로 나려가더라

독ᄌᆞ시여 여차흔 동자를 보게드면 인물 우렬을 가히 알지라

고진감릭며 흥진비릭는 텬연공리어니와 동셔양을 막논ᄒᆞ고 사ᄅᆞᆷ이 ᄆᆡ양 녕귀할ᄉᆞ록 욕망이 불갓치 이러나셔 득농망촉ᄒᆞ는 마암으로 더욱 극귀ᄒᆞ량으로 불나뷔 밝은 비슬 탐ᄒᆞ야 등잔불에 ᄃᆞᆯ겨들고 소경이 평평홈을 취ᄒᆞ야 파밧에 드러가드시 한업시 극귀흔 디위를 엉둥ᄆᆡᆼ랑스럽게 도모ᄒᆞ랴다가 도로혀 신ᄆᆡᆼ가ᄑᆡᄒᆞᄂᆞᆫ 디경을 당ᄒᆞ야 노루ᄇᆡᆨ곱 씹고 사슴 샬을 분지르는 탄식을 ᄒᆞ들 후회막급이요 막가ᄂᆡ하라

셔한 쎡 즁량은 젹송ᄌᆞ를 싸라갓다 ᄒᆞ고 월국시ᄃᆡ에 범녀은 오호를 건너가셔 륙츅장사ᄒᆞ야 부긔를 부운갓치 녁이여 픠흉취길ᄒᆞ든 사람이 잇스되 이갓치 ᄃᆞᆯ관흔 신류복은 부귀공명이 지족홈을 ᄊᆡ다름으로 세샹아자 쓸데업다

공셩신퇴지후 림쳔에 초당지어 만권 셔칙 싸어 놋코 여러 자손 교육시키며 부모 위ᄒᆞ야 사당집을 정결 건츅ᄒᆞ고 공젼졀후흔 츙렬부인 엽혜 동좌ᄒᆞ고 남노 녀비로 더부러 농업과 방젹으로 힘써 치산ᄒᆞ며 원근친구를 청요ᄒᆞ야 음풍영월노 세월을 한양ᄒᆞ야 가며 여가에 아름다온 풍광이 릭도ᄒᆞ면 경치를 취ᄒᆞ야 휘주승션ᄒᆞ야 검은고 줄를 울니며 강호에 ᄇᆡᆨ구로 버슬 ᄉᆞᆷ아 소ᄌᆞ쳠의 지취를 발부니 셰상에 아오라 아지 못흔 힝녀과긱이 되ᄆᆡ 녯날 입신양명흔 후 녕귀ᄒᆞ든 일을 도로혀 싱각ᄒᆞ야 보면 일쟝츈몽일너라

녯젹에 자죽주는 쳔츄의 보감이 되ᄆᆡ 뉘라셔 흠션 칭찬 아니ᄒᆞ 리 업더라

슬푸도다 인싱 슈요쟝단은 텬연공리라 엇지 인력으로 ᄒᆞ리요

잇째는 맛참 하사월 망간이라 녹음방초 승화시에 히는 어이 더디 가노

오동야월 ᄃᆞᆯ 밝은 째를 당ᄒᆞᆫ지라

잇째 공이 부인을 ᄃᆡᄒᆞ야 왈

우리가 상주에셔 움 속에 살림ᄒᆞ든 거시 어제 갓더니 벌셔 우리 년광이 칠십여 세에 이르러 ᄇᆡᆨ발이 셩샹ᄒᆞᄆᆡ 다시 졈든 못ᄒᆞ리로다 ᄒᆞᄆᆡ

부인이 미소 왈

조여쳥ᄉᆞ모셩셜이라 ᄒᆞ든 녯 ᄉᆞᄅᆞᆷ의 말을 망치ᄒᆞ셧나잇가

신공이 싱각ᄒᆞ되 젼졍 무일홈을 ᄊᆡ닷고 후원국ᄂᆡ에 보진을 화려이 셜ᄇᆡᄒᆞ고 잔치를 굉쟝이 ᄇᆡ셜ᄒᆞ야 부인과 여려 ᄌᆞ녀로 더부러 풍악을 갓초와 날마다 연락ᄒᆞ야 질기더라

잇째는 하ᄉᆞ월 망간이라 월ᄉᆡᆨ은 만원ᄒᆞ고 화풍은 화창ᄒᆞ며 쐬고리 버슬 싱각ᄒᆞ야 부르고 두견이 고국을 싱ᄀᆞᆨᄒᆞ야 슳히 우는데 난ᄃᆡ업ᄂᆞᆫ 쳥아흔 옥져소릭 은은히 들니거ᄂᆞᆯ

괴이 녁여 살펴본즉 ᄒᆞᄂᆞᆯ노셔 일위 션관이 나려와 신공을 향ᄒᆞ야 기리 읍ᄒᆞ야 왈

진셰 자미가 엇더ᄒᆞ시며 별후 무량ᄒᆞ시나잇가 ᄒᆞ니

공이 답례ᄒᆞ야 왈

젼일에 ᄒᆞᆫ 번도 뵈온 적이 업습ᄂᆞᆫᄃᆡ 별후라 ᄒᆞ시는 말슴은 조금도 싱각지 못ᄒᆞ깃나이다

션관이 답ᄒᆞ야 왈

그ᄃᆡ와 부인은 텬상 션관션녀로셔 옥황샹졔씌 득죄ᄒᆞ야 양게 인연을 ᄆᆡ자 진셰에 젹강식히셧더니 옥황샹졔씌옵셔 나를 명ᄒᆞ사 그ᄃᆡ 부부를 다려오라 ᄒᆞ시기로 나려왓ᄉᆞ오니 인간자미를 싱ᄀᆞ지 마시고 밧비 가사이다 ᄒᆞ거ᄂᆞᆯ

공과 부인이 여러 자녀를 도라다보며 자녀들을 ᄃᆡᄒᆞ야 한 마디식 일너주니라

잇ᄯᅴ 맛츰 텬디 진동ᄒᆞ고 치운이 이러나며 옥져소릭 다시 나는 듯ᄒᆞ더니 공과 부인이 간데 업거ᄂᆞᆯ 비로소 여러 자녀들이며 남녀노소드리 샹공이 ᄇᆡᆨ일승텬흔 줄을 알고 ᄋᆡ통ᄒᆞ며 그 샹공과 부인의 덕성을 사모ᄒᆞ야 일희일비ᄒᆞ야 지ᄂᆡ더라

자손드리 헐일업셔 샹례와 쟝례를 갓초와 션영하에 ᄃᆡ쟝으로 허쟝을 지ᄂᆡ고 례로셔 삼년초토를 극진이 맛친 후에 삼자 일서가 청년등과ᄒᆞ야 벼살이 일품에 쳐ᄒᆞ야 자손이 창셩ᄒᆞ고 금옥이 만당ᄒᆞ야 셰ᄃᆡ로 녕귀ᄒᆞ고 현ᄃᆞᆯᄒᆞᆫ 공명이 면면부졀ᄒᆞ야 신씨 부부의 사젹이 하도 특별ᄒᆞ기로 ᄃᆡ강 긔록ᄒᆞ노라

신류복젼 죵